조선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4 호

7 월 31 일

평양 로동신문사 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제14호 (36)
1949년7월31일

내 용

로동규률 강화를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 인민정권의 수립과 그에 의하여 실시된 제반 민주개혁의 승리는 근로인민들의 로력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고있다。

산업국유화 법령의 실시로 말미암아 일제와 민족반역자들이 소유하고있던 모든 중요한 산업기관은 인민들의 소유로 되였으며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조국건설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을 수행하는 주도적 력량으로 되고있다。

그들은 일제가 파괴한 공장、광산、기업소들을 복구 발전시키며 조국의 완전통일의 토대를 축성하는 인민경제 계획실행의 선두에서 애국적 열성과 거대한 창조적 력량들을 발휘하고있다。

이리하여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착취의 기반밑에서 오직 잔악한 협박으로써만이 강행되던 굴욕적 로력은 오늘에 있어「조선인민의 영예」로 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의 로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국가와 자기를 위하여 자유로운 환경과 향상된 로동조건하에서 작업하게 되였다。그러므로 일제시대에 있어 온갖 위협적 방법으로써도 유지할수 없던 생산질서와 로동규률은 전체 근로인민들의 자각적 열성으로 준수되고 있으며 각 산업 생산기업소들에서의 로동자들의 평균 출근비률은 생산의 급속한 확대와 함께 더욱 제고되고있다。례를 들어 一九四七년도의 주요산업 로동자들의 년 평균 출근률이 八九%였다면 一九四八년도에 이르러서는 九三%로 장성되었으며 이 비률은 一九四九—五〇년도의 새 二개년계획실천에 착수함으로부터 더욱 제고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기에 답보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 건설사업이 진행될수록 모든것을 일층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다. 더우기 아직도 로동일의 리용과 출근비률들을 더욱 높일수 있는 여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 직장들에서는 작년四·四분기에 비하여 도리어 탁후되고있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을뿐만 아니라 로동자들의 직장이동의 현상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있다.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은 지난해에 비하여 산업, 운수, 각부문에서 현격한 생산장성을 예견하고있다.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생산기업소, 운수직장들에서 로동규률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강화하여 로동자들의 출근률을 일층 제고시키고, 지각, 조퇴와 직장 이동현상들을 철저히 근절하며 일체 생산조직에서 조그마한 랑비와 간극(間隙)도 없이 모든 생산 능력을 능률적으로 계획실행에 동원시키도록 하는 투쟁이 일층 강력히 전개되어야 할것이다. 로동규률을 강화함이 없이는 높은 로동생산성은 보장될수 없는것이며 규정된 로동일을 충분히 살리면 살릴수록 우리들은 귀중한 사회적 로력을 더욱 절약할수 있게되는것이다.

생산능률을 제고사키고 로력을 절약하는 문제는 二개년계획을 더욱 성과적으로 초과실행하는 중요한 담보로 되며 또한 로동자들의 수입을 증대시키게 될것이며 그들의 문화 및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고 정당한 휴식을 보장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각 생산직장들에서는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광범한 군중적 경쟁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많은 우리당단체들이 이 사업을 사회적으로 보장함에 있어 자기의 우수한 조직적 지도력량들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로동규률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부분적 당단체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도상 결점의 하나는 로동자들의 출 결근 비률의 표면적 현상에만 지나치게 관심하는 나머지 四八○분 로동일을 충분히 생산에 리용하도록 하는 방면에 주의를 약하게 돌리는것이다. 이리하여 부분적 직장들에서는 아직도 로동시간내에 각종 행사들을 조직하며 군중회의들을 소집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는 경향들이 철저히 제거되지 않고있는 사실들을 보게된다. 뿐만아니라 작업지도와 교대조직에 있어서도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로동시간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많은 여지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다한 보충적 로력들을 사용하고있는 직장들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로 말미암아 부분적 생산기업소들에서는 로력은 계획대로 보장되어 있으나 로동생산성은 계획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되며 출근률은 향상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은 도리어 저하되어 생산계획의 실행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게되는 사실들을 나타내고 있다.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결함은 일부 직장들에서 로동규률이 제고되지 못하고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 원인들을 깊이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근본적 대책들을 수립하며는 사업들이 미약한데있다. 부분적 생산기업소들에 있어서는 작업조건의 불비와 준비사업의 불충분으로 말미암아 많은 로동자들이 자기의 로동시간을 충분히 생산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일부 직장들에서 직장 위생사업에 대하여 만전의 대책들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로동규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들을 보게되는 것이다. 또한 아직도 부분적 직장들에서 볼수있는 로동임금의 평균주의적 경향과 기술수준에 대한 부정확한 평가는 로동자들의 막연한 직장이동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부분적 우리당 단체들중에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한 원인들을 세심히 분석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있으며 일률적인 군중해설사업과 일시적인 미봉적 방법에 그치고있다.

이리하여 일부 생산 기업소들에서는 작업능률이 정상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돌격식 작업과 시간외 로동등으로서 탁후된 생산책임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경향들을 보게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합된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면 어느 직장을 물론하고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하여 출근률을 일층 제고시키고 四八○분을 생산에 충분히 리용한다면 시간외 로동은 조금도 필요치 않다는것과 시간

의 작업은 도리어 다수 경우에 있어 로동규률을 약화시킬수 있는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로동규률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로동자들의 작업하는 구체적 정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작업에 대한 로동자들의 흥미를 제고시키며 고착하여 일할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지어주는 사업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정확한 도급제와 옳게 조직된 문화사업들은 로동규률 강화에 많은 영향들을 주게된다。

생산을 추진시키는데 있어서 오랫동안 한직장에 고착된 로동자들의 역할은 거대한것이며 이 로동자들의 숙련정도와 작업능률을 옳게 평가하여 임금기준을 제때에 정확히 사정하고 더 중요한 직위로 넘어갈수 있는 로동자들을 제때에 등용하는 사업은 숙련로동자들의 정착률을 더욱 높이는 대책으로 될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로동자들에게 힘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며 작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이게 하고 그들의 막연한 부동을 방지하는 주요한 대책으로 되는것이다。

로동규률을 더욱 강화함에 있어 각급 당단체들은 또한 직업동맹 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시키는 사업에 높은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산업건설의 확창과함께 각 생산부문들에서는 새 로동력이 부단히 인입되고 있다。 이러한 신채용 로동자들에 대하여 내부 정리규칙을 철저히 리해시키고 四八〇분을 옳게 리용하는 방법들을 친절히 배워주며 전체 로동자들에게 공장내의 질서를 더욱 정연하게 준수할데 대한 군중교양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들에 직업동맹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할것이다 이리하여 모든 생산활동에서 로력의 랑비현상을 제거하고 규률준수에서 락후된 로동자들을 선진일군들의 대렬에 올려 세우는 투쟁에 자체의 광범한 조직적 력량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일찌기 김일성동지는 제二차 전당대회에서 「경리운영에 있어서 엄숙한 인민적 질서와 규률을 수립하기 위한 투쟁을 미약하게 전개」하고 있는 우리당단체들의 경리건설에서 가지고있는 약점을 지적하면서 「일

부 기업소들에서는 로동규률이 미약하며 로동자들의 류동을 계속적으로 조성하며 비생산성과 물자의 랑비를 용허하며 국가재산을 절취하는 부정사건들을 발생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단체들 앞에 나서는 과업은 생산기업소들에서 엄숙한 새 인민적 질서와 규률을 수립함으로써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는 일체의 사업을 조직하여야 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二개년인민경제 계획 완수의 력사적 과업을 앞두고 전체 생산기업소들에서 로동규률 제고를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사업은 오늘 우리당단체들 앞에 더욱 긴절히 제기되고있다。

각급 당단체들은 모든 생산부문에서 반동 암해분자들의 생산질서를 교란하고자하는 온갖 책동에 더욱 경각성을 높이고 로동규률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조건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매개 생산기업소들에서 고상한 새 질서의 강화를 위한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일층 높여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전체 로동자들로 하여금 로동시간을 아낄줄 알게하고 규률을 준수하며 고착률을 높이고 각자의 기술수준을 더욱 제고하여 二개년계획 실행에 우리들이 가지는 모든 력량과 가능성을 성과적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거족적 대책

북조선로동당 중앙검열위원회 위원장 장 순 명

지난 六월二十五일 평양에서 전체조선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열렬한 환호속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가 엄숙히 개최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남북조선에서 현재 활동하고있는 七十一개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 七백여명의 참석하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회에는 정견이 다르고 신앙이 상이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써 조직된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주목할것은 남조선에 있는 五十여개의 정당사회단체 대표들이 리승만반동괴뢰「정부」의 테로와 학살의 경계망을 뚫고 오직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는 애국적 일념에서 자기회생을 접내지 아니하고 다수가 참가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대회에서 토의한 중심 문제는 조국에 조성된 현정치정세의 위기를 타개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구국대책을 수립하는 일이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는 자기의 투쟁강령을 결정하고 남북조선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 전체조선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이 선언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유일한 구국방책을 제시한것이며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천명한것이다。 이 선언서는 전체 민주주의정당 사회단체들의 일치한 념원에서 자기들의 굳은 신념과 애국적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선인민들의 단결된 민주력량을 전세계에 시위하였다。

이와같이 조선인민의 일체 애국적 력량을 집결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의 성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단결된 민주력량의 승리를 말하여주는 것이며 조선인민의 애국적 력량은 미국군대를 철거시키며 「유·엔조선위원단」을 우리 강토에서 물러가게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는 거대한 힘으로 장성되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유구한 력사와 고유한 민족문화를 소유한 단일한

조선민족이 三八선이란 인공적 계선에 의하여 남북조선으로 분렬되어 있으며 남북조선인민들은 각각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하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인민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급진적으로 향상되고있는 반면에 남조선인민들은 빈궁과 기아、 테로와 학살에 신음하고있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의 분렬과 위기가 계속되고있는 사실은 해방후 四년동안의 남북조선의 현실과 그 사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원인이 저절로 명백하여질것이다。

× × ×

제二차세계대전의 결과는 제국주의자들이 희망하였던것과는 정반대로 세계력사에 새 기원을 지어주었다。 제二차세계대전은 세계제패를 몽상한 독일、 이태리、 일본등 제국주의 야수적 팟쇼침략도배들이 격멸되고 약소국가와 피압박 민족들을 해방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민주를 옹호하는 쏘베트군대의 승리로 종결되였다。 그리하여 조선민족의 해방도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나니 쏘베트군대의 영웅적 진격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일본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지 벌써 四년이 경과되었다。

서방에서 야수적 팟쇼독일군대를 소탕하고 동방에서 강도 일본제국주의 군대를 격파한 위대한 쏘베트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부터 조선인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히 하여 조선이 독립국가로 발전할수있는 유리한 조건들 ― 지어주었다。 북조선에 진주한 쏘베트군대는 조선인민들이 창설한 인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여주었으며 일제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청산하며 제반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사업에 있어서 백방으로 이를 원조하여 주었던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공화국북반부에서는 토지는 농민의 것이 되었고 八시간로동제 실시와 사회보험의 혜택 및 보건、 교육、 문화、 각방면에 있어서、 근로인민들의 생활은 부단히 향상되고있으며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가 완전히 보장되고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북조선에 진주한 쏘베트군대가 조선인민에게 첫인사로 보낸 다음과같은 포고문이 그대로 실현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다。

즉「조선인민들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조선력사의 첫페지가 될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로력과 정력의 결과이다。 이와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로력하여야만 달성할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위에 놓인 돌맹이까지도 조각돌까지도 피로운 로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이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며

조선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것을 당신들이 잘알지 않는가?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것이다。

조선인민들이여! 기억하라、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당신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았다。쏘베트군대는 조선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로력에 착수할만한 모든 조건들을 지어주었다。조선인민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자로 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 공화국 남반부에 상륙한 미국군대는 조선인민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미군은 조선인민에게 탄압과 학살、기아와 빈궁、멸시와 굴욕밖에는 아무것도 가져온것이 없다。

쏘베트군대의 영웅적 진격으로 일제가 무조건항복한후 일개월이 훨씬 지나서 일본군대의 아무러한 저항도 받지않고 유유히 남조선에 진주한 미국군대는 다음과같은 첫 포고에서 벌써 자기의 식민지침략의 야욕을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오늘의 공화국 남반부의 현실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있다。

즉「이로부터 조선 북위三八도 이남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치함。주민은 본관과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절대복종할사。점령군에 대하여 반항을 하거나 또는 질서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자는 용서없이 엄벌에 처함。군정기간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영어로함」

이것이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국군대가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첫인사이였다。

미국군대는 남조선이 적국의 령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들이 창건한 인민위원회들을 해산하며 군정을 실시하고 일본법률과 경찰규칙을 그대로 사용하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제도를 복구시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및 경찰기관의 각부문에는 다년간 일제의 주구로 복무하던 민족반역자들을 그대로 등용하고 있다。그런까닭에 남조선에는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는 탄압을 당하여 지하에 들어가고 수많은 애국자들은 투옥되고 있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는 박탈되고 고문과 학살은 평범한 일같이 보통으로 진행되고있다。공장 기업소들은 파괴되어 로동자들의 임금은 등귀하는 물가와 반비례로 떨어져서 자기생활을 유지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로동자들이 공장 광산 기업소들에서 쫓겨나며 실업자들이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으면 안되게되었다。공화국남반부의 삼남지방은 조선에서의 거대한 곡창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자기손으로 지은 쌀을 먹어볼수 없을만큼 농촌경리는 파탄의 일로를 걷고있으며 학원은 테로와 탐정의 소굴로 화하여 애국청년들이 학원에서 쫓겨나며 근로인민의 자제들이 배울길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은 거주할 집이없이 토굴이 아니면 방공호나 쓰레기통에서 생활하지않으면 안되게되었다。

이와같이 공화국 남반부에는 실로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털끝만치도 보장되어있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은 일제통치시대 이상의 빈궁과 폭압에 신음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음과같은 몇가지 실례로써 더욱 명백하여지는것이다。

「전남 보성군 김판남이란 녀자는 애국자들과 련락하였다는 혐의로 리승만괴뢰「정부」의 경찰은 그녀자를 군중들앞에서 발가벗기고 나무가지에 목을 달아매고 다리를 찢어 죽인 사실、전남순천군 문재균이 망명하였다는 구실로써 그 가족을 다려다가 군중앞에서 발가벗기고 날카로운 칼로 그 부인의 젖과 팔 다리의 살을 떼어내면서 죽인 사실」(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허헌선생의 보고중 一절)들은 오늘 공화국남반부에는 인륜과 도덕이 파괴된 무법천지로 되었고 인간의 생지옥으로 화하고 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 증거이다。

이것이 누구의 죄악이며 누구때문에 이 분렬이 계속되고있는가―하는 문제는 이제 명백하게되었다。

이와같이 우리민족의 자주적 존립과 발전에 심대한 위험을 주고있는것은 공화국남반부에 미국군대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노예화정책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있는 까닭이며 그야만적 식민지 노예화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매국적 정책에 기인하는것이다。

× × ×

미국의 이러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조선을 자기들의 병참기지로 영구히 침략하려는 처음부터의 계획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국제공약을 준수 실행하지 아니한데서 더욱 명백하여졌다。

모쓰크바三국외상회의결정은「조선을 민주주의독립국가로 부흥발전시키며 장기간에 걸친 일본제국주의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신속히 청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림시정부를 수립할것과 조선인민들이 정치、경제、문화적 방면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발전을 초래할수 있는 제조건들을 창설하기 위하여 五개년간의 후견제를 실시할것」을 규정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이 정당한 국제협약―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보장하며 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예견한―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을 거듭 실패로 돌아가게하고 쏘미량국 군대를 동시에 철거하자는 쏘베트동맹의 정당한 제의를 거부하였다。뿐만아니라 조선문제를「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상정시키고 조선인민의 대표를 참가시키자는 쏘베트동맹대표단의 제안을 거

부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딸라에 매수된 허수아비들의 거수기에 의하여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채택한후 자기들의 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을 파견하게하여 一九四八년五월에 단독선거를 강압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화국남반부에 리승만괴뢰「정권」을 수립하였던것이다。 리승만、김성수、리범석등 민족반역도배들은 미군이 날조해낸 괴뢰「정부」에 들어앉아서 인민을 배반하고 미국상전의 명령대로 움직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의 리익을 위하며 조선을 미국에 팔아먹기에 광분하고있다。 一九四八년말에 쏘베트군대가 공화국북반부에서 철퇴를 완료하게되자 당황한 리승만매국역도들은 조선에 미국군대의 장기주둔을 애원하고 조선인민들을 탄압하며 학살하기에 더욱 발광하였다。 공화국남반부에서 벌어진 이러한 사태와 조국에 조성된 위험한 정세는 조선인민들의 격분을 일으키게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철퇴를 부르짖으며 손에 무기를 들고 리승만괴뢰「정권」을 타도분쇄하는 구국투쟁에 궐기하고있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희구하는 불타오르는 애국심에서 빨찌산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리승만매국역도들은 조선인민의 반항에 황겁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은폐하고 조선인민들을 기만하며 조선을 영구히 분활하기 위하여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며 조선인민들을 피의 바다에 잠그려하고있다。 소위 리승만괴뢰「정부」의 국방군이 三八선에서 충돌사건을 계속 도발하고있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희생시키고있는 사실들은 리승만매국역도들의 분렬정책과 배족적 행위를 말하여주는 것이다。

× × ×

우리 조국에 닥쳐온 이와같은 엄중한 위기를 타개하며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갈망하는 조선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히 하여 전체 조선민주주의정당사회단체대표들이 조국의 평화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정대회에 참집하였던것이다。

대회는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조선인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토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거족적 대책을 수립하였던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서는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때 대한 근본적 대책을 구명하였나니 조선인민들 자체의 힘으로써 조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공정하게 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국군대를 즉시 철퇴시키며 비법적기관인「유·엔조선위원단」을 조선강토로부터 즉시 물러가게하고 조선인민자체로서 통일적 총선거를 전조선적으로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그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며 민주주의 제정당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할것과 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며 출판기관들의 발행금지를 취소하고 이를 복구발행케하며 언론、출판、집회、시위등의 자유를 보장케하며 일체 애국적 정치범들을 즉시 석방시키는등등의 일로써 전체 조선인민들의 통일적 총선거에 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건을 지어주는 문제들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일반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서 실시하되 친일분자와 민족반역자들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박탈한다고 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적 총선거의 실시 계획을 토의하기 위하여 남북조선에 있는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써 협의회를 소집하고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고하였다。

총선거지도위원회는 광범한 권한을 가지게된다。 남북조선에 현존하여있는 정부와 기관들에 대하여 선거의 준비와 실시에 관계되는 필요한 지시를 주며 남북조선에 있는 경찰、보안기관을 직접 관활하며 새로 선거하는 최고립법기관은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의하여 공화국정부를 수립하며 정부는 남북조선에 있는 군대를 련합시키며 인민에게 반역한 군대들을 해산시키고 그 조직자들을 처단한다고 하였다。

이 대회의 선언서가 세상에 발표되자 전체 조선인민들은 열광적 환호로써 지지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을 경축하는 군중대회가 각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으며 공장、광산、기업소등 각 직장에서는 종업원대회를 열고 이 선언서를 토의하고 열렬히 지지하고있으며 공화국남반부에서는 이 선언서가 리승만반역도배들의 잔인한 테로와 야만적 경찰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삐라로서 빗발치듯 방방곡곡에 쏟아지고 있으며 남조선인민들의 절대한 지지를 받고있는것이다。

그 선언서가 이와같이 조선인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이 선언서에 제시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옳기때문이며 조국의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선인민들의 애국심에 부합되어있으며 너무나 공정하고 관대하기 때문이다。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정대회가 개최되었다는데 더욱 의의가 심대한것이다。 작년四월十九일에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평양에서 남북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련석회의가 개최되었고 동년八월二十五일에 남북조선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립법기관을 선거하였으며

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기초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수립되고 전체 조선인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정부가 현존한 조건하에서 또다시 남북조선 총선거 실시를 제의한 우리들의 평화적 조국통일방책은 고결한 애국적 관대성에서 나온것이다。 이 관대성은 조국을 통일시키는 사업에 있어서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고려에 넣음으로써 동족상쟁과 내란도발을 충동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 리승만 매국도배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책으로 제기된 까닭이다。

조선은 언제든지 조선인민들의 조선이기때문에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간섭은 전혀 요구되지않는다。 오늘의 조선인민은 자각한 인민들이다。 자기손으로 자기나라를 건설하며 조국에 닥쳐오는 위험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과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인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민들은 조국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타개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이 거족적 통일방책을 적극 지지 찬동하는것이다。

조선인민들은 해방후 四년동안에 일일천추같이 조국의 통일을 갈망하고있었다。 조선인민들은 평화적으로 조국이 통일되기를 갈망하고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채택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구국방책은 조선인민들의 희망과 적합하였던것이다。

인류의 력사는 언제든지 정의의 편에 서있으며 언제든지 인민들의 승리를 고무하고있다。 이 력사가 가르치는 방향을 리해하지못하고 침략과 반동을 고집하여 조선의 친일분자와 민족반역도배들을 사수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조국통일과 독립을 방해하는 음모를 계속할수 없으며 자기군대를 남조선에、영구히 주둔할수는 없을것이다。 이는 조선인민들의 분노를 격화시킬뿐이며 조선인민들의 반격을 면치못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서가 세상에 발표되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한 구국대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 전체 조선인민들은 총궐기하였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며 독립은 반드시 실천될것이다。

승리는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들에게 있을것이다。

당조직지도사업에 있어서
초급당부의 역활

김 태 진

당규약에 의하면 당의 기본조직은 초급단체(세포)로 되는 것이며 이는 공장、광산、탄광、철도、리(농촌)、농장、학교、행정기관、가두、공공시설등에 당원五명으로부터 조직한다。

또한 당원一〇〇명 이상되는 생산、기업、운수직장、사무기관、혹은 리(농촌)에는 시(구역)군당부의 결정에 의하여 초급당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파、계 혹은 교대별로 세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분(分)세포를 조직하는것이다。

우리당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정치 경제적 위업을 달성하는 가렬한 투쟁속에서 더욱 장성 발전되었으며、또 되고 있다。

그리하여 당의、장성 발전과 함께 당 하부조직인 초급단체(세포)는 급속히 조직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급당부는 창립당시에 비하여 二、六五九%(一九四九년五월현재)로 장성되였다。 이는 우리당의 장성이 근로인민들속에서 힘있게 발전되어 가는것을 말하여 줄뿐만 아니라 장성 발전된 당초급단체들은 자기의 국가적、사회적 사업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옳게 수행하고 있다는것을 실증하여 주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제五차회의는 당사업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우선 당 초급단체들을 조직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대책들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제기된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당사업의 모든 부면에 있어서 당초급단체의 역활을 높이며 그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곧 전당을 강화하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초급당부의 역활을 제고한다는것은 국가적 제과업들을 수행하며 인민들을 민주주의적 애국사상으로 교양하며 직접 대중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및 조직적 역활을 보다더 훌륭하게 실행하며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부단적으로 제고하는데 있다。 오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적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초급당단체들의 역할에 많이 의존되는것이 있으며 또한 당의 정책과 로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초급당기관들의 활동성 가능성 여하를 판단할수 있는것이다。

一

초급당단체들의 사업조직과 그 지도방법의 발전에 있어서 초급당단체들의 조직적 원칙은 상당한 직접적 관계를 가진다。 그것은 당조직이 생산조직에 병행하며 또 당조직의 원칙과 정당성 여하는 그 조직이 당사업 수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조직형태가 여하한 원칙에서 그 기능성을 보장하고 있는가를 문제되로 한다면 당은 당의 정책을 원만하게 집행하는때 지장을 가져올것이며 사업의 성과가 적을뿐만 아니라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엄연한 사업질서를 탈선할 우려성이 많은것이다。

또는 그와는 반대로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도 당조직형태가 그 정책을 광범한 근로대중속에서 실행할수 있도록 그 원칙성에 의거하여 지도기관의 사업기능을 발휘하여 운영하고 당사업을 집행한다면 비로소 그 조직체계의 우수성과 사업기능이 발현될것이다。

그러므로 초급당부의 역할은 초급당단체의 조직형태와 그 사업범위로부터 출발하여 고찰함이 극히 필요하며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당의 조직적 장성에 따라 발전된 형태로서 조직된 초급당부들은 큰 공장 기업소내의 많은 당원들을 한개의 세포에 망라시킨것이 사업을 추직시키는데 있어서 그 공장 자체의 생산조직의 복잡성과 당원분포의 산만성으로 인하여 원만한 사업으로 조직하기에는 곤난하게 되는데로부터 출발된것이다。

즉 당초급단체(세포)가 많은 당원수를 포유하게됨에따라 종래의 세포위원회 역할만으로서는 세포와 매개 당원들의 당생활을 높은 수준에로 지도하기에는 자체 력량상 원만치 못하게 되였다。

이와같이 당원수가 많은 큰 생산직장과 기업소들에는 생산행정의 부문별 혹은 교대별에 따라 여러개의 세포들로 세분하며 이렇게 조직된 세포들을 조직적으로 지도하며 그 사업을 생산과업과 군중과의 튼튼한 련계를 보장하기 위한 당지도기관이 요구되게되었다。 이러한 사업상 필요성에 의하여 초급당부를 구성하게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초급당부는 한개의 생산단위 즉 한공장 기업소내에 또는 부문별 및 과별에 따라 여러개로 세분된 세포들을 조직적으로 지도할 필요성밑에서 조직된것으로 한개의 큰 세포로 볼수 있다。 그러므로 초급당부의 조직원칙은 분세포들의 상급당부로 되는것이 아니라 당의 기본조직인 초급당 단체의 지도기관으로 된다。 우리당 조직체계는 한공장이나 한기업소내에 또는 큰 공장(흥남비료—화학)내에는 부문별로 한개의 당초급단체를 조직하는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초급당부 산하(세포)들을 가리켜 분세포라고 부르게된다。

초급당부는 자기지도기관인 당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초급당 대표회의(특이한 경우는 제외)에서 조직되는것이 아니라 초급당부 당원총회에서 선거되는것이 원칙으로 되며 초급당부의 최고지도기관은 초급당부 당원총회로 된다。

다음으로 당세포(분세포)들은 당기본 조직으로서 시(구역)군 당부에 직접 속한다。 오늘 북조선 로동당 조직체계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바와같이 당의 기본조직인 초급단체(세포)와 시(구역)군당부 사이에는 중간적으로 되는 당기관은 없는것이다。 물론 군당부와 당초급단체(세포)사이에 사업의 필요성에따라 면당부가 있으나 이는 역시 군당부와 당초급단체(세포)사이에 있는 중간적인 당기관으로서 되는것이 아니라 군당부의 사업과 당초급단체(세포)사업을 실천으로써 도와주는 방조적 당기관으로 되는것이 원칙인것이다。 이로 보아 당초급단체(세포)와 시(구역)군당부 사이에는 중간적으로 되는 당기관은 없는것이며 초급당 단체는 직접 시(구역)군당부에 속하는것이다。

그러나 초급당부에는 조직문제에 대한 결정적 권한은 가지지 못한다。 례를 들면 신입당원입당을 로의 결정함에 있어서 초급당위원회는 입당을 지원하는자를 직접 참석시키고 로의 결정할수는 있으나 그 결정은 자기의 의견을 상급당부에 제의하는데 그치게되며 분세포총회의 결정을 부결할수는 없는것이다。 때문에 초급당부는 조직문제에 대하여서 반드시 상급당부에 자기결정을 분세포의 결정에 첨부하여 제출하는데 그친다。

물론 이상에 제기한 몇가지 원칙으로 되는 조건으로서는 시(구역)군당부에서 당원등록을 직접 하는것과 기타 당사업상으로 되는 여러가지 조건 또 있는것이다。 이것이 당기본조직인 초급단체(세포)의 조직원칙에 립각하여 생산직장과 기업소들의 설정에 비추어 발전된 형태로서 조직된 초급당부의 조직적 기본으로 되는것이다。 이와같은 초급

당부의 조직적 원칙은 또한 리당부가 구성된 리(농촌) 초급단체 혹은 사무기관에 초급당부가 구성되어있는 사무기관 초급단체들의 조직적 기본원칙으로도 될수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초급당부는 조직상 형태로 보아 그 처하여있는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따라 그 구성요소들과 사업상 관계에 있어서 적지않은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 기업, 운수, 직장내에 초급당부가 조직되어있으며 농촌에는 리당부가 있는것이다. 이외에도 세포가 처하여있는 생산적 사회적 환경은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것이다. 또한 개별적 초급당단체들을 분매에 당원들의 사회성분, 지식정도, 사상—정치적 의식정도, 경제적 조건, 년령관계 또는 열성자, 그렇지 못한 당원등 여러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와같이 개별적 당초급단체들의 여러가지 복잡성은 매개 초급당부마다 동일하여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건밑에서 초급당 단체들의 사업을 자체 조직형태와 그 기능성에 알맞게 창의적으로 조직집행하며 그 지도적 역활을 높이는 문제는 자못 중대한 것으로 된다. 초급당부의 역활을 높이며 그 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초급단체 사업을 강화하는데 중요 사업으로 된다. 이제 초급당부들의 그 역활과 사업조직 경험을 본다면 초급당부들은 기본상 조직적 정치적으로 장성 발전되였을뿐만 아니라 각 생산 직장과 농촌에서 조국건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전투적 핵심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초급당부들이 자기사업을 조직하여 그 역활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엄중한 문제는 자기 사업을 원만히 조직할줄 모르는 문제이며 초급당부들이 자기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업방법이 고상한 정치 조직적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는 그것이다.

× × ×

이제 초급당부의 사업방법과 그 역활에 대한 몇가지 기본방향을 말하여 본다면 우선 초급당부는 그 조직적 기본원칙으로 보아 분세포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실제 분세포 사업조직과 집행방법을 실천으로써 지도하며 도와주어야 한다. 즉 초급당부사업이 사무화되는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분세포에 내려보내는 사무적 지시문을 철폐하는것이다. 그것은 분세포에 초급당부가 결정서, 지시서를 내려 보내는데서 당의 모든 결정서와 지시서가 분세포에 적치되며 분세포 일꾼들은 서류에 파묻혀 아무 실질적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초급당부 일꾼들은 보고서 결정서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자기에게 허여된 시간을 거의

소비하고 실천으로써 분세포사업을 지도방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초급당부 일꾼들은 직접 분세포에서 분세포회의 조직으로부터 분세포 사업조직 집행과 그 사업결속에 이르기까지 실천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즉 분세포와 매개 당원들이 당적 립장에서 당전설사업과 국가건설사업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을 옳게 조직하며 실천하는가 또는 당적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며 사업을 꾸준히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가 등의 정형을 옳게 파악 분석하며 당단체와 당원들의 사업을 높은 질적 수준으로 보장함에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초급당부 일꾼들은 분세포위원회에 직접 참가하여 지도함으로써 분세포위원회가 지도기관의 역활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것이며 또한 세포회의는 당원들의 당사업에 대한 교양과 훈련을 줄수있겠금 그 내용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실질적 지도를 하여야 할것이다. 더우기 매개당원들이 당사업에서 분공받은 과업들을 철저히 실천하는 책임감과 열성을 높이 발휘시키는 온갖 사업들을 직접으로 지도 보장할것이다.

초급당부는 자기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작성에 세심한 관심을 돌려야하며 그 계획은 또한 사업실천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하며 사무를 조직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당상급기관이 제기하는 문제들과 당앞에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업과 실천방도를 같이 결부시킨 적절하고 명확한 계획으로 보장되어야 할것이다.

또한 초급당부 통계원은 세포에서 통계보고를 받이가지고 그것을 총화 정리할것이 아니라 매개 분세포에 직접 가서 통계를 작성하여 가지고 총화정리하는것을 기준으로 할것이며 때로는 세포위원장들로 하여금 구두로 보고케 할것이다. 그럼으로써 분세포위원장이 초급당부에서 요구하는 통계와 보고에 분망을 괴할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초급당부위원회가 지도기관이라는데서 분세포 사업정형을 청취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여 각 분세포에 내려보내는 사업방법은 초급당부 사업방법의 근본 원칙이라고 볼수 없다.

즉 초급당부가 도당부나 시(구역) 군당부에서 초급당단체 사업정형 보고를 청취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여 하급에 내려보내는 사업방법을 취하는 그 본을 받아 산하 분세포 사업지도에서 마치 분세포들의 상급당부인것처럼 그 사업을 조직하여서는 안되는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초급당부의 조직원칙을 불때에 그 분세포들의 상급당부로 되지못하

기 때문이다。만일 그렇게 된다면 초급당부들에서는 회의록 실정서 보고서등을 한량없이 쓰게 될것이며 초급당부는 분세포 사업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서만 분세포사업을 검열한다면 자연 형식적 관료주의적 지도로 흐르게 되는것이다。더우기 엄중한 결과는 세포위원장은·초급당부일군들의 사업검열을 받기에 바쁘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것으로써 자기의 당단체 활동에 대한 지도와 생산적 과업을 달성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게 되는것이다。이렇게 되면 분세포사업이 잘 진행될리는 없으며 초급당부 일꾼들이 분세포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게 될것이다。또한 초급당부위원회가 분세포 사업보고를 청취하지 않고서는 그 분세포 사업정형을 알지못한다면 초급당부는 자기 조직적 기본원칙을 떠나 사업한것이라고 볼수있기 때문이며 분세포사업을 검열하여야만 그 분세포 사업정형을 알수 있다는것도 따라서 초급당부사업이 옳게 추직된다고 볼수 없을것이다。한 생산직장과 사무기관、리(농촌)의 극히 단거리 지역내에서 분세포사업을 검열하지 않아도 초급당부는 분세포 사업정형을 잘알고 있어야 할것이다。여기에 있어서 시(구역)군당부 지도원들의 검열사업도 고려된다。

일부 지도원들은 초급당부 사업을 검열하기 시작하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당회의록과 사무조직관계를 보며 분세포에 어떠한 지도를 한데 대한 추궁과 또는 이런 혹은 저런 문제들을 연구하였는가? 등을 추궁하며 조사한다。때문에 초급당부 일꾼들은 각종 형식으로 결정서와 지시문을 준비하며 사무조직에 노력하게된다。이와같이 사업조직이 관료주의적이며 사무주의적으로 악화된 현상은 그리 적지않다。

지난 때에 흥남비료공장내에 있는 세포들에서 세포위원장들이 생산과 리탈되어 세포 사무조직만 하였던 사실은 이것이 우연한 사실이 아니었다。흥남비료공장내에 초급당부가 사무조직을 얼마나 번다하게 하였으며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이 그 초급당단체사업을 휩쓸고 있었다는것을 능히 알수있다。또한 어떤 초급당부 일꾼이 흔히 말하는바 실제적 사실을 들어보면 그는「실제에 우리는 어느때 회의에서 어떤 문제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나 실제사업은 잘되지못하여 결점과 오유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또는「상급당부에서 내려온 결정서를 우리초급당부에서는 제때에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던것이다。그러나 아직 당부산하 분세포들에서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

당사업에서 공담꾼들이 하는 작풍은 언제나 그렇다。문제를 토의하였으나 사업이 잘되지 못할것 같으면 결국 사업은 하지않고서 사업을 하였다고 하는 공담에서 지나지 못할것이다。이렇게 하면서도 공장당부위원은 당사업에 경험이 어리고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라하여 그들을 공장당부사업에 적극 참가시키지 않고 있었다。정말 누가 사업을 잘 모르는지 능력이 없는지 분간하기 어렵다。결국은 공장당위원들이 공담을 할줄 모르니 그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없다고 볼것은 사실이다。이와같은 사업작풍은 초급당부사업에 큰 해독을 주는 것이다。

二

초급당부 사업과 지도방법은 이상에서 제기한 몇가지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당조직상 원칙으로 보아 군당부의 결정지시를 실천으로써 집행하는 자주성을 가지게 되며 분세포지도사업을 다수 경우에 군당부 사업방향에 의하여 분세포들에 산지도를 주게 된다。이러한 원칙에서 자체사업의 기준을 적당히 타산함이 없이 분에 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서는 많은 경우에 관료주의적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그러므로 초급당부들의 사업을 조직함에 있어서 군당부의 개별결정과 사업방침에 의존하여 자체직장(생산) 및 농촌등의 모든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자체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분세포들의 사업을 생산별로 옳게 인식하고 분세포사업에 직접 참가하여 내용이 풍부하게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초급당부 사업방향은 결과적으로 보아「어떻게 함으로써 분세포 지도수준을 제고할까」에 그 중심이 있어야 할것이다。또한 번잡한 회의들을 그 내용과 시간적으로 조절하며 초급당부위원회의 중요간부들이 직접 분세포사업에 참가할수있는 가능성과 조건들을 지어주도록 하여야한다。

그러기위하여서는 초급당부에서는 사업의 정도와 범위에 넘는 번잡한 계획서와 결정서를 번잡하게 작성하는것은 삼가야하며 다만 시(구역)군당부의 결정과 지시에 의하여 분세포들을 지도할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울것이다。그렇다고 초급당부가 직장(생산)농촌내 실정에서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집행하여야할 사업을 망각하고 독자적 계획과 대책이 없이 다만 형식적인 기계적 사업으로 진행함은 또한 초급당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데로

고 그들의 주의를 모든 결정적 사업에 집중할줄 알며 분석적 원조를 하는데서 전체 당사업의 수준은 보다더 향상되는것이다。

당사업의 방법과 현상을 특징짓는 모든 사업경험의 총화를 당적 수준에서 진행하며 그 가진바 조직성과 정치성을 원칙적으로 분석종합하는 사업과정은 사업의 전망을 제시할뿐만 아니라 초급당부의 역할을 제고할수 있는 원동력으로 되며 당간부들의 조직지도자적 정치수준을 제고하는 좋은 사업으로도 된다。 그러므로 차요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총화사업 방식을 개선하여 그 조직적 교양적 의의와 높은 사상-정치적 수준에로 향상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야 된다。

다음으로 초급당부의 역할을 높이는데 있어서 산하 분세포사업을 지도하는데 매개 분세포에 개별적인 지도를 주어야 할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제시한 바와같이 당세포는 그것이 조직적으로는 동일한 세포라 할찌라도 그는 내부적 외부적 제조건들로 보아 단순하지 않으며 동일하지 않기때문에 역시 초급당부에서 분세포사업을 직접 지도하는데 있어서도 그 분세포들의 개별적 실정에 비추어 지도하여야만 사업성과를 거둘것이다。

초급당부는 그것이 조직적 기본원칙으로 보아서 응당 매개 분세포의 개별적 조건과 특성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분세포사업지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분석적 지도를 줄수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초급당부들이 분세포를 개별적으로 옳게 지도하기 위하여서는 분세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이 필요하다。 직접 분세포에서 모든 사업을 지도협조하여주는 과정에서 매개 분세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것이며 매개 분세포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분세포사업을 그 분세포의 실정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되는 구체적인 조직 지도사업을 철저히 보장할것이다。

당단체의 구체적 실정에 의한 지도는 당조직활동을 제고하며 당원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높이 보장할수 있는 실제적 산 련락을 지으며 당단체와 당원들의 기능과 력량을 옳게 파악하고 제기된 과업들의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성과를 보장한다。

그러하여 초급당부 자체가 그 조직적 기본에서 분세포들의 실정을 깊이 장악하고 자기사업을 조직

이르게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초급당부 사업은 자체의 실정과 구체적 조건위에서 당상급기관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옳게 련결 통합하여 당단체앞에 제기할 근본과업 해결에로 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집행하는것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당결정의 집행을 분세포들에서 옳게 조직하며 당원들과 인민대중을 당과 국가가 제시하는 과업들의 해결에로 조직동원하며 철저한 실행을 보장하는 적극성과 열성과 창의성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초급당부의 사업방향과 방침에 의하여 집행되는 그 지도사업의 수준을 제고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초급당부 간부들을 사업상 능수로 만드는 문제가 가장 요긴한 사업으로 된다。 간부들이 자기사업의 내용과 한계를 알며 집행방법을 리해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줄 알뿐만 아니라 사업상 독특한 창의를 발휘할줄 아는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은 분세포사업에 참가하여 산지도를 줄수있는 방향에서 항상 지도 보장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부분적 일꾼들의 큰 결함은 종종 분세포를 지도함에 있어서 표면에서 겉열만하며 나타난 부족점을 지적만 하면서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있다는 그것이다。

이런 까닭에 초급당부는 결정실행에 대한 지도기관으로서의 자체의 활동적 역할을 미약하게 하며 결과는 일이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대단히 늦게 진척되는것이다。

초급당부는 그 초급당단체의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실천적 사업성과들을 비판적 정신위에서 구체적으로 총화하고 간부들의 사업정형을 부단히 검열하여 주어야 한다。 초급당부 일꾼들이 사업의 실지활동에서 경험을 충분히 연구하며 문제를 다각도로 충분히 분석하며 총결하며 당단체의 생활에서 긍정적 경험을 옳게 살리어 당 조직지도방법을 향상시킴이 중요하다。

부분적 현상과 사실에서 중요한 당 전체적 원칙성을 고찰하며 계획을 세울줄 아는것은 당지도일꾼들이 직접 대중의 경험으로 자기를 풍부히 하고 대중과의 련락을 고정적으로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된다。

즉 초급당부 일꾼들이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였

집행 할때에 당초급단체들의 사업은 강화될것이며 당사업에서 기계주의와 관료주의 사업작풍이 숙청될것이며 군중과의 튼튼한 련결은 더욱 강화될것이다● 또한 초급당부의 역할을 높이는 요긴한 사업의 또 하나는 초급당부의 전력량을 옳게 집결하는데 있으며 더우기 초급당부의 열성당원들을 초급당부사업에 광범히 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며 그들을 일상적으로 교양훈련하는 사업이다。

초급당부는 전체 자체의 력량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사업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위한 분공사업을 철저히 조직할것이다。

당원들에 대한 사업분공조직은 책임있는 과업으로 능동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정도에 따라 엄밀히 조직하며 철저한 실천보장을 위한 직접적인 실지 검열독촉을 옳게 집행하며 당원들의 사업기능과 활동성을 잘 파악하며 지도하는데서 당사업추진과 당원들의 당사업에 대한 열성적 참가를 옳게 보장하는것이다。

또한 분세포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당세포핵심 ―열성당원들을 옳게 준비시키며 그들의 사업수준을 제고하며 광범하게 당사업에 참가시킴으로써 당단체들의 사업실천에 있어서 강한 조직력과 실천의 골간을 높이 보장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초급당위원회들이 많은 일군들과 더우기 당세포핵심 당원들에게 필요한 경험과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못하고있다。 이런 조건하에서 그들에대한 일상적인 원조와 훈련을 줌으로써 그 역할을 제고 보장하는것은 당지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당기관의 정확한 결정이 그 집행을 위한 옳은 조직과 그의 집행자들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소요의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초급당위원회는 어떠한 과업들의 수행을 위한 지도를 책임맡은 일군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파악시키며 그들에게 이 과업들로부터 파생되는 제문제들을 해설해 주며 그 사업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책임성을 높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하는것이 중요하나 그보다도 어떻게 하여야 한다는것과 제기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조직방법을 보장함이 필요하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줌이 중요하다。즉 모든 분세포들에서 동일한 과업의 해결을 동일한 방법으로서 취할수는 없으며 조건이 다르면 그를 취급하는 방법도 반드시 달라야 할것이다。 옳은 사업방법을 당

일군들에게 제시해주면서 당위원회는 당일군들로하여금 자기자신의 창의와 창발력을 발휘케하며 그가 위임받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세심한 연구를 하겠금 하는데 또한 훈련의 큰 부문이 있다。

동시에 초급당부 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하며 그는 반드시 상급당부의 결정지시를 깊이 연구하고 옳게 인식시키며 당적 강한 책임감 위에서 집행하도록 개별적 지도와 실제적 제조건과 가능성을 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국가 및 경제건설사업에 있어서 그 과업실행을 위하여 당의 력량을 옳게 배치하며 당조직사업을 세밀하고 주밀한 계획위에서 진행하며 광범한 인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내용과 의의를 옳게 해석 인식시킴으로써 근로인민들을 자각적으로 광범하게 과업실행에 동원토록 보장하여야한다。

상술한 제문제들에 대한 지도사업의 책임은 초급당위원회만의 사업으로 되는데 그치지않고 도 시 (구역) 군당위원회기관들이 옳게 지도보장하여야한다。 그것은 초급당단체는 시 (구역) 군당부에 직접 속하는데서 당위원회기관들은 간부들을 파견하여 초급당단체사업을 방조하며 모든 지도의 질(質)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요구되는 문제들을 초급당단체에 제때에 보장하여야한다。

× × ×

이상 당조직지도사업에 있어서 초급당부의 역할에 대한 몇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초급당부는 산하 전체 분세포를 리해하고 장악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옳게 해결해주며 산하 전체 당원대중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강화하며 일체의 형식적 기계적 사업작풍을 일소하고 분세포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산지도를 더욱 가강히 보장하여 초급당단체의 지도성과 당원들의 역할을 제고할것이며 생산과 사회적 국가적 제과업들의 선봉적 실천성과를 높이 보장할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과 파멸하여가는 리승만매국「정권」

오 직

남조선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이미 무장적 투쟁에 들어섰으며 이 무장투쟁은 날이 갈쑤록 치렬화하여지고있다。

조국을 분활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어깨위에 새로운 식민지적 노예의 멍에를 내려씌우려는 미제국주의의 간악한 침략정책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들의 흉악한 매국행위는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뼈에 사모치는 분노와 증오를 참을수 없게하였다。 반세기에 가까운 장구한 기간 불구대천의 원쑤—일본강도배로부터 온갖 착취와 학대를 받아온 망국노예의 수치스럽고 쓰라린 기억을 우리인민들이 그 누가 한사람인들 잊어버렸으랴

위대한 쏘련군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되였을때 우리인민들은 남북을 물론하고 부강한 민주조국 창전에 대한 광명한 강래를 예견하였었다。 三천리 방방곡곡을 통하여 一개월도 못되는 시일내에 진정한 인민의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창설한 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는 조국을 자랑하는 숭고한 정신이 끓어넘쳤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갈망하는 조선인민들의 애국정신은 모쓰크바 三상결정을 일치하게 지지하고 이 결정의 정확한 실천을 목적하고 개최되었던 쏘미공동위원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진출한데서 더욱 명백히 증명되었다。

분활식민지화의 야욕을 실천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폭로 분쇄하면서 위대한 쏘베트동맹은 량군이 즉시 동시 철퇴함으로써 통일 국가건설을 조선인민자체로서 해결할것을 제의하였다。 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민족적 리익에 절실하게 부합되는 쏘베트동맹의 이 제의의 실현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궐기하였다。 조선인민들의 애국적 열성은 이 제의의 실현을 위한 꾸준하고도 견지한 거족적

투쟁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과 리승만매국도당들은 우리조국이 통일적 독립국가로 발전할수 있는 모든 협약과 제의들을 파괴 유린하면서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는 남반부에서 온갖 반동적 침략정책을 파렴치하게 실시하였다。 인민위원회를 자기들의 정권기관으로 지지 수호하며 모쓰크바三상결정을 지지하고 량군철퇴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는 그림자조차 없이 박탈되었다。 모든 민주주의정당—사회단체들은 탄압되어 지하로 구축되었고 경찰과 테로단의 련합으로된 야수들은 장구한 반일투쟁의 투사들을 포함한 애국자들을 검거、고문、투옥、학살하였다。

남조선에서 민족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심적 역활을 노는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정당들은 벌써 一九四六년五월 제一차 쏘미공위 파탄당시부터 가혹한 탄압을 받게되었으며 많은 애국적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갖은 비인간적 고문에 시달리었다。 뿐만아니라 해방일보를 비롯하여 조선인민보、중앙신문、현대일보등 민주주의적 출판물들이 그 시기에 련달아 폐쇄되었다。 남조선의 수다한 감옥은 수만의 애국자들로 충만되었으며 정찰과 테로단은 남조선 전지역에 걸쳐 살륙 과괴를 자행하였다。 인민들의 생명은 법률적 보호밖에 쫓겨나갔으며 인민들의 재산은 테로단과 경찰들의 박탈 파괴의 대상으로 되었다。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 민주개혁들은 한가지도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산업은 파멸의 일로를 급속도로 내닫고 농촌에 있어서의 봉건적 착취제도는 강고하게 보호되었다。 인민의 원쑤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옹호되고 테로단들은 무제한의 『자유』로서 무소불위 하였다。 강제공출、물가폭등、대량실업 등등 인민생활은 비참한 기아와 혹독한 도탄속에 빠졌다。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식민지화정책은 일본강도놈들의 야만적 통치정책을 릉가하였다。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은 그 대소 강약을 물론하고 모조리 류혈적 탄압으로써 대답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의 두 어깨에 내려씌우는 새로운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력력하게 보게되었다。 이로운 노예의 멍에를 그대로 앉아서 다시 받을것이냐? 그렇지 아니하면 용감하게 싸워 이 노예의 멍에를 분쇄할것이냐? 민족의 중대한 사활문제는 이 두가지 길위에 어느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첨예하게 남조선인민들앞에 제기되었다。

그러면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 앞에 가로놓인 이

두 길중 어느 길을 선택하였는가? 인민들은 아무러한 주저도 동요도 없이 후자의 길을 취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바로 자기들의 눈으로 위대한 쏘련의 성심성의의 원조와 우리민족의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의 령도하에 북반부 인민들이 승리적으로 달성한 위대한 민주개혁들과 이 개혁의 성과로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가 북반부인민들의 손에 의하여 장엄하게 건설되는것을 똑똑히 보았다. 보장된 자유와 행복속에서 자기들의 모든 애국적 정신과 창조적 로력을 조국창건을 위하여 남김없이 바치고있는 북반부인민들의 생활은 남반부인민들을 한없이 고무하고 격려하였다.

북반부인민들의 장엄한 조국창건활동에 고무된 남반부인민들이 자기들을 새로운 식민지노예의 생활속에 몰아넣고 조국의 절반땅을 미제국주의자의 절제야래에 맡기는것을 어떻게 용허할것이냐? 해방후 四년동안 남반부인민들은 자기들과 조국의 리익을 절실하게 옹호하는 남조선로동당의 지도밑에서 미제국주의자의 침략정책과 그 주구 리승만도당의 매국음모를 분쇄하며 통일독립과 민주주의적 발전을 쟁취하는 치렬한 구국투쟁에 궐기하였다.

이 투쟁은 리승만매국도당들을 당황과 절망속에 몰아붙으면서 더욱 광범하고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인민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개되고있다.

× × ×

주지하는바와같이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쟁취함에 그 목표가 있다. 인민들은 자기 투쟁에 있어 항상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노력하였다. 원쑤들은 남반부에서 자기들의 분할 식민지화정책을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애국진영에 대하여 첫날부터 반동적이요, 야만적인 파시스트적 테로학살정책을 써 왔었다. 인민대중은 어느때나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와 그 주구 리승만도배는 어느때든지 학살 테로로써 이 평화적 애국적 군중을 탄압하였다.

해방후 남반부에서 인민들에 처음으로 대중적 항쟁을 전개한것은 一九四六년 十월 인민항쟁이다. 당시의 인민들의 투쟁은 로동자들의 평화적 총파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평화적 파업이 인민들의 피의 항쟁으로 진전한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남조선민주진영에 대하여 야만적 탄압을 내리었고 평화적 파업로동자들과 평화적 시위인민들에 대한 학살(반동경찰이 서울철도국의 평화적 파업로동자에 대해서 수백명 살상자를 내고 一천七백여명을 검거한것과 대구에서 쌀을 배급하라는 인민행렬을 대량학살한것등)을 감행한데서 기인된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이다. 정당한 요구와 당연한 의사가 류혈적 폭압으로 대답될때 인민들이 어떻게 평화적 투쟁으로써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있겠는가? 불의의 테로에는 정의의 테로로써 대항하여야 한다는 진리는 이 十월항쟁의 경험을 통하여 깊이 인식되었다.

통일 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나서는 인민을 불의의 테로로써 학살 폭압하는데 아무러한 반항도 하지않고 다만 평화적 방법만을 고수한다면 조국의 절반땅을 미제국주의 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그대로 내맡기는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일제의 장구한 야만적 통치밑에서 끊임없는 애국투쟁을 계속하여왔고 해방후 인민들의 선두에서서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근로인민의 영용한 전위당이 튼튼하게있는 이상 남반부인민들의 정당한 애국항쟁이 일어난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일어난 그후 수많은 투쟁들은 실제에 있어 원쑤들의 파시스트적 테로를 정의의 테로로써 대항하는 용감한 투쟁이 아닌것이 없다.

一九四七년 三·二二총파업은 다 아는바와같이 一九四七년초춘이후 만성적으로 강화되는 테로 학살과 및 동년 三·一운동기념식에서 남반부전역을 통하여 일제히 감행된 대중학살을 반항하여 일어난것이다.

그러면 一九四八년 二·七구국투쟁은 왜 무장적 반항으로 발전하게되었던가? 두말할것없이 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비법적으로 상정하여 자기들의 앞잡이로 소위「유·엔조선위원단」을 조직과견함으로써 우리조국을 분활식민지화하려고 미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주구들의 방조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운동을 가혹한 총검으로써 란포무쌍하게 탄압한 까닭이다.

원쑤들은 벌써 一九四七년八월에 부당하게 八·一五폭동이라는 허위구실을 날조하여 남조선로동당의 지도자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내지 지하에 구축하였다.

더욱 급속도로 강화되는 테로 학살은 남반부전역에서 무수한 인민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 략탈하였다.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원쑤들에게는 총검에 의한 테로 학살 이외에는 다른 여하한 방법도 없었다.

자기들의 애국적 요구와 정당한 의사를 평화적

투쟁방법에 의하여 성취하려는 인민들의 온갖 로력과 모든 활동은 실제에 있어 원쑤들에게 유린되고 말았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인민들이 무장적 반항으로 발전하는 이외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는가?

남반부인민들의 무장유격투쟁의 새단계를 지은 영용한 제주도 인민들의 四·三봉기도 조국의 분렬과 남조선 식민지화를 반대하는 제주도인민들에 대한 원쑤들의 대량학살에서 폭발되었다. 원쑤들은 五·十망국단선을 강행하기 위하여 二·七구국투쟁 이후 더욱 악랄한 류혈적 테로를 감행한바 제주도에서 一九四八년三월까지 一만여명의 인민을 검거투옥하였고 수백명의 애국자를 고문으로써 도살 혹은 불구자로 만들었다. 여기에서 제주도 인민들은 손에 무기를 잡고 일어섰다. 제주도의 四·三투쟁은 무권리와 대량적 학살의 남반부의 조건하에서는 무장적 항쟁이 필요하다는것을 깊이 인식케하였다. 물론 이 투쟁 이후에 있어서도 인민들은 평화적 방법으로써 자기들의 요구와 의사를 표시하는 총파업, 시위등 형태를 주로한데는 변화가 없었다. 「五·十」망국단선 파탄 투쟁도, 八·二五총선거투쟁도, 쓰딸린대원수에게 드리는 감사문 서명 투쟁도, 작년十一월三十일 미군철퇴를 요구하는 총파업투쟁도 평화적 방법으로써 진행되었다.

그러나 매국노 리승만 괴뢰 「정권」의 인민학살정책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가혹하여졌다. 리승만은 매일같이 수십수백의 인민들을 살륙하고 인민의 피위에서 저의 생명을 유지하려 하고있다. 삐라한장을 산포하여도 그 즉석에서 사살하고 좌익대중단체의 맹원이라는것만 드러나도 재판도 아무것도 없이 총살하는것이 보통일로 되었다. 남반부인민들은 실로 무법천지의 암흑속에 신음하고있으며 피의 강물속에 잠기게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인민들로하여금 이 야만적 테로는 정의의 테로로써 분쇄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결심을 더욱 견고하게하였다. 그리하여 四·三투쟁이후로는 제주도를 위시하여 남반부 각처에서 무장유격부대가 계속적으로 자기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새로운 부대가 방방곡곡에 계속 출현하고있다. 리승만 매국도당들은 더욱 악랄한 학살과 범죄적 초토전술로써 이 항쟁부대를 「토벌」하려고 광분하고 있으나 남반부인민들의 유격투쟁은 「진압」되지 아니할뿐아니라 더욱 새로운 전과를 거두면서 더욱 큰 무장세력으로 장성되고있다.

一九四八년 八월二十五일 선거의 결과로써 수립된 공화국정부와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령도는 투쟁하는 남반부인민들의 애국심을 더욱 제고시키고 용감성을 더욱 고무하였다. 공화국의 헌법과 강령

은 원쑤를 분쇄하는 투쟁에 있어 남반부인민들의 위대한 지침으로 되어있고 정확한 진로로 되어있다.

조선인민들의 일치한 의사를 존중하고 대소인민들의 자주권과 자결권을 옹호하는 위대한 쏘베트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쏘베트군대가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철퇴한것은 미제국주의 군대를 철퇴시키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남반부인민들의 투쟁을 일층 고무하였다.

남반부 인민들의 진정한 아들딸들로 구성된 무장부대는 남반부의 중요한 산악지대와 광범한 평야지역에서 영용한 구국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매국도당들이 전력을 기울이는 소위 토벌전으로 그 「진압」을 선전하던 지리산 유격부대는 남으로 백운산, 북으로 덕유산을 련결하여 전남, 경남, 전북의 광대한 산악지대에서 자기의 활동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성, 화순, 라주, 고흥, 장흥, 해남, 령암등지의 유격부대도 활발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남반부 유격전의 새로운 중심지구 북으로 태백산을 근거로하여 남으로 봉화, 영양, 안동, 영덕, 영일, 경주, 울산등 동해안을 련결한 지구와 북으로 오대산을 중심으로 울진, 심척, 강릉, 평창, 정선, 홍천, 린제, 원주, 횡성을 포함한 지구이다. 그리고 태백산과 지리산을 련결한 지대 곧 소백산, 속리산을 중심하여 보은, 영주, 영동, 청주등지에도 새로운 부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평야지대인 옹진, 연백등지에서도 유력한 부대들이 장성하고 있다.

우리에게 입수된 자료에 의하여 四월 五월 량개월간 몇개의 유격전구서에 유격부대들과 반동경찰이 전투한 회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四월에 있어서는 산악지대에서 一백十三회, 부락에서 一백二十八회, 계 二백四十一회 五월에 들어서서는 산악지대에서 二백二十三회, 부락에서 二백七十九회, 계 五백二회의 대소 전투가 있었다. 곧 一개월사이에 거의 二배이상의 전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전투들은 다만 회수로만 증가한것이 아니라 전투의 규모가 더욱 커지며 그 전과에 있어 더욱 찬란한것을 볼수있다. 이제 극히 단편적인 소식에 의하여 七월十五일 이후에 거둔 몇개의 전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七월十五일 전남 장흥군 금정면 연소리에서 유격대는 우세한 경찰을 기습하여 지서주임 이하 八명의 경찰과 三명의 민보단원과 동면 국민회장 급 면장을 숙청하고 경찰 四명에게 치명적 중상을 주었다. 동전투에서 유격대는 다수의 카-빙 및 九九식장총과 다량의 탄환을 로획하였다. 동일 화순

군 고천지서를 습격한 유격대는 경찰三명과 다수의 악질분자를 숙청하고 지서 경찰숙사등을 전소하고 九九식장총 七정, 카－빙총 四정 및 五백여발의 탄환을 로획하였다。 七월十六일 경남 창영군 성산면 월곡리에서 유격부대와 경찰대와의 조우전에서 경찰 五명이 숙청되고 유격대는 다수의 카－빙총 및 九九식장총과 다량의 탄환을 로획하였다。 七월二十四일 광양군 진상면 진광부락(백운산지구)에 국군 제十五련대 제四중대를 유격대 三백여명이 기습하여 장교一명을 포함한 十二명을 숙청하고 八명을 포로하고 十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중기관총, 경기관총, 박격포 각一정 엠원(M1)소총三十정과 다수의 탄환을 로획하고 기타 중기, 경기, 박격포에 사용불능토록 타격을 주었다。 이상과같은 전과는 매일 각전구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그러면 미제국주의자가 공급하는『우수』한 무기와 장비로서 무장하고 그 수에 있어 그 훈련에 있어 우세한 적을 향하여 무엇이 유격대들로 하여금 이와같은 빛나는 전과를 거두며 날로 강화의 일로를 밟게하는가? 이것은 다름아니라 남반부 유격대는 남반부인민들의 조국통일과 민주독립을 쟁취하려는 애국주의적 정신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었으며 또한 인민들의 리익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인민들의 속에서 장성하며 인민들의 열화같은 지지를 받고있기 때문이다。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투쟁에서 다시한번 빛났으며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선언에서 제의한 평화적 통일방책 지지투쟁에서 더욱더 발전되고있다。

리승만 매국도당은 미군철퇴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국의 애국적 력량이 총집결하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을 죽을 힘을 다하여 방해하였다。 그러나 원쑤의 방해가 아무리 악랄하여도 남반부인민들은 남조선로동당을 위시한 모든 애국적 정당들의 지도하에서 전민족적 애국력량을 집결하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인민들은 거족적으로 전선결성을 위한 투쟁에 궐기하였다。 서울에서만 五월二十二일부터 五월三十일까지 이 결성을 위하여 四백七十만매의 삐라가 산포되고 四천백여개소의 벽서와 벽보가 나타났으며 四十七만여인이 조국전선결성에 대한 해설장소에 참가하였다。

이 투쟁의 몇가지 실례를 들면 五월十七일에는 화신앞, 동대문, 황금정六정목, 황금정입구, 광화문앞, 조선은행앞, 서울역전, 남대문, 안국동, 서대문등 十개소에서 결성지지삐라가 홍수처럼 산포되었으며 六월十六일에는 화신앞에서 수백명의 학생이 결사적으로 삐라를 뿌리면서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는 매국노들의 내란 도발행위로 인한 三八선의 험난한 지구를 돌파하고 남반부로부터 十六개의 새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작년四월 남북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때보다 더많이 참가하였으며 남북의 七十一개의 정당 사회단체의 대표 七백四명의 참가하에 우리인민의 위대한 민족적 단결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완전하게 결성되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는 전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갈망인 조국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책을 전조선 민주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것은 곧 우리민족의 민족적 리익에 절실하게 부합되는 평화적 통일방책이다。 이 방책이 한번 제시되자 전체 조선인민들은 거족적으로 이것을 열렬하게 지지환영하였다。 수백만의 군중을 포함한 환영대회들이 북조선 도시들에서 빠짐없이 개최되고 각공장 기업소 농촌등에서 인민들은 집회와 결의로서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북반부인민들은 애국적 증산경쟁으로 이 방책실현에 대한 강고한 결의를 일층 명확하게 표시하였다。

평화적 통일방책에 대하여 인민들과는 정반대로 당황망조한 자들은 리승만매국도당들이다。 이 평화적 통일방책에 대한 리승만도당들의 극도의 당황은 이 방책에 대하여 백방의 음모와 탄압으로써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데서 명백하다。 리승만도당은 먼저 이것을 인민들앞에 은폐하고 내놓지않았다。 왜 실제에 있어 리승만도당은 이것을 내놓을수없다。 그러냐하면 평화적 통일방책은 저들파 저들의 상전의 분활식민지화정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까닭이며 또한 미제국주의자의 총검의 비호로만 저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인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있는 원쑤들로서는 이 평화적 통일방책의 구체적 내용인 자주적 총선거안을 인민들앞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때문이다。

리승만도당은 남반부에 송부된 선언서의 내용에 대한 기자단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러한 정확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얼토당토아니한 허위적 중상으로서 어물어물하였다。 이것은 리승만도당이 어데까지나 평화적 통일방책을 인민들앞에 은폐하려는 흉악한 음모에서 나온것이다。 그러나 민족적 리익에 절실하게 부합되는 이 방책이 리승만의 모략과 탄압으로 인하여 장구하게 인민들앞에서 은폐될수는없다。

리승만도당은 이와같은 모략과 탄압과 아울러 인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평화적 통일방책으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백방으로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곧 자기상전으로부터의 一억五천만의 딸라와 무기공급을 굉장하게 떠들어대고 소위『태평양조약』의 체결을 과대하게 선전하며 소위『병역

법」의 통과이니 三八선 二十키로지역내의 통행제한이니 무치오·로버스(군사고문단장)등과 더부러 신성모등의 三八선 시찰이니 四十만의 군대준비니 등등으로서 내란과 동족상쟁을 도발하는 범죄적 행위와 깊이 관련되어있다。

리승만도당이 이러한 평화적 통일방책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미제국주의자의 리익을 위하여 내란과 동족상쟁을 음모하는것은 인민들의 분노와 증오를 일층 강화하며 격화하지 않을수없다。

우리민족의 리익에 부합되고 인민들의 갈망을 완전히 대표하는 평화적 통일방책을 지지하는 남반부인민들의 애국투쟁은, 로동자들의 총파업을 선두로하여 일어났다。

지난 七월二十일을 기하여 남반부 로동자들은 중요도시에서 평화적 통일방책 지지 一시간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서울, 대구, 인천, 부산등지에서 철도, 전기, 운수, 광산, 방직등등의 각종산업부문을 포함하여 리승만 도당의 악독한 학살, 테로, 사찰 추종의 환경하에서 일어난것이다。 로동자들의 이 총파업은 그들이 고도의 단결과 용감성으로 관통되어 있는것을 여실히 증명한것이다。 로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하여 서울시 「경찰국장」 김태선은 七월二十一일 자기의 방송에서 「어제 二十일 서울시 중요기관들에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고 고백치 아니할수 없었다。 달성군 증석광산로동자들은 일제히 총파업에 궐기하였다고 단편적인 통신은 보도하고있다。 통신과 보도금지에 의하여 아직까지 총파업의 전모는 완전히 알수없으나 이 총파업은 전인민적 투쟁으로 발전될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남반부인민들의 이번 투쟁은 실로 그 의의가 중대하다。 이 투쟁은 리승만도배가 인민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된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동시에 이 투쟁을 통하여 인민들의 애국적 정신은 일층 앙양되고 그 투쟁력은 일층 조직화되며 그 단결은 일층 견고하여지고 리승만 매국도배의 파멸은 더욱 촉진될것이다。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독립완성을 위하는 남반부인민들의 구국투쟁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과 더부러 치렬의 일로를 다름질치고있다。 인민의 애국주의적 투쟁이 치렬화하면 할쑤록 리승만정권의 파멸이 가까워간다。

리승만 매국정권은 자기의 잔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테로, 학살을 가강하고 평화적 통일안을 방해하고 자기상전에게 무제한의 무기를 애결하며 소위「태평양조약」의 조작을 시도하며 각종반동적 반인민적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나 인민들의 거세인 구국투쟁의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수는 없다。 인민들의 열화같은 투쟁앞에 선 리승만매국

「정권」은 실로 고성락일의 비운을 만회할수없다。

더욱 사리사욕에 광분하고 정권쟁탈에 눈이 어두운 이 추악한 무리들은 통일되고 단결된 인민들의 구국투쟁과 정비례로 그 내부암투와 분렬이 확대되고 있다。 리승만 대 김성수계렬의 반목은 루차에 걸친 소위「내각」개조에서 더욱 격화되면서 있다。 소위「국회」대「정부」의 알력은 다수의 「소장파의원」의 구금으로서「소장파」들을 압박하면 리승만전횡은 더욱「소장파」들의 분노를 격화할 것이다。 소위「국군」의거사전, 소위「국군」과 「경찰」의 반목등은 추악한 리승만을 위시한 소위 각료들의 수뢰, 극도의 도덕적 부패와 아울러 심각하여가는 리승만「정권」의 파멸을 걷잡을수 없는 구렁으로 몰아넣고있다。 미국상전들의 책동에 의한 소위 우익 대동단결이나 리승만 김규식 합작시도같은것은 과멸하여가는 리승만 매국정권을 구하지못할 것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발전을 위하여 공화국 정부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된 인민들의 거대한 구국투쟁의 불덩이속에 파멸되어가는 리승만 매국정권이 완전히 타없어질 날이 결코 멀지않다。

참 고 자 료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류 소 기

수개국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보도국 회의의 유고슬라비야 공산당내 정형에 관한 결의는 반역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찌도도당의 반쏘적 태도를 비난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국제적 단결사업을 배반하고 민족주의의 립장에로 넘어가고만 찌도도당의 반쏘적 태도의 기본에는 부르죠아 민족주의 강령이 가로놓여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 결의에는 「이런 민족주의적 견지가 유고슬라비야로 하여금 평범한 부르죠아 공화국으로의 변질、유고슬라비야의 독립의 상실 및 유고슬라비야를 제국주의제국의 식민지로 되게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언급되고있다。

유고슬라비야공산당내 정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결의에도 또한 찌도도당은 부르죠아민족주의의 진흙탕속으로 전락하였다는것이 지적되고있다。 동시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유고슬라비야공산당내 정형에 관한 결의를 보도국이 채택한것은 「전세계의 민수와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의 임무와 또한 유고슬라비야 인민들을 미제국주의의 기만과 침략으로부터 옹호함에 대한 수행」 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 부르죠아 민족주의라는것은 무엇인가? 맑쓰—레닌주의는 민족주의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째서 찌도도당의 반쏘적 립장은 유고슬라비야로 하여금 미제국주의의 침략의 희생으로 되게하며 유고슬라비야의 독립을 상실하게하고 유고슬라비야를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변하게할수있는가?

본 론문은 이런 문제들을 해명하려고한다。 동시에、문제들을 똑똑히 하기위하여 본 론문은 현하 국제정세에 대한 약간의 근본적 문제들에 론급하지 않을수 없는바이다。

一、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민족주의적 관점

민족문제는 계급에 관한 문제와 긴밀하게 련결되어있고 민족투쟁은 계급투쟁과 긴밀하게 련결되어있다。 바로 쓰딸린이 말한바와 같이 「각이한 시기에는 각이한 계급들이 투쟁무대에 나타나는데 매

개 계급마다 자신에 비추어 「민족문제」를 리해한다。 그러므로 「민족문제」는 각개 각이한 시기에 있어서 각종 각이한 리익에 복무하며 이는 어느 계급이 어느때 그를 제기하는가에따라 각이한 음영(陰影)을 띤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본질을 리해하려면 먼저 부르죠아 계급의 본질을 리해하여야 한다。

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관점은 즉 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태도、그의 강령 및 민족문제에서의 그의 정책은 오직 자기가 가지는 협애한 계급적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본질에서 흘러나오고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부르죠아제도는 자본주의적 착취위에 기초하고있다。

부르죠아지자체는 몇개의 계층으로 분렬되어 있으며 동일한 계층이라 할찌라도 또 몇개 부동한 그루빠로 분렬되어있다。 자본가들은 리윤을 추구하면서 몰렴치하게 프로레타리아를 착취할뿐만 아니라 같은 부르죠아계급내에 있어서도 자본가들은 날카로운 경쟁중에서 서슴치않고 서로 집어삼키고 큰 고기가 작은 고기 삼키듯이 대、부르죠아지가 소부르죠아나 중 부르죠아지를 집어삼키며 한 그루빠가 다른 그루바를 배제하거나 집어삼킨다。

부르죠아지는 국내의 생산수단과 국내시장을 점유하려고한다。 그러나 그의 리윤에 대한 탐욕은 한계가 없기대문에 국외에로도、팽창하며 국외에서 시장과 원료원천과 투자지를 점유하려고 애쓴다。 부르죠아지는 이러한 팽창의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을 예속시키며 다른 민족들을 착취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경쟁자로서의 그 나라들의 자본가들을 배제한다。

고용로동의 착취、경쟁、경쟁자들의 배제、압박、병참、전쟁의 수행、국내에서와 전세계에서의 자기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의의 수단의 리용、이것이 즉 리윤을 추구하는 부르죠아지의 계급적 본성이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계급적 기초이며 또한 부르죠아적 일체 사상의 계급적 기초이다。

이러한 계급적 기초와 관련하여 민족문제에 관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강령과 정책은 자기 국내에서는 전체 민족의 리익을 자기 계급의 리익에 종속시키는데 귀결된다。 부르죠아지는 자기 계급 또는 그중 어떤 일개 상층 계층의 리익을 전국 인민의 리익위에다 놓고있으며 나아가서는 「민족」이란 이 명의를 그들이 롱락하며 자신이 그 민족의 대표거나 또는 민족적 리익의 보호자인것을 선포(인민을 기만하기 위하여)한다。 동시에 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지의 강령과 정책은 국외에서는 자기민족(실질상으로는 그의 부르죠아 상층)과 다른 민족의 리익을 대립시켜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위에

다 두고 모든 가능성을 리용하여 다른 민족을 압박 착취함으로써 다른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려 피하며 또 국외의 략탈중에서 일부분을 국내의 일부분 그루빠들, 자국내의 인민측으로부터의 자기에 대한 반대를 완화하며 분렬하기 위하여 매수한다。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가장 추악한 발현은 즉 식민지 반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압제이며 제一차 세계대전이며 제二차 세계대전중에서의 히틀러 무쏘리니 및 일본군벌들의 침략이며 끝으로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세계 제국주의 진영에서 바로 진행하고있는 전세계를 노예화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어떤 민족의 부르죠아지는 다른 민족의 압박을 받거나 또는 봉건제도의 압박밑에 처하여있을때는 부르죠아지는 자기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이런 노예화를 반대하여 나서며 그는 일정한 조건밑에서는 인민과 한마당에 서서 이 노예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수도 있다。 실례로 미국독립전쟁 시대의 부르죠아지, 불란서대혁명 시대의 부르죠아지, 이태리 통일운동 시대의 부르죠아지나 민족혁명에 참가한 근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의 부르죠아지들을 볼수 있다。 그렇지만 일단 부르죠아지가 정권을 잡아 다른 민족을 압박할수있게 되면 그는 즉시 자기의 정책을 정반대로 변화시키어 다른 민족의 압박자로 되고 만다。 바로 영국, 미국,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일본 부르죠아들이 취한 민족주의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면 곧 돌아서서 다른 민족들의 리익을 희생시키며 세계의 다른 민족들을 압박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의 계단에까지 발전한 뒤에 있어서 자본주의국가들의 통치자들은 더욱 적고 적은 숫자로 되었는데 이런 극 소수의 은행가, 금융자본가, 금융귀족들은 자국을 금융제국으로 전환시켜 자국인민을 잔혹하게 착취하며 압박하는 한편 전세계의 타민족들을 정복하고 몇개 금융제국의 식민지 또는 예속국으로 분활하여 가장 잔악한 수단으로써 착취 압박한다。

부르죠아지는 략탈로써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새로운 략탈과 강점에 대한 야욕은 무재한하게 커지며 자국인민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며 민족주의의 기치하에서 자국민족을, 세계의 다른 민족들을 통치하며 「하등민족」을 억압하는 권리를 가지는 「고등인종」으로 악선동적으로 추겨올리면서 다른 민족들을 침략함을 더욱 강화한다。

몇개의 제국주의렬강이 세계의 약소민족들을 강탈하려고 지향하기때문에 식민지 재분활을 위한 제국주의전쟁이 발생한다。 세계력사상에서 가장 큰 이 모든 죄악은 모두가 부르죠아들이 「민족주의」 라는 구호밑에서 수행하는것이다。

각국 부르죠아지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설때에는 조금도 서슴치않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밑에서는 즉 종주국의 주권이 외국 제국주의의 강력한 진공을 받거나 또는 부르죠아계급이나 그중 어떤 한개의 상층 계층의 리해가 자국 인민의 근본 리해와의 간에 첨예한 모순이 발생하거나 또는 자국 인민이 투쟁에 나서 부르죠아정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타민족의 통치자나 기타 제국주의자가 그를 위협 유혹할때에는 부르죠아민족주의자들은 자기의 민족을 팔아먹으며 타민족의 통치자나 기타 제국주의자를 도와 그로 하여금 자국의 인민을 압박하게 히며 자국 인민을 희생시킴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며 자기의 정치적 지위나 통치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좀 오랜 실례로는 일반이 다 아다싶이 파리콤뮨시대에 불란서를 독일에 팔아먹은 불란서 부르죠아대표자 찌엘을 들수 있으며 좀 가까운 실례로는 반식민지 중국의 대부르죠아인 장개석과 왕정위, 불란서의 달라지에와 페당 (히틀러앞잡이), 뻴르수츠키와 베크, 체코의 가하, 놀웨이의 끄위쓰린그 등등과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제二차세계대전후 자본주의의 위급한 정세로 말미암아 영국, 불란서, 이태리 및 구라파의 기타 각국가의 반동파들은 미제국주의의 앞에 굴복하며 그의 종복(從僕) 으로서 나섬에 더욱 서슴치 않게되였다。 부르죠아지는 다만 그에게 유리할때에만 인민을 선동하기 위하여 「민족주의」 란 기치를 내세우나 그에게 불리할때에는 민족절개를 완전하게 멸시하며 민족의 반역자로 되고만다。

이와같은것이 민족에 대한 부르죠아적 관점이며 그가 근거하고있는 계급적 기초이다。 이와같은것이 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기본원칙이며 기본강령이다。

부르죠아민족주의는 부르죠아지의 세계관이다。

二、민족문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

민족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관점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것이다。

민족문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태도 및 전세계의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본원칙은 자국인민 대중의 근본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동시에 전세계 각민족의 인민대중 즉 세계적 인류의 공통한 근본 리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민족의 침략은 계급적 착취제도의 산물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착취하지 않을뿐더러 사람이 사람을 착취함이 없는 사

회제도를 추구하기 위해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트는 한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압박함을 견결히 반대하여 나선다。프로레타리아트는 인류사회에서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는 어떠한 제도도 유지하지 못하게 할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도 자신의 해방을 얻지못할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어떠한 민족적 압박이라도 견결히 반대한다。그는 자기민족에 대한 어떠한 이(異)민족의 압박이라도 반대하는 동시에 다른민족에 대한 자기민족의 어떠한 압박이라도 견결히 반대하고 국제적 범위에서나 국내에 있어서의 일체 민족(대소강약을 물론하고)의 완전한 평등과 련합의 자유를 고수(固守)한다。뿐만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는 자유로운 세계 대다수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과 예속을 타파하려는 목적으로써 또는 자유 련합의(즉 제국주의의 압박을 근절하고 나서 각민족이, 완전한 자원적 의사에 기초하여 련합하는것) 각이하며 구체적인 길을 걸쳐 세계의 통일에로 점진(漸進)하는 사상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민족문제에 대한 관점 및 그 형성의 계급적 기초이며 민족문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기본강령으로 된다。

제국주의에 의하여 압박받는 국가들내의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피압박민족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령도하면서 가장 견결하며 가장 전위적인 전사이다。실례로 우리 중국 공산당원들은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인 동시에 또 가장 견결히 중국민족에 대한 일체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여 나서며 조국의 독립자유를 보호하며 일체 매국노들을 반대하는 혁명적 애국주의자이며 혁명적 민족전사이다。우리중국에 있어서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명확한 강령을 첫차례로 제출한 정당은 부르죠아저의 정당이거나 또는 소부르죠아지의 정당인것이 아니라.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당이였다。우리 중국공산당은 과거부터 언제나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민족통일전선의 령도자이며 조직자이다。이 민족통일전선의 규모는 광범하여 로동자、농민、인테리겐챠、소부르죠아지、민족자본의 대표자、그리고 진보적 지주까지도 포함하고있다。이러한 혁명적 민족해방운동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모순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완전히 일치하는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운동의 한개의 극히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며 그의 중대하고도 직절적인 동맹군으로 된다。이런 민족해방운동의 승리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사업을 위한 투쟁의 길로 크게 한걸음 나아가는것이며 그 국히 큰 위

력을 보일것이며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혁명을 도와줄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피압박민족의 공산당원으로서 제국주의의 압박을 반대하며 민족해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강령밑에서 투쟁을 하지않고 「국제주의」란 말을 단지 장식의 공담으로만 삼는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제국주의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그 결과에 가서는 제국주의의 틀림없는 주구로서 행동하는 비렬하고도 천한 「뜨로쯔끼」파와 마찬가지의 상태에 떨어지게 될것이다。그리고 단약 자기국가를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한뒤 공산당원으로서 부르죠아민족주의 립장에 떨어지든가 또는 민족리기주의정책을 실행하여 자기민족의 상층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전세계 각민족의 근로인민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공통한 국제적 리익을 희생시키거나 심지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나서지않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국주의의 도움에 의탁하여 다른 민족을 침략하며 압박하거나 또는 민족보수와 배타사상으로써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반대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인민들의 국제적 단결을 거절하며 사회주의의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나선다면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주의를 배반하며 국제 제국주의자를 원조하는것이며 나아가 자신으로 하여금 제국주의 진영내의 한개 졸도로 변하고 말것이다。유고슬라비아의 찌도 도당은 바로 이런 길로 나아가고있다。

위에서 말한 원칙들에 근거하여 일체 압박민족 즉 일체 제국주의의 국가내에 있는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자국 민족의 통치자나 제국주의 집단이 식민지 및 반식민지 민족을 침략하고 압박함을 강경히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여 나섰다。나아가 이나라들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을 무조건으로 원조하며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들이 자국제국주의의 통치를 벗어나서 완전히 해방되며 완전히 독립되게 하기 위해 진출한다。이러한 점에서 실례로 짜리로찌야의 공산당원들과 영국、미국、불란서、독일、이태리、일본、화란、백이의등 나라들의 공산당원들이 될수있다。그들은 강경한 국제주의자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자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인도、마레、비률빈、인도네시야、월남、중국、중 및 남아메리카、기타 식민지 반식민지를 압박하고 침략함을 견결히 반대하며 피압박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견결히 옹호하여 나선다。공산당원들은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수없다 라는 맑쓰의 유명한 말을 심각히 리해하기 때문에 또 만약 제국주의 통치의 기초를 약화시키며 파탄시키는 민족해방운동이 없다면 자본주의 종주국의 프로레타리아트는 독점자본을 반대

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얻기어렵고 자기를 해방하기 어렵기대문에 식민지 반식면지 민족의 해방운동을 원조하는것은 동시에 종주국 프로레타리아트 자신의 해방을 원조하는것이다。

위에서 말한 원칙에 근거하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은 자기국내에서 제국주의의 통치를 뒤집어 엎고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는 즉시 국내 및 국외의 민족에 대한 자국제국주의의 모든 압박을 폐절해야 한다。 실례로 레닌—쓰딸린은 위대한 로씨야 十월혁명에 있어서 짜리 및 부르죠아 림시정부를 뒤집어엎고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근로자들이 정권을 잡자 즉지에 중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짜리로씨야시대의 모든 불평등조약을 취소하며 식민지 반식민지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모든 예속제도를 취소함을 선포하였으며 국내 전민족의 완전한 평등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외 위대한 원칙의 실현인것이다。

그러므로 압박민족의 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 대오내에 만약「국제주의」를 장식의 공담으로 삼거나 또는 부르죠아민족주의의 립장에 떨어져 식민지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을 원조하지않고 식민지 반식민지와 락후한 국가에 대한 자국 제국주의자의 압박을 원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 즉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업을 배반하는 자이며 제국주의의 주구로 된다。실례로 제국주의에게 매수된 로동귀족의 대표자、각국사회민주당의 우익과 영국 로동당의 우익들은 모두 프로레타리아트의 배반자에 속하는 것들이다。

또한편으로 만약 공산당원으로서 자기국내에서 제국주의의 통치를 뒤집어엎고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즉시 국외의 일체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압박을 취소하며 국내의 일체 민족의 완전한 평등을 선포하지않고 민족압박을 계속하며 다른 민족에 대하여 침략정책을 실행한다면 그도 역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업을 배반하며「국제주의」를 단지 장식의 공담으로 삼고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립장에 떨어지게되는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력사적 조건밑에서는 압박민족도 피압박 민족으로 될수있다。실례를 히틀러가 불란서、백이의、화란등 나라들을 침략하여 집어삼키던 때에 이런 나라들의 공산당원은 부르죠아지의 민족반역자와 정반대로 영용하게 민족투쟁의 최전렬에 나서 파시스트침략자를 반대하여 싸웠던것이다。

또 다른례로서는 미제국주의 마샬 계획의 예속하에 있는 구라파 국가들을 들수있다。이 국가들의 반동적 부르죠아지는 미제국주의의 원조밑에서 불란서가 월남에서、영국이 마레 및 기타 식민지에서、화란이 인도네시야에서 하고있는것처럼 식민지 민

족혁명을 계속 진압하고있다。이런때 이러한 국가들내의 공산당원들은 일면으로서는 견결히 자기 민족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노예화와 침략을 반대하고 미국에 항복하며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본국 부르죠아지를 반대하고 자기민족의 독립을 보위하여야하는 한편 타면에 있어서는 견결히 식민지에 대한 자국 민족 부르죠아 통치자들의 제국주의정책을 반대하며 식민지민족에 대한 그들의 압박과 략탈을 반대하고 종주국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식민지 민족의 해방운동을 무한하게 원조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가운데서 구라파제국 사회당의 우익과 영국로동당 우익들은 식민지에 대하여 제국주의의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한편 자기민족을 예속시키는 마샬 계획을 옹호한다。공산당은 이러한 반역자들과 조금치도 사정 없이 투쟁하고있다。

이와같은것들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각이한 국가내에서와 각이한 정세가운데서 민족문제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이며 각이한 구체적 강령이다。이러한 강령과 정책들은 모두 그 국가내의 인민대중들의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또한 전세계 각국가들의 인민대중의 리해관계 즉 전 인류의 공통한 근본적 리익 관계로부터 출발하고있다。동시에 이러한 강령과 정책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익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이와같은것이 각이한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밑에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세계관의 구체적인 적용이다。

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적 관점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관점을 비교하여 우리는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두개의 각이한 계급을 대표하는 서로 적대되는 두개의 세계관이며 사상이고 구호이라는것을 가히 알수있다。

레닌은『부르죠아민족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는 전체 자본주의 세계의 량대 계급적 진영에 적응하며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두가지 정책(더우기 두가지 세계관)을 표현하는 두개의 조화할수 없는 서로 적대되는 구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의 국제주의 및 민족문제에 대한 그의 립장은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엄격히 구별해야한다。어떠한 공산당원이라도 만약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립장에 떨어진다면 공산주의를 배반하는것이다。민족문제에 대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관점 및 민족문제에 있어서의 부르죠아민족주의의 강령과 정책에 근거하여 제국주의라는 두말할것없이 (가능할때에는) 타민족을 침략 또한 압박하며 독립과 해방을 쟁취하려고 투쟁하는 타민족을 원조한다는것은 무조건하고 있을수없다。어떤때에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떠한 피압박 민족

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를 반대투쟁하는데 있어 그들을 원조하지마는 그 역시 피압박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함이 아니고 피압박민족을 리용하여 자신의 경쟁자를 반대하며 자신의 곤난을 기피하고 경쟁자를 밀어던진뒤 피압박민족에 대한 그 자신의 통치를 건립하기 위함이다。

히틀러의 소위「구라파 신질서」의 건렵계획、일본군벌의 소위「대동아공영권」및「중일공존공영」의 계획、미제국주의의 소위「마샬안」、「중국경제 건설 원조」및「조선독립원조」、「비률빈 독립 방조」이니 이니 영국의 소위「인도 비르마 독립방조」이니 하는 등등의 그 목적들은 기타 민족의 부흥을 원조하기 위함이 아니며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쟁취함을 원조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민족들에 대한 그 자신의 지배를 건립하거나 리윤을 보지하기 위함이다。어떤 피압박 민족이라도 제국주의자들의 소위「원조」밑에서 참다운 해방과 독립을 얻을수없다。참다운 민족독립과 해방사업에서 제국주의국가의 참다운 원조에 희망을 붙일수 없다。

이리하여 미제국주의가 중국 민족의 참다운 독립과 평화와 민주를 위하여 호의적 원조를 주리라고 확상하는것은 극단으로 그릇된것이며 또한 해로운 것이다。

공산당원들은 민족문제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관점과 민족문제를 처리함에 관한 그 강령과 정책에 근거하여 반드시 일체 피압박민족의 독립해방운동중에서 가장 견결하며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능력있는 령도자로 되어야한다。공산당원들은 반드시 각민족의 정당한 리익을 위한 가장 견결한 옹호자로 되어야하며 세계의 일체 피압박 민족의 해방운동을 반드시 백방으로 원조하여야한다。두말할것없이 공산당원들은 어떠한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략정책을 쓰거나 자국내의 소수민족을 압박할수 없다。

소위「공산당원은 국제주의자인 이장 민족독립과 해방운동의 령도자로 될수없으며 자기민족과 자기조국의 리익을 위한 옹호자로 될수없다。」「쏘베트동맹은 적색 제국주의이다。」「쏘베트동맹은 중국조선 및 기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침략정책을 쓰고있다。」「쏘베트동맹이 팽창 정책을 실시한다」는 등등과같은 말은 모두 제국주의자들의 아무 근거도 없는 악선동이며 악의의 비방이다。오직 공산당원과 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오직 공산당의 령도밑에 있는 쏘베트동맹 및 인민민주주의국가만이 일체 피압박 민족의 해방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가장 믿을만한 벗이다。일체 민족이 제국주의 압박밑에서의 해방과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쏘베트동맹 및 세계의 프로레

타리아트、그리고 공산당들의 원조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찌도도당이 공산당들의 령도밑에 있는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대하여 불신임과 비우호적 태도를 취하며 심지어는「유고슬라비야에 대한 자본주의 국가의 위협이 유고슬라비야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위협보다 적다」고 유고슬라비야인민에게 고취하는것은 유고슬라비야 인민에게 매우 유해한것이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있는 쏘베트동맹의 대외정책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외정책파를 혼동함은 오로지 유해한것이다。찌도도당처럼 제국주의국가에 대함과 마찬가지인 태도로 공산당이 령도하는 쏘베트동맹 및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대하는것은 극단으로 그릇된것이며 또한 해로운것이고 맑쓰—레닌주의의 근본원칙과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주의를 배반하고 부르죠아민족주의 립장으로 전락한 결과에서만 있을수 있는것이다。

三、현재 세계는 압박먼족과 피압박민족으로 나뉘어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은 전세계 민족을 압박민족과 피압박민족의 두개 종류로 나누었다。제一차세계대전이 끝난뒤 레닌은 이 두개 종류의 상황을 다음과같이 평가하였다。「제국주의 전쟁후 형성된 세계형편의 그 기본륜곽은 대체로 이러하다。피압박 식민지의 十二억五천만은—이나라들은 페루샤、토이기、중국과같이 산채로 분활되어있으며 이나라들은 정복당하여 식민지의 상태에 떨어져있다。二억五천만미만—이는 원래의 처지를 보존하고있는 나라들이다。그러나 그들도 역시 미국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처지에 떨어졌으며 또한 전쟁기간에는 전쟁이 전세계를 포괄하여 어떠한 국가도 실지에 있어 중립을 보지할수없게 하였기때문에 군사적으로 의존하였다。끝으로 또 二억五천만에 달하지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물론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오직 상층분자와 자본가들만이 세계분할의 리익을 향유하고있다。합계 十七억五천만、이것이 곧 지구상의 전체인구인것이다。」현재에 있어서 민족문제는 이러하다。소수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에서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가혹하게 압박하며 략탈하는 사태는 이러하다。자본주의의 세계에 있어서의 모순의 첨예화를 반영하며 제국주의의 계단에 있어서 각국 자본주의의 불균형적 발전의 강화를 반영하는 민족호상관계의 분야에 있어서의 상황은 이러하다。이러한 형편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호상 쟁탈하는 첨예한 투쟁을 초래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그와동시에 또 피압박민족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

고 해방을 쟁취하려는 세계적 민족해방 운동의 앙양을 초래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제一차세계대전후 세계의 六분지一의 땅덩어리 위에서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제국주의의 전선을 돌파하고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한 결과에 세계는 드디어 두개의 동일치않는 경제체계로 분렬되었다。 제一차세계대전과 로씨야十월혁명은 자본주의의 총위기를 가져왔다。 이 자본주의의 총위기의 결과에 부르죠아민족주의는 가일층 경폭하여지고 잔혹하여지며 가일층 침략적인것으로 되었다。 전세계를 노예화할것을 목적한 독일、이태리、일본 및 기타 나라의 파지즘은 부패되었고 반동적인 독점자본의 산물인것이며 자본주의의 총위기를 표시하는 첨예화된 모순속에서 발생되었다。 제二차세계대전에 있어서 독일、이태리、일본의 팟쇼는 쏘베트동맹을 선두로한 국제적 반팟쇼력량에 의하여 격멸되었다。 동구라파 각국인민은 쏘베트동맹의 방조밑에서 제국주의의 전선을 돌파하고 인민민주주의적 질서를 자국에 세웠다。 세계각국 공산당은 반팟쇼전쟁중에 자기 조국을 보위하는 가장 영용한 령도자이었으며 가장 견결한 력량이었기 때문에 현재 인민들 가운데서 위신이 극히 높다。 공산당들은 전례없이 강대하여졌다。 동방에서 즉 중국、월남、인도네시야、비르마、마레등등에서 민족해방혁명투쟁은 바로 료원의 불과 같다。 이러한바 제二차세계대전후 국제정세는 또 새로운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어 자본주의 총위기가 제一차 세계대전후보다 더욱 첨예화되었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미제국주의자 히틀러 및 일본군벌을 대신하여 나서고있으며 그는 세계각민족을 노예화하며 지배하려는 더욱 흉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으며 그의 팽창정책을 전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총위기가 더욱 첨예화된 시기에 있어서의 가장 부패적이며 반동적인 독점자본의 간계의 산물임은 더말할 필요도 없는것이다。

제二차세계대전후 세계지도의 기본윤곽은 대체로 다음과같이 규정할수있다。 한편에는 사회주의 쏘베트동맹인데 이는 제국주의 및 파시즘을 반대하여 싸우는 전세계 모든 민족들의 령도자이며 이는 독일、이태리、일본 파시즘이 타도된후 무한한 번영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 나라이며 전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며 민주와 각민족의 독립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나라이다。 이 국가는 거의 二억의 인구를 가지고있다。

그다음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해방된 몽고인민공화국(인구一백만)이 나아가고있다。 또 그다음으로는 동남구라파의 인민민주의국가 즉 체코슬로바키야、파란、불가리야、향가리、루마니야、알바니야、

유고슬라비야가 나아가고있는데 그의 인구는 합계 八천五백만이며 이 나라들은 독일 및 이태리의 팟쇼적 노예로부터 해방된후 공산당들의 령도밑에서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중 다만 유고슬라비야에서만은 찌또그루빠가 프로레타리아트를 배반하였으며 현재 프로레타리아트는 그 배반자를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해방된 북조선과 동부독일이 나아가고있는바 그 인구는 약三천만이다。 이외에 외래제국주의 및 자국내의 민족반역자들과 아직도 직접 투쟁하는 민족들이 있다。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서 인민민주주의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의 해방구(인구一억六천八백만)가 이에 속한다。 만약 이 월남、인도네시야 및 기타 국가들의 해방된 인구를 합한다면 전세계의 약 二十억 인구중 五억이상의 인구가 이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된것으로된다。 이 나라의 인민들은 자국의 실지로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주인의 지위를 쟁취하였다。

이들 해방된 인구는 전지구인구의 四분지一이 二을 차지한다。 이는 세계의 신생을 의미하며 또한 인류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쟁취한것의 범위와 수준을 표시하는 것이다。 또 이 숫자가 금후 나날이 증가될것도 의문 없는바다。 세계의 전체 인류는 머지않은 장래에 제국주위의 지배로부터 해방될것이다。 이 투쟁의 시기에 있어서 여러가지 곡절이 있을지언정 발전의 총방향이 해방으로 향하게될것은 력사상 필연적이며 저항할수없는 법칙인것이다。

중국에 있어서는 위대한 인민해방군의 계속되는 승리로 말미암아 四억七천五백만 인구가 완전히 해방될 전망이 특히 뚜렷한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한 방면이다。

다른 한 방면에 있어서는 독일、이태리、일본팟쇼가 패배됨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六대 제국주의국가(미국、영국、불란서、독일、이태리、일본) 중 三개국이 타도되었다。

현재 대소 부동한 식민지를 갖고있는 제국주의국가는 미국、영국、불란서、화란、백이의、포도아등이다。 제국주의국가의 수는 감소되었다。 그러나 한개의 제국주의국가—미제국주의—가 세계각민족을 노예화하려는 현하의 정세는 일찌기 그 례를 볼수없었다。 화란、백이의、포도아등과 같은 따위의 국가는 더말할나위도 없거니와 영국、불란서와 같은 국가들까지라도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손상때문에 연약하여졌다。 비록 이러한 국가의 반동파들이 식민지인민들의 해방운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류혈적이며

가압적인 제국주의적 방법을 사용하고있다 할찌라도 그러나 이 국가들의 부르죠아지가 자기민족을 팔아먹으며 또한 사회당과 레이버당의 우익이 자국인민을 배반하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들은 벌써 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예속국 및 보호국으로 변하여 버렸다。

때문에 위에서 말한 이미 해방된 五억의 인구를 제외한다면 전세계에서(미국을 포함하지않음) 十三억의 인구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제국주의의 지배하에 빠져있는것이며 이와 동시에 영국、불란서、화란등의 반동파는 실제상 미제국주의의 보조자로 되었으며 매국노로 되었다。 또 一억四천만의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어깨위에 八개의 유명한 금융그루빠 즉 모르간、록크훼라、듀폰、및 메론등과 그들의 반동적 대표자들(합계 약 천명에 지나지 않는다)을 걸머지고 있다。 이 八대재벌과 그의 대표자들은 한편으로 자국내에서 一억四천만의 미국공민을 통치하고 있으며 다른편으로는 미국자본주의 사회제도의 기초위에서 쏘베트동맹 및 기타 해방된 민족을 제외한 일체민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노예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八대재벌의 통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지구의 인구의 근 四분의 三(미국인민을 포함하여) 즉 十四억 이상에 미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미국 반동분자들은 쏘베트동맹과 기타 해방된 나라들에서 앞으로 미제국주의의 노예화제도를 건립할 공삭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민족문제의 상황은 이러하다。

四、현하 세계의 량대진영과 민족 해방운동의 길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현하 세계에서 민족문제는 한편으로는 미제국주의자가 전세계 각민족을 략탈하며 압박하며 또는 그들이 이 략탈과 압박을 갈망하는 문제에 귀착되는것이며 다른편으로는 전세계 각민족이 미제국주의의 압박과 략탈을 반항하며 민족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독립을 보위하는 문제에 귀착되는것이다。

이미 제二차세계대전당시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 각민족을 압박하며 략탈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대전이 종결된 뒤 그들은 투루맨주의와 마샬안을 들고 나섰으며 그리하여 한걸음 한걸음씩 세계의 허다한 국가와 민족들에 대한 자기의 통제와 통치를 확장하며 전세계에 군사기지망을 설정하며 다른 국가들의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계획은 이 팽창에 근거한것이다。 그들의 이런 침략계획은 바로 히틀러 못소리니 및 일본 군벌과 마찬가지로 소위「반쏘 방공」의 구호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는 일체 력량을 다하여 본국인민이 그의 계획을 지지하도록 동원하지 않을수 없으며 그의 계획을 반대하는 본국인민의 일체력량을 가혹하게 압박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미국인민에게 소위「미국세기」에 관한 전설과「백색인종 우월성」에 관한「리론」을 주입하지 아니할수 없으며 또한 미국은「세계를 령도」할 사명이 있으며 전세계 각민족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제국주의자들은 미국공산당、미국의 진보적 직업동맹 및 월레스가 지도하는 진보운동을 압박하며 나아가 팟쇼적 질서를 수립하지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그 리유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의 계획실현을 반대하는 세계의 일체 력량과 투쟁하지 않을수 없다。 그들은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며 인민민주국가들을 반대하며 중국공산당 및 중국인민의 해방운동을 반대하며 희랍、월남、인도네시야、마레、비르마 및 비률빈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하며 세계각국의 공산당 및 인민민주력량을 반대하는것이다。 그 리유는 이 일체 력량이 쏘베트동맹을 수반으로 한 반제국주의 진영을 결성하며 그리하여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을 견결히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인것이다。

때문에 찌도그루빠가 반쏘적 립장을 취하며 공산당 보도국으로부터 탈퇴하며 나아가 국내에서 진정한 진보적 력량을 유린하게 되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금지할수 없는 환호를 표시한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일체 력량을 진압하겠다는 공상적 기대를 가지면서 제三차세계대전을 도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를 노예화하며는 자기들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 계획을 실시하여주며 또한 그를 후원하여줄 주구와 앞잡이들을 구하지 않을수 없다。 그들은 인민들의 반항운동을 탄압하며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데 있어서 그들을 원조하여줄 민족반역자와 매국적을 찾아내지 아니할수 없다。 미제국주의는 세계 각국에서 반동분자들을 원조하여주며 독일、이태리、일본 및 기타 국가들에서 팟쇼잔여세력의 재생을 원조하여 준다。 각국에서 반동정당、부르죠아 그루빠 및 팟쇼잔여세력은 미국의 원조밑에서 본국의 인민 및 식민지 민족들의 반항운동을 진압하

며 쓰련 및 세계민주력량을 반대하여 나서면서 미제국주의의 앞잡이 또는 보조자로 되었다。

그러나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미제국주의의 욕망과 또한 구라파 제국의 반동파들의 민족적 반역의 결과에 민족문제는 제一차세계대전후보다 가일층 많은 사람들의 절실한 문제로 되었다。민족해방운동의 반제국주의의 전선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러나 제국주의국가의 수는 적어졌으며 그들은 더욱 고립되었으며 제국주의의 토대는 더욱 견고치 못하여졌으며 그의 력량은 대대적으로 쇠약하여졌으며 또한 계속 쇠약하여지고 있으며 피압박자들은 더욱 광범한 범위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의 종말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구라파의 자본주의 종주국들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적은 동시에 이 국가들의 민족적 반역자이며 자국인민의 원쑤이다。구라파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주의를 전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미제국주의의 노예화를 반대하여 싸우며 또 본국의 민족적 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한다。따라서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는 서로 련결되어 있다。이 사실은 구라파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왜냐하면 한편으로 자국내의 광대한 인민대중을 단결하며 또한 자기민족의 독립보위와 사회주의의 쟁취를 위한 투쟁과를 련결시키는것을 가능케 하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와 반식민지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단결시키며 또한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파 사회주의쟁취를 위한 자체의 투쟁과를 련결시킬수 있도록 하여주기 때문이다。 세계를 노예화하려는 미제국주의의 계획과 구라파 각국의 반동파들의 민족적 반역은 세계자본주의의 총위기의 과정을 반영하는것이며 자본주의의 각종 모순의 극단한 첨예화를 반영하는 것이다。이러한것들은 미련한 멸망적 투쟁을 생각하고있는 미제국주의와 기타 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이 바로 맹렬한 새로운 위기의 화산 폭대기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은 자본주의 총위기의 발전을 일층 강화시키며 자본주의 세계의 기본적 모순—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모순、판매시장과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자본주의국가간의 모순、제국주의와 피압박민족파의 모순—의 첨예화를 강화하고 있다。따라서 전세계의 최대다수의 인민들이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전세계적 규모에서 통일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와동시에 세계의 노예화를 갈망하고있는 미제국주의의 계획은 제국주의의 멸망을 촉진시키고있다。

현재 민족문제는 세계를 노예화할때 대한 미제국주의의 갈망이 가일층 심하여진 결과에 영국、불란서、화란 및 기타 국가들의 제국주의자들이 미국의 원조하에서 식민지 인민들을 가일층 심하게 진압하고 있는 결과에 각국가들에서 미제국주의와 기타 국가의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운동의 새로운 앙양이 있은 결과에 또한 식민지들에서 민족해방운동이 장성된 결과에 전세계적으로 전례없이 첨예하여졌다。

오늘에 있어서 세계는 서로 적대하는 두개 진영으로 나뉘어져있다。한편에는 미제국주의 및 그의 동류자(同類者)즉 세계각국의 반동파들이 서있다。이것은 국제적인 제국주의의 진영이다。다른 한편에는 쏘련과 동구라파의 인민민주의국가들과 중국 및 동남아세아제국과 회랍의 민족해방운동과 세계각국인민들의 민주력량이 서있다。이것은 국제적인 반제국주의의 진영이다。미제국주의는 세계의 일체 반동력량의 성색이며 쏘련은 일체 진보력량의 성색인것이다。이 두개 진영은 전세계의 일체 민족、모든 국가、계급、주민층、당 및 당파를 포괄하고 있다。이 두개 진영사이에 긴장된 모순이 존재하고있는 이순간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이쪽이 아니면 저쪽에 서야한다。

다시말하면 미제국주의 및 그 주구를 도와 세계를 노예화하며 또는 자기민족을 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의 진영에 서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반제국주의의 진영에 서서 해방을 쟁취하려는 세계의 일체 피압박 민족을 도우며 또는 자기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며 미제국주의 및 각국에 있는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그리하여 당신들은 쏘베트동맹 및 동구라파의 인민민주국가들을 방조하며 미국 및 세계각국의 인민민주력량을 방조하며 전세계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공산당을 방조하여야한다。이쪽에도 서지않고 저쪽에도 서지않는 중립이라는것은 불가능한것이다。

모택동동지가 「신민주주의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현하의 긴장된 국제정세하에서 소위 중립한다는것은 그 주관적 의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오직 기만적인 언사에 기나지않는것이다。

현하의 국제정세하에서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을 쟁취하기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및 자국에 있는 그 주구 즉 민족반역자와 다른 나라들의 반동분자들을 반대하지 않을수 없으며 쏘베트동맹 및 동구라파의 각인민민주국가들과 단결하지 않을수 없으며 민족해방운동 및 인민민주력량과 단결하지 않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들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공산당과 단결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다시 말하자면 국제적인 반제국주의 진영에 서서 미제국주의 및 자국에 있는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견결한 투쟁을

진행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그렇지 않고는 어떠한 민족도 참다운 해방을 쟁취할수 없다。

미국、영국、불란서、화란 및 기타 국가들의 특히 미국의 공산당과 프로레타리아트 및 인민민주력량은 자국의 독점자본가들의 지배를 뒤집어 엎으며 그들의 제국주의적 국내외정책을 종식(終熄)시키며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적 국내정책 및 민족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는것이다。그 결과는 다만 이 국가들의 인민의 완전한 해방뿐만 아니라 전세계 피압박민족들의 완전한 해방을 가져오게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들의 국내에서의 완전한 승리와 또한 독점자본가 통치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주는 매개의 타격은 세계 피압박 민족에 대한 가장 좋은 직접적인 방조인것이다。 그러므로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은 반드시 제국주의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의 원조를 확보하도록하며 제국주의적 지배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그들과 동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적이 있는것이니 한편의 승리는 곧 다른 한편의 승리를 원조하여주는것이다。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쏘베트동맹의 존재 및 그의 위력과 동구라파의 인민민주국가들의 존재 및 그의 발전은 미제국주의와 각국에 있는 그의 주구 및 반동파에 대하여 또한 세계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하여 막대한 타격을 주고있다。쏘련 및 동구라파인민민주의국가들의 존재와 발전은 세계자본주의의 총위기를 표시하며 강화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세계의 멸망을 촉진시키는것이며 각종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진영 및 세계의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운동을 강화하는것이며 전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증명하는것이다。

一九二五년 봄에 중국의 위대한 애국자 손중산은 서거하시기 바로 얼마전에 쏘베트동맹에 관하여 다음과같이 썼다。즉「이 자유로운 공화국들의 동맹은 레닌이 피압박 민족들의 세계에 남겨준 영원히 빛날 참된 유산이다。 제국주의의 희생자들은 장차 이것에 의하여 자기의 자유를 옹호하며 또한 고대로부터 노예화와 전쟁 및 협량(狹量)에 기초한 국제제도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면서 이 자유로운 동맹에 의거하게 될것이다。」이 진리는 과시즘을 반대하는 세계대전시에 더욱 확인되었고 지금 세계인류의 해방을 위한 인류의 투쟁속에서 또다시 확인되고있다。 문제는 다음과같이 선다。즉 바로 모택동동지가『신민주주의론』중에서 천명한바와같이 쏘베트동맹과의 동맹인가、그렇지않으면 제국주의와의 동맹인가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이다。이것은

애국과 매국파의 한계이며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과의 한계이며 이것은 세계의 어느민족을 물론하고 진보와 퇴보와의 한계이다。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것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이며、자기민족의 리익에 대한 배반인것이다。

위에서 말한 모든것은 다음과같은 한개의 원칙적인 결론에、귀착되는것이다。 세계지배를 갈망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계획과 인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압박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하며 민족문제를 해방해결하며、다시 말하면 모든 피압박민족들을 해방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의 근원인 제국주의국가들에서의 독점자본의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하여는 세계의 일체 피압박민족과 모든 국가들의 프로레타리아트 및 인민민주력량은 반드시 서로 단결하며 또한 반드시 쏘베트동맹 및 동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하여야 한다。 다른말로 말하면 전세계의 공산당원들과 인민들은 공동적 투쟁을 위하여 또한 서로 원조하며 후원하기 위하여 민족문제에 있어서 민족강령 및 프로레타리아 정책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해석에 부합되겠금 세계의 모든 근로자 및 모든 반제국주의적 혁명력량과 단결하여 쏘베트동맹 및 동구라파의 인민민주국가들과 단결하여야한다。오직 이와같은 방법으로써만이 그들은 세계의 일체 피압박 민족들을 해방할수 있는것이며 오직 이와같은 방법으로써만이 오늘의 민족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것이다。 만약 찌도그루빠가 유고슬라비야에서 한바와같이 민족문제에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민족과 및 그의 민족문제에 대한 강령과 정책을 실시하여 쏘베트동맹과 같이 나아가지않고 그를 반대하며、동구라파의 인민민주국가들과같이 나아가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며、각국가들의 공산당 프로레타리아트 및 인민민주력량과같이 나아가지 않고 그들을 반대하며、또한 일체 피압박 민족들과 단결하지않고 식민지 및 반식민지들의 민족해방운동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미국 및 기타의 제국주의자들과의 동맹을 의미하며 또한 제국주의의 진영에 가담하며 각국의 반동세력과 동맹하게됨을 의미함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써는 중국의 민족해방을 달성하지 못할것이며 이와같은 방법은 다만 미국과 기타 제국주의국가들의 지배만 확립하게될것이며 또한 이와같은 방법은 오직 독립을 상실케하며 모든 국가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되게할뿐이다。

그렇기때문에 바로 중공(中共)중앙에서 말한바와같이 공산당 보도국이 유고슬라비야인민과 전세계에 향하여 이 위험성을 지적해 말하면서 유고슬라비야인민더러 궐기하여 찌도그루빠의 과오를 고치라고 지적한것은「전세계의 평화와 민주를 하위

여 싸우며 또한 유고슬라비야 인민을 미제국주의의 기만 및 침략으로부터 방위하여야할 그의 의무를 수행한것」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은 모든 각국의 공산당원들과 인민들은 현하 조건하에서 민족해방운동 및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운동을 지도하며 피압박인민들의 민족민주혁명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 혁명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부르죠아민족주의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반드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의거하여야 한다。오직 이렇게함으로써만이 두개의 혁명을 승리할수 있으며 자기의 민족을 해방할수 있다。오직 이렇게함으로써만이 현재에 있어서 일체, 민족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승리를 얻을수 없으며 또한 심지어 민족 해방운동에 있어서도 진정한 승리를 얻을수 없는것이다。

다른말로 말하면 현하의 민족문제는 마땅히 전세계의 혁명에 관한 공동적 문제와 련결시켜 보아야하며 력사적으로 조성된 환경속에서 또한 현 세계의 일반적 정세하에서 보아야한다。그것을 고립적으로 전망의 일부분으로서 보아서는 안되며 또한 그것을 어떠한 비실제적인 적망속에서 보아서는 안된다。바로 레닌과 쓰딸린이 말한바와같이 민족문제는 고립적으로 볼것이 아니라 마땅히 국제적 범위에서 보아야한다。

제一차세계대전이 있었고 로씨야에서 十월혁명의 승리가 있은 후에 있어서는 새로운 국제정세를 타산하며 국제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시켜 또한 세계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 혁명과 결부시켜 가지고서 민족문제를 보아야한다。이때까지 존재하던 낡은 세계의 부르죠아 혁명과의 련결하에서 민족문제를 보아서는 아니된다。제一차세계대전과 十월혁명전까지는 민족문제가 세계부르죠아 민족혁명의 일부분이었다。지금에 와서는 민족문제가 세계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의 일부분으로 되었다。모택동동지는 「신민주주의론」이란 책가운데서 이 문제에 대한 쓰딸린의 리론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또 이 책가운데서 구 민주주의로부터 인민(신)민주주의로 전환한 중국혁명에 관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절대로 옳은것이다。오직 이러한 정확한 리론이 민족해방운동의 기초로 될때에야만이 세계 피압박민족들이 해방될수 있는것이며 또한 오늘날 민족문제가 해결될수 있는것이다。중국에 있어서 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국민당의 반동통치를 반대하며 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의 압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은 즉 공산당원들(우선적인것이지、다만 그것만이 아니다。)과 모든 민주주의정당 및 그루빠와 또한 어떠한 정당에도 속

하지않는 인민들의 단체와 민주주의자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제국주의와 싸우며、국민당의 반동통치와 싸우며、봉건주의 및 관료자본주의와 싸우며、또한 다만 표면상으로만 혁명을 운운하나 사실상으로는 혁명을 파괴하려는 일이 없다면 그들은 전부가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행동하여야 한다。이와 다르게 생각하며 행동할수는 없다。만약 그들이 이와달리 생각하거나 행동한다면 그들은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것이며 혁명대렬에서 떨어져 나아가게 될것이다。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와 분리하여 보거나 민족투쟁을 계급투쟁과 분리하여 보는것은 완전히 잘못이고 해로운것이며 그것은 반동과 즉 지주와 부르죠아지가 꾸며낸 기만이라는것이 조금도 의문없는 바이다。발동적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적 침략은 자본주의적 착취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발생된 정책인것이다。세계지배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현하의 몽상이 이 제도의 최종적인 산물이니만큼 세계의 노예화를 갈망하는 미제국주의의 반혁명 정책이 자본주의 종주국들이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피압박민족들의 민족해방 운동과의 동맹을 가져오게될것은 과거의 그어느때보다도 더욱 명백하다。제국주의의 침략의 근원을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반드시 자본주의 종주국들에서 독점자본의 지배를 전복하여야 한다는것이 더욱 전례없이 명백하여지고 있다。해방투쟁의 총천망은 사회주의와、공산주의이다。몰로또브의 유명한 말과같이「우리는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각국의 인민들은 자기자신들의 구체적 투쟁의 길을 통하여 이리로 나아가고있다。피압박 민족들의 민족해방투쟁은 반드시 그리로 나아가야할 그러한 길인것이다。쏘베트동맹에 있어서 보는바와같이 오직 사회주의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를 폐지할수 있는것이며 침략의 가능성을 완전히 소멸할수 있는것이다。사회주의 쏘베트동맹은 계급착취제를 청산하였다。쏘베트동맹은 그를 침략하는것을 허락하지않는다。또 그는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는것을 누구에게도 허락치않으며 자기자신도 침략하지않는다。

그러므로 쏘베트동맹은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성색으로 되는것이며 세계 피압박 민족들의 가장 믿을만한 그리고 가장 좋은 벗으로 되는것이다。사회주의 제도가 점점 각국에서 실현된후에 가서는 『침략』이란 글자는 다만 인류의 력사적 기억에만 남아있게될것이다。이것은 전인류의 종국적인 해방으로 다시말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의 종국적인 해방으로 나아가는 길인것이다。

五、일정한 력사적 조건하에서의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진보성과 이런 민족주의에 대한 맑쓰—레닌주의의 태도

맑쓰—레닌주의는 모든 문제를 력사적 견지에서 보는것이다。맑쓰주의자들은 이런 또는 저런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밑에서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구별하며 그의 각이한 객관적 역할을 고려하며 아울러 각이한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의 부르죠아민족주의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각이한 태도를 결정한다。자본주의가 처음 일어나던 시대에 부르죠아지가 지도한 민족운동은 이(異)민족의 압박을 반대하고 민족국가를 건립하는것이였다。이와같은 민족운동은 력사상 진보적 의의를 가진것으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일찌기 이런 민족운동을 옹호하였던 것이다。

근대에 있어서는 식민지 반식민지의 부르죠아 민족주의가 있다。그런데 민족주의의 이런 변종(變種)도 역시 그 객관적 력사상 일정한 진보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구미(歐米)와 일본의 부르죠아지들은 수많은 락후한 국가에 식민지 및 반식민지적 노예의 제국주의적 제도를 건립하였다。이런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중에서 례컨대 중국, 인도, 조선, 인도네시야, 비률빈, 인도지나, 비르마, 애급등 나라에 있어서는 피할수 없이 부르죠아 민족주의가 생장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의 민족 부르죠아지는 첫째로 제국주의와 모순이 있고 둘째로 이런 국가의 락후한 봉건세력과 모순이 있다。이런 봉건세력은 민족부르죠아지의 발전을 제한하고 방해하며 인민에게 해(害)를 주기 위하여 제국주의와 련합함으로 이런 지방의 민족부르죠아지는 일정한 력사시기와 일정한 정도에 있어서 혁명성을 가지는것이다。이런 국가들에 있어서 부르죠아 민족주의가 군중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반대하는때에 있어서는 일정한 진보적 의의를 가지는것인바 바로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이와같은 민족주의는 「력사적 정당성을 갖게되는것이다。」그러므로 프로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와 봉건세력을 타도하기 위하여 레닌이 말한바와같이 혁명정신으로써 농민과 광대한 피착취군중을 교육하고 조직하는것을 방해하지 않는 동맹자로서 일정한 반제국주의적 및 반봉건 역활을 하는 그런 부르죠아 민족주의를 지지하여야 할것이다。이런 합작의 가장 뚜렷한 실례는 우리 중국공산당원과 손중산의 합작인 것이다。손중산의

민족주의도 역시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변종이였다。그러나 바로 모택동동지가『신민주주의론』에서 분석한바와 같이 손중산의 三민주의는 로씨야 十월사회주의혁명 이전과 十월혁명 이후의 두개의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구三민주의와 신三민주의로 분렬되는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이 시기 이전에 있어서는 구민주주의에 속하는것으로 즉 낡은 세계부르죠아 민주주의혁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낡은 부르죠아지와 자본주의 세계혁명의 일부분이 었으나 최근에 있어서는 신민주주의에 속하는것으로 즉 새로운 부르죠아민주주의 혁명의 범주에 속하는것이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사회주의 세계혁명의 일부분이 되는것이다。구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손중산의 민족주의의 이중성질은 다음의것으로 구성되나니 즉 그가 당시의 중국통치자이던 만주족의 조정을 반대하였으므로 진보적 성질을 가지었으나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를 창도한것은 반동적 성질인것이다。그러나 十월혁명후에는 중국혁명이 신민주주의 시대로 들어갔다。그때 손중산은 쏘베트동맹과 우리중국공산당원의 도움을 받아 그런 대한족주의적 민족주의를 수정하여 혁명적 민족주의로 전환하였다。그는 자본주의적 침략을 반대하는 선전과 련쏘 련공 로농동맹의 三대원칙을 선전하였으며『자기의 해방을 지향하는 중국인민』과『중국경내의 각민족이 평등』(국민당 제一차대표회 선언)에 관한 사상을 선전하였다。이것은 인민민주주의에로 전향한 것이었으므로 우리공산당원들도 그와 합작하는 정책을 취하게되었던것이다。이런 합작은 믿을수 없고 잠시적이며 동요적이고 그후에 가서 손중산의 파렴치한 반역으로 파괴되었다 할찌라도 민족해방과 당시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정확한것이며 필요한 것이였다。

비록 이때에 손중산의 세계관이 여전히 부르죠아지적 또는 소부르죠아지적 세계관이며 그의 민족주의가 아직도 부르죠아민족주의의 변종이며 아직도 반동적 성질의 일면(례컨대 소위「혈통」「국족」의 관점이니 소위「대아세아주의」등)이 있었다 할찌라도 이때에 손중산은「민중을 환기시키며 세계상 평등으로써 우리를 대우하는 민족과 련합하여 공동분투하자」는 민족혁명주의를 주장하였으며 련쏘 련공 로농동맹의 三대정책을 실행하였다。이것은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신시대에 있어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혁명 부르죠아지의 민족주의의 진보성의 고도의 표현으로서 이는 거대한 혁명적 의의가 있는것이다。

그러나 손중산이 세상을 떠난지 오래지 않아서 파렴치한 그의 반도—대부르죠아지의 대표물인 장

개석 왕정위 및 기타 국민당 반동파들은 손중산의 민족혁명주의를 다른 일종의 극단으로 상반되는 반역의 길로 끌고 가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데로부터 제국주의에게 항복하는데로, 쏘베트동맹과 련합하는데로부터 쏘베트동맹을 반대하는데로, 공산당과 련합하는데로부터·공산당을 반대하는데로, 로농군중을 옹호하는데로부터 로농군중을 학살하는데로 전환되였다. 더우기 그들은 자기의 반민족적 기치로서 손중산의 민족주의의 보수적 성질과 반동적 성질을 리용하였다. 그러므로 공산당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장개석 왕정위를 수령으로한 국민당 반동파를 반대하는 견결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였었다.

물론 기타 식민지 제국가 즉 인도, 비르마·샤무, 비률빈, 인도네시야, 월남, 남조선 및 기타 지방 같은데에 있어서도 공산당원들은 자기국가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에 투항한 반동적인 부분적 부르죠아지들, 주로 반동적 대부르죠아지들의 그 민족배반에 대하여 견결한 립장을 취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국가들에서 공산당원들은 커다란 착오를 범하는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공산당원들은 아직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인민대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반대하지 않는 민족부르죠아지들과는 반제국주의적 합작을 건립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공산당원들이 이런 합작을 건립하지 않고 혹은 이런 합작을 반대하거나 거절한다면 그들은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합작이 믿을수 없는것이며 잠시적이며 동요적이라 할찌라도 반드시 진실하게 건립하여야 할것이다.

세계각국 혁명의 경험과 중국혁명의 경험은 민족문제는 계급문제와 서로 긴밀히 련결되며 민족투쟁은 계급투쟁과 서로 긴밀히 련결된다는것을 지적한 맑쓰—레닌주의의 과학적 분석이 완전히 정확하다는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있다. 계급 관계를 력사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는 무엇때문에 일국가가 어떤때에 다른 국가에게 압박되어 제국주의의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로 되며 무엇때문에 이러한 국가에 있어서는 봉건계급중에서뿐 아니라 일부 부르죠아지 (례컨대 중국매판 관료 부르죠아지) 중으로 부터 민족반역자들이 출현할수 있는가를 알수 있는것이다. 또 우리들은 어떤 조건 밑에서는 어떤 계급의 령도 밑에서 민족해방을 얻을수 있는가…등등을 알수 있는것이다. 계급관계를 력사적으로 분석하면서 다음과같은것도 볼수 있으니 즉 비록 우리중국의 소부르죠아지이나 민족부르죠아지중에서 손중산과 같은 이런 걸출한 민족혁명가가 출현하였다 할찌라도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국에 있어서 부르죠아지들은 모두가 아직도 자기의 협액

한 리익만에 의하여 민족문제를 보는것이며 오직 자기의 계급적 리익에 수응하여 자기의 립장을 변화하는것이다. 오직 중국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리익만이 진정하게 중국인민의 근본적 리익과 완전히 일치되는것이며 동시에 또 세계각국의 인민—즉 전인류의 공동적인 국제적 리익과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다. 예속국가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투쟁무대에 출현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의 수령으로되며 전민족의 구성으로 되는때에는 례컨대 중국같은데에서—진정으로 애국적인 일체 사회적 그루빠 정당 및 개인들은 반드시 공산당과 합작하게 될것이니 이미 손중산은 이러하였다. 손중산은 쏘련과의 동맹의 편에 섰으며 로동자와 농민의 리익을 지지하였다. 그와 반대로 장개석이나 왕정위는 공산당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반쏘 및 로농리익 반대와 서로 련결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의 충복으로 되며 자기의 조국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즉 민족반역자로 되고마는 것이다. 계급관계의 력사적 분석은 제국주의의 위협, 유인과 국내계급투쟁의 존재로 인하여 국제국내의 력사적 투쟁이 첨예화한 새로운 경우를 당하였을 때에 프로레타리아 혁명대렬중으로 부터도 중국의 진독수 장국도와 유고슬라비아의 찌도같은 그런 인물들이 출현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 사람들은 반동적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투항하고 각국 근로인민의 공동한 리익을 배반하며 자기국가의 인민해방사업에 심대한 위험성을 조성하고있는것이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대렬중에 있는 부르죠아 민족주의의 대변자이다. 그들은 어떠한 민족해방사업이든지 중도에서 폐지하여 자기의 나라를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만듬에 서슴치 않는다. 이것은 일체 국가의 공산당과 매개 공산당원들로써 반드시 경계하여야 할것이다.

六、결 론

진정한 애국주의는 국제주의와 상호 련결되어있다. 위에 말한 모든것은 우리 맑쓰—레닌주의자—공산당원의 민족문제에 대한 관점과 원칙이다. 즉 이것은 애국주의와 결합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관점과 원칙인 것이다. 각국 인민대중의 진정한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모순되는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히 련결되는것이다. 모택동동지는 항일전쟁 시기에 이렇게 썼었다. 「우리에게 대하여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는 밀접히 결합되고 있으며 우리의 구호는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자를 반대하기 위하여 싸우자는 것이다.」「애국주의는 민족혁명전쟁중에 있어서 국제주의의 실시이다.」 이런

말은 우리의 오늘날의 진정을 애국적인 혁명 전쟁과 완전히 적합되는것이다。

레닌은 애국주의를 허다한 세기와 수천년래 분활된 국가의 가장 심오한 감정의 표현의 하나이라고 평가하였다。

진정한 애국주의는 수천년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자기조국、자기인민、자기언어、문자 및 자기민족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열렬한 애정이다。이런 애국주의는 자고자대하며 협량(狹量)하는 그런 배외목적 부르죠아민족주의의 및 그런 락후를 반영하는 가장(家長)제적、소농적、협애한 폐문주의、고립사상、종파주의、지방주의등 민족편견과는 완전히 모순되는것이다。진정한 애국주의는 기타 민족의 평등을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세계인류의 우수한 리상이 자기국내에서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각국인민의 친밀한 단결을 주장하는 것이다。그러나 반동적 부르죠아민족주의는 각국엔민 상호간의 적대시와 증오를 선동하는것이며 동시에 락후한 가장제의 민족편견과같이 자기민족을 세계와 격리시키며 자기민족을 편견의 좁은 한계내에 얽매이게하는바 이런 모든것을 우리들이 견결히 반대하여야 할것이다。위에 말한 이것은 우리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부르죠아민족주의에 대하여 대략 해석한것이다。지금 우리당내와 당외를 막론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부르죠아 민족주의에 대하여 모두 오해와 모호한 관점들이 많이 있다。더우기 파시스트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극히 반동적인 기만선전을 하고있다。이런 오해와 모호한 관점을 만약 깨끗이 쓸어버리지 않는다면 또한 이런 파시즘의 선전을 만약 폭로하지 않는다면 목전 중국의 인민해방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줄것이다。본문의 발표는 이러한 오해와 모호한 관점을 깨끗이 쓸어버리며 파시즘의 선전을 폭로하는 노력중에 있어서 도움이 있으리라고 믿는다。이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다。

(一九四八년十一월一일)

(一九四九년六월七—九일 「프라우다」지)

부르죠아 도덕과 사회주의 도덕

프 슈 뜨 니 꼬 브

륜리 또는 도덕—그것은 인간과 사회간 및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들의 행동형식을 규정하는 품행규칙이다。 도덕의 규범(規範)은 일상생활조건、사람들의 공동체、종족、가족에 대한 관계와 공동로동 과정에서의 개인 상호간의 관계에서 장성한다。그런 관계들이 점차적으로 고정되어 사회적 도덕으로 되었다。사회가 계급들로 분렬됨에 따라 도덕도 계급적인것으로 된다。각이한 계급에는 각이한 도덕적 관념이 존재한다。

엥겔쓰는 자본주의 사회내에 존재하는 도덕에 대하여 말하면서 봉건시대로부터 보존된 도덕、부르죠아도덕、프로레타리아도덕의 세가지 종류의 도덕을 지적하였다。여기에서 그는「만약 현대 사회에서의 봉건귀족、부르죠아지 및 프로레타리아트의 세 계급이 각각 자기의 독특한 도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은 구경(究竟)에 있어서는 그들의 계급적 지위가 의거하고 있는 실천적 태도로부터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도덕적 견해를 끄집어낸다는 결론까지도 내릴수있다」고 제시하였다。

례를 들면 노예주는 노예를 죽이는것을 완전한 도덕적 행동이라고 간주하였으며 귀족은 사람들이 그에게 언제나 무보수로 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자본가는 사유재산을 보전하고 리윤을 내는것은 모두 도덕적이라고 간주하였다。부르죠아 도덕의 기초에는 근로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돈벌이하고 자본을 축적하려는 갈망이 놓여있다。

도덕문제도 사회생활의 기타 문제와같이 사회발전 법칙에 관한 진정한 과학인 사적유물론의 발생과 함께 비로소 견고한 과학적 지반에 서게되었다。사적 유물론의 견지에 설때 도덕에 대한 유심론적 견해의 무근거성이 확증되는 것이다。

착취계급의 관념론자들은, 과거와같이 지금에 있어서도 사람의 도덕적 견해를 「신령」이 내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에서 도덕을 끌어내든가 그렇지않으면 최초부터 인간의 「령혼」내에 존재하는듯한 독특한 감정에서 도덕을 끌어내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어느때에 있어서나 모든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선(善)이며 무엇이 악(惡)인가에 대한 동일한 관념이 있었으며 또 있을것이며 따라서 도덕은 영원불변인것같이 꾸며내고 있다。 이러한 론의의 계급적 의의는 부르죠아지가 자기의 도덕의 진정한 략탈적 본성을 감추고 근로자들을 혁명적 투쟁에서 리탈시키려는데 있는것이다。

맑쓰—레닌주의의 고전학자들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와 같이 도덕을 형이상학적으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취급한다。

그들은 도덕이 사회의식의 한 형식이라는 것과 모든 종류의 사회적 견해、 정치적 리론、 종교적 관념 및 도덕적 원칙을 「령혼」의 신비적 특성이나、 「신」의 명령이나、 지성(智性)의 특수성으로써 해석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모든 비과학적인 도덕리론과는 반대로 맑쓰—레닌주의의 고전학자들은 생활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각이한 계급에는 인간의 행동규칙에 대한 각이한 견해가 형성된다는 규정을 창설하였다。 그러므로 일단 영구히 부여된 도덕、 모든 사람에게 어느때든지 유용한 공인된 도덕이라는것은 없었고 또 있을수 없는것이다。 각이한 시대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각이한 관념과 판단이 존재한다。 그뿐만아니라 동일한 시대 내에서도 대립된 사회적 계급의 도덕적 견해는 대립된다。

부르죠아자는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된 낡은 봉전적 도덕을 파괴하면서 자기의 도덕—「적라라(赤裸裸)한 현금주의」를 위하여 종전의 모든 도덕규범을 배척하였고 또 자기의 협소한 계급적、 탐욕적 리익、 자기의 「돈주머니」를 반대하는 새로운 도덕적 견해와 투쟁하였다。

봉전도덕은 부르죠아도덕과 바뀌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자나 후자나 다 같이 착취적 성격을 떠고있다。 그들은 착취사회의 도덕의 각이한 류형(類型)인것이다。 맑쓰는 계급사회에 있어서의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말하였다。 쏘베트국가의 로동자와 농민들이 공산당의 지도하에 부르죠아정권을 전복시켰을때 부르죠아 도덕도 청산되었다。

쏘베트인민들은 착취를 모르는 새로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쏘베트인민들은 착취사회의 도덕의 모든 류형(類型)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공산주의적 도덕을 창조하였으며 이들은 발전 강화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르죠아 도덕으로부터 쏘베트적 공산주의 도덕으로의 이행(移行)은 쏘베트인민의 도덕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 비약이었다。

공청 제三차 대회에서의 자기연설에서 브·이·레닌은 승려(僧侶)、 지주、 부르죠아들이 도덕을 신의 명령에서 끌어왔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인간을 떠나고 계급을 떠난 개념에서 취해온 그러한 온갖 도덕을 거부한다。 우리는 그것이 기만이고 그것이 사기이며 지주와 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리지(理智)를 깨뜨리는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리익에 완전히 복종된것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도덕은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에서 나오는 것이다。」 (레닌전집 三〇권 四一〇페지)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로작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서 다른 모든 사회의식 형태와 같이 도덕을 전형적으로 특징지었다。 쓰딸린동지는 사회의 정신생활 형성의 원천과 사회적 사상、 사회적 리론、 정치적 견해의 발생원천을 그 사상、 리론、 견해자체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그 사상、 리론、 견해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사회적 실재에서 찾아야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의식의 역활을 명백히 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왜 사회주의의 승리와 함께 새 의식과 이전 모든 사회기구의 인간도덕보다 한량없이 우월한 새 도덕을 가진 새 인간이 창조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 × ×

부르죠아 사회내에서의 지배적인 도덕은 사유(私有)에 의거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부르죠아 도덕은 기생(寄生)하는 계급의 리익을 보호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에게 사유적 심리를 교양하며 착취와 불평등、 압박과 노예제도를 신성화할 사명을 가졌다。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르죠아 사회는 「네가 남을 략탈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이 너를 략탈하거나、 네가 남을 위하여 일하거나 남이 너를 위

하여 일하거나, 비가 노예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가 노예이거나 한다는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어머니의 젖과 함께 노예주이거나 노예이거나, 소자산가이거나 소고용인이거나, 소관리이거나, 소사무원이거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만 자기의 리익만 채우며고 애쓰며 타인을 돌보지않는 그런 심리, 습관, 인식을 받았다고 말할수 있는것이 명백하다。」

(레닌 전집 三〇권 四一二페지)

부르죠아 도덕은 허위와 위선(僞善)에 립각하여 있으며 실제에 근로인민의 등에 업히어 생활하는 협소한 그룹의 인각들의 계급적 목적을 은폐함에 립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르죠아 도덕은 사유제도를 신성화한다。 그러나 부르죠아지에게 유익한 때에는 그들은 「지상행복의 공허」에 대하여 전도(傳道)하면서 그들이 마치 「선」, 「정의」, 「평등」, 「자유」 등등을 무엇보다도 더 높이 내거는듯이 관정한다。 가끔 부르죠아 도덕가들은 부르죠아지의 협소하고 리기적인 계급적 목적을 추구(追求)하면서 고상한 도덕적 원칙을 위선적으로 전도함으로써 자기들의 탐랄적인 야수적 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술한 개념들로써 흉계를 날조한다。 현대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도덕과 인도주의를 조소하고 있다。

미국의 부르죠아 출판물에 있어서 재산이 공민의 생명과 자유보다는 경하다고 쓴것을 매우 가끔 읽을수있다。 그러나 사실은 부르죠아지는 사유재산, 리윤의 갈망, 리득의 추궁을 바로 첫자리에 놓는다。 유·엔총회에서 위신쓰끼동지가 인용한 전쟁년간에 있어서의 미국 재벌들의 놀탈만한 리윤 성장에 관한 자료—전쟁五년간의 五백二十억 딸라와 전쟁 직전 五년간의 一백五十三억 딸라를 비교하면—가 전쟁방화자들의 인간증오적 도덕이 어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를 보다며 잘 보여주며 보다더 잘 설명하고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생활에 있어서는 부패한 부르죠아 정기 출판물들이 떠드는 「자유」란 약한자를 강압하는 강한자의 「자유」이며 부자가 빈자를 예하여 기생하는 계급의 리윤과 자치를 보장키 위하여 빈자들이 그의 얼굴에 땀 흘릴것을 강요하는 부자의 「자유」인것이다。 미덕(美德)의 위선적 부르죠아적 전도를 자본주의 제도의 야수적 정책과 대비할때 자기동포들의 특성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말할 때는 속이고 그들이 칠독할 때는 훔친다」라고 지적한 미국 상원 의원 웨스트몰 회상하는것이 가당할 것이다。

부르죠아 도덕은 자본주의 세계의 법칙과 같이

근로자들의 모든 적실한 욕망에 크게 대립된다。 례를 들면 다수의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부르죠아도덕과 헌법은 민족과 인종여하를 불문하고 인간의 평등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착취계급은 사람들 사이의 민족적 및 인종적 불화를 선동하는데 자기의 도덕과 립법을 복종시키고 있다。 그들은 민족과 인종이 다른 로동자들을 서로 추겨대어 계급적 모순의 불상용성(不相容性)을 호도(糊塗)하기 위하여 호상투쟁을 격심케하며 그럼으로써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혁명적 투쟁으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기에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흑인의 무권리 상태는 평등에 대한 부르죠아적 전도의 허위성의 명확한 실례인 것이다。 미국 부르죠아지는 흑인이 백인들의 좌중에 앉는것과 백인영화관 및 식당에 출입하는것이 금지되어있는것을 완전히 도덕적이라고 간주한다。 부르죠아지는 흑인아이들이 유원지(遊園地)산보를 「감행」하면 그들을 보도(步道)로 내쫓는 습관을 배인 청년 남녀들에게 유년시대부터 가르쳐준다。 흑인에게 대한 사형(私刑), 당국의 방임과 고무하에서 실시되는 조직적 살인은 미국에서 민족과 인종여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유」이고 「평등」이라는 위선적 전도가 모순됨이 없이 공존(共存)하고 있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부르죠아적 전도의 허위적이며 위선적인 이런 성질은 현대의 대영제국 및 기타의 자본주의 제국에서도 볼수 있다。 영국에 있어서 한 민족을 딴 민족과 싸움을 부치고 그들사이에 불화를 선동하는 것은 벌써 그들의 전통으로 되어있다。 이점에 관하여 팔레스치나문제에 있어서의 대영제국의 정책은 특징적인 실례인 것이다。 영국인들은 유태인민과 아라비야 인민을 손쉽게 종속시키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투쟁을 선동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리익여하에 따라 한때는 유태인을 방조하고 다른때에 가서는 아라비야인을 방조하였다。 멸망의 운명에 빠진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의 야수적 도덕은 이러한것이다。

반동계급은 진정한 애국주의자와는 인연이 멀다는 것은 력자가 증명하고 있다。 부르죠아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들은 침략전쟁을 선동하기 위한 자기들의 목적에 인민대중의 애국적 지향을 리용하면서 인민대중의 민족적 감정을 현혹케 한뿐이다。

대자본가들은 자기들의 탐욕적 미익을 위하여서는 조국에 반역하기를 서슴치 않는다。 一九四〇년에 페탄 및 라발도당이 불란서를 히틀러 발밑에 밀어넣어 민족적 리익을 배반한 사실은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즉 그는 영국과 이태리, 불란서와 백이의 및 기타 다수 국가의 지배 그룹들이 자기 인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황당무계한 「원조」의 댓가로 그들의 민족적 독립의 거부를 강요하며 서구라파를 경제적으로 예속화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소위 「마샬안」을 접수하고 있는데서 볼수있다.

모리쓰·또레즈는 현대 불란서 부르죠아의 반애국주의를 고려하면서 불란서공산당 제十一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르죠아지는 이제는 「인민전선보다 히틀러가 더 낫다」라고 말하였고 오늘에는 「우리의 리윤만 보장된다면 불란서는 멸망하여도 무방하다」라고 외친다」

부르죠아 도덕은 자기 나라의 번영에로 지향된것이 아니라 기생하는 계급의 부(富)를 보호하고 확대하는데 지향된것이다.

현대 부르죠아 도덕을 특징짓는데는 최근 미국사법성 어떤 관리가 대단히 의미깊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二十一초마다 중대한 범죄사건이 일어나고 四十四분마다 살인사건, 九분마다 강탈, 백초마다는 강도사건이 일어난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자본주의국가 미국과 그의 부패한 도덕에는 아주 합법적인 것이며 또 완전히 설명할수 있는것이다.

자본주의 제도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생산수단의 사유는 사회내에서의 불상용적 모순을 발생시킨다. 개인주의와 그의 극단한 표현인 리기주의는 부르죠아사회를 가혹한 전장(戰場)으로 전화시키는 부르죠아 도덕의 전형적 특징인 것이다. 「사람은 사람에게 승냥이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고 신(神)은 모두를 위한다.」 이런것이 부르죠아 도덕의 리기주의적 기본원칙인 것이다.

팟쇼독일의 학교에서 한때에는 「거미는 파리를 잡아 무자비하게 빨아먹고 새는 거미를 잡아 삼키고 매(鷹)는 새를 잡아 뜯고 여우는 매를 잡아 먹고 개는 여우를 죽인다」는 동물계의 생활을 인증하여 약한 자에 대한 강한 자의 권리를 설교하였다. 설교하는 도중에 「승리한 자는 패배한 자보다 강하니까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뒤를 이어 교원은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다. 더 약한자를 물어뜯는 더 강한 자의 권리이다」라고 결론지었다. 학과가 끝나자 청년들은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가 폐허로 되며면 되라! 우리는 더 전진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 모양으로 팟쇼 도덕은 독일인들을 어렸을 때부터 포행, 략탈, 강간에로 의범죄적 취미에 얽

매어 놓으며 히틀러주의는 이렇게 독일청년들의 의식을 파괴하였다.

지금 청년들을 부패시키는데 있어서의 파시즘의 「월계관」은 영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흑인을 산채로 화장하는 그들의 전문가들에게, 우선 광신자(狂信者)들에게, 한손에는 칼을 들고 한손에는 성서를 든 자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종복들은 청년들 가운데서 그들의 추악한 전쟁책동과 몽상적 침략계획의 야수성있고 순종스러운 집행자를 교양하여낸다.

영미국의 반동과 및 그들에게 고용된 선전자들은 미국자본주의가 평화를 구원할수 있다는 리론을 굉장히 퍼쳐놓고 있으며 그들은 세계 패권쟁취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마샬안」「서구쁠럭」의 조직, 「구라파합중국」 및 「세계정부」의 사상선전은 바로 이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미 제국주의는 자기의 제국주의적 도덕을 열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제국주의적 도덕은 자기의 수요자 (지지자)를 찾고있을따름이다.

토이기신문 「꾸드레뜨」지가 쓰기를 토이기가 이전에는 「불란서로부터 그다음에는 독일로부터 모방을 받았다고 할것같으면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사람처럼 입으며, 미국사람처럼 다니며, 미국사람처럼 발을 책상위에 걸치고 앉으며, 미국사람처럼 인사하며,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무엇이나 미국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 제국주의를 선두로한 현대 부르죠아는 근로자를 타락시키며 로동계급을 사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이 자기의 력량을 믿지 않게 하는 해독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충동시키며 자기계급의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 리탈시키기 위하여서는 어떤 수단이든지 리용한다. 자본가들은 정력을 다하여 현존질서와 관계를 유지하려하며 력사적으로 멸망을 면치못할 자본주의를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브·이·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성하며 강화되는 프로레타리아트에 대한 공포때문에 부르죠아가 모든 락후한것, 사멸되어가는것, 중세기적인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력사적 순간이 문명하고 선진한 구라파에 닥쳐왔다. 죽어가고 있는 부르죠아지는 동요하고 있는 노예 매매 제도를 유지하려고 이미 죽고 또 죽어가고 있는 모든 력량과 결합되고 있다」(레닌전집十六권三九五페지) 그러나 제국주의적 부르죠아지는 전진하는 력사의 발전을 제지할 힘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멸망과 함께 삼대로 다 산 부르죠아 도덕도 멸망할 것이다.

× × ×

착취가 없고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는 갖은 형태가 모두 파괴된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열렬히 호소하는 공산주의 도덕은 위조적이고 타락적인 부르죠아도덕과 대치된다。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복리를 위한 각 사회성원의 로동은 공산주의 도덕의 경제적 기초인것이다。

공산주의 도덕은 벌써 자본주의 체제에서 착취자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프로레타리아트 도덕의 보다 더 높은 발전이다。이미 자본주의하의 프로레타리아트 속에서 인민에 대한 깊은 충성과 착취를 반대하는 헌신적 투쟁을 표현하는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 창조되고있다。칼・맑쓰는 자기의 혁명사업 초기에 사회운동에 가담한 로동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그들이 말하는 인간애(人間愛)는 어귀(語句)가 아니고 진리이다。그리고 로동에 시달린 얼굴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미(美)를 본다』(맑쓰전집 三권 六六一폐지)

부르죠아지가 리기주의와 개인 탐욕의 독(毒)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일반적으로 해하려는데도 불구하고 프로레타리아트 가운데는 착취제도와 투쟁하기 위하여 력량을 단결할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사유 제도가 인간을 분리시키고 서로 적대시키며 리해관계의 불상용적 적의(敵意)를 조성한다는 각성이 일어났다。고리끼는 다음같이 말하였다。『자본주의사회 즉 사람을 자기의 축재의 도구로만 보는 사회는 반(反)인간적인것이다。그것은 우리들에게 적대된다。우리는 그의 량면적이고 위선적인 도덕과 타협할수 없으며 그들이 개인에게 대할 때의 철면피성과 잔인성은 우리에게 적대된다。우리는 이런 사회에 의하여 사람이 욕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노예화되는 모든 형태를 반대하여,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없새버리려는 모든 거동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또 투쟁할것이다』(고리끼선집 二四一폐지)

맑쓰—레닌주의의 고전학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전체 선진적 인간의 리익에 부합하는 진정한 도덕의 소유자라고 지적한다。프로레타리아 도덕은 착취제도를 파괴하고 새 공산주의 사회를 창조하는 리익에 복종되였다。

一九二〇년十월二일 공청 제三차 대회에서의 브・이・레닌의 연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 도덕의 본질이 천재적으로 분석되였다。레닌은 공산주의 도덕은 공산주의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매개인에게 헌신적 투쟁을 요구한다고 하면서『도덕—그것은 낡은 착취사회를 파괴하며 공산주의자들의 새 사회를 창조하는 프로레타리아트 주위에

전체 근로자들을 단결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었다。(레닌전집 三〇권四一一폐지)공산주의 도덕은 인류사회를 향상시키고 착취로부터 로동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무하는 것이다。공산주의 도덕의 근본에는 공산주의를 강화하고 성취하기 위한 투쟁이 놓여있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공산주의 도덕의 원칙—그것은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프로레타리아트의 요구에 의하여 발생된 과학적으로 확고한 근거를 가진 원칙이다。므・이・깔리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공산주의원칙—간단히 말하면 그것은 고상한 교양이 있는 공정한 진보적 인간의 원칙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조국애、친선、단결、우의、공정、사회주의 로동애 및 각인이 리해할수있는 기타 모든 고상한 품성이다。』(므・이・깔리닌—『공산주의적 교양에 대하여』一九四七년판 五〇폐지)

우리 사회에 있어서 공산주의 도덕의 내용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창조적 목적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그것은 우선 쏘베트 애국주의 사상속에서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에서、과거의 잔재와의 투쟁속에서 표현된다。공산주의 도덕은 사회주의사회、쏘베트국가、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근로인민의 의무와 개인에 대한 호상간의 의무를 구성한다。

공산주의 도덕은 자기조국에 대한 쏘베트인민의 애국심에서、의기를 돋구는 쏘베트 애국주의 속에서 가장 명확히 증명된다。몰로또브동지는『현재의 사상적 수준과 쏘베트인민의 정신적 장성은 현재 장성되고 있는 쏘베트 애국주의에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쏘베트애국주의는 새로운 사회 및 국가제도의 산물이며 조국을 위대하게 하려는 투쟁과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으로써 고무된 인간의 애국주의이다。쓰딸린동지는 이렇게 말하였다。『쏘베트 애국주의 속에서 인민들의 민족적 전통과 쏘련의 전체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중대한 리해관계가 조화(調和)롭게 결합되고있다。쏘베트애국주의는 쏘베트국가의 모든 민족 및 공민을 분리시키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일한 형제적인 가족으로 단결시키는 것이다』(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대하여)

그 본성에 있어서 배타적인 부르죠아 애국주의와 달라서 쏘베트 애국주의는 자기의 사회주의의 조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인민의 친선과 단결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쏘베트인민에게 고유한 애국주의속에는 마치 초점(焦点)에 빛(光)이 모이듯이 쏘베트인간을 새 세계와 새 도덕의 인간으로 특정짓는 그 모든 새로운 특정과 품성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의 불공평과 민족적 압박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제조전하에서 존재할수 있는 그러한 고상한 애국주의적 감정과 도덕적 품성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국가의 진보적 인간의 조국애는 노예주에 대한 근로대중의 분노감과 로써야 통치계급에 대한 증오 멸시와 결합되었다.

공산주의 도덕에 의하여 교양된 쏘베트 인민들은 진실하게 그리고 무한하게 자기들의 사회주의 조국, 자기들의 사회주의 제도, 참으로 인민적인 자기들의 정부 및 위대한 레닌—쓰딸린당을 사랑하고 있다. 쏘베트 애국주의는 적극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그것은 쏘베트국가의 륭성과 부강에로 지향된 애국적 활약과 행동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우리생활의 전 령역에 있어서의 쏘베트 인민들의 대중적 영웅주의는 바로 이것에 의하여 설명된다. 조국전쟁시기에 적들이 쏘베트인민을 노예화할 위협을 쏘베트 인민에게 주었을때에 쏘베트 애국자들은 인간 력사에서 일찌기 보지못하던 애국주의를 발휘하였다. 쏘베트 인민들의 비행사는 파성철퇴(破城鐵鎚) 같이 나아가고 보병은 적의 또찌까에 자기의 육체로 포문(砲門)을 막고 장갑전차는 독일정예(精銳) 전차 「호랑이」 「표범」 자동포 「펠디난드」를 정면으로 사격하였다. 쏘베트국가의 수백만 청년 남녀, 공청맹원들은 위대한 조국전쟁 당시에 싸웃터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꼴호즈의 논밭에서 쏘베트 조국의 존엄과 자유와 독립을 방어하였다.

쏘베트청년들은 알렉싼드르·마뜨로쏘브, 조야·꼬스모제미얀스까야, 그라스노돈등의 젊은 영웅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대한 기억을 자기들의 가슴속 깊이 신성하게 품고있다. 청년들은 그들 속에서 조국에 대한 헌신적 봉사의 모범과 자기의 리상과 정신적 충동을 본다.

모든 사상과 사업으로써 조국에 복무할것, 쏘베트인민의 복리에 꾸준히 복무할것, 공산주의 건설자의 선봉이 될것—이런것이 젊은 쏘베트 애국자의 사상이며 또 생활목표인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영화 「병사 마뜨로쏘브」의 크라이막스가 말하여 준다.

「그 병사는 열아홉살 입니까?」

「예! 열아홉살입니다. 쓰딸린동지!」—총사령은 자기의 한 병사의 공훈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듣고 있다. 우리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떠오르는것을 본다. 그는 전투에서 잃은 자기 병사를 이렇게도 아낀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용감과 충성과 청년의 순결한 심장을 자랑삼고 있다.

「이 청년들은 인류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옵

니다—쓰딸린동지가 말한다— 이것은 쏘베트인민의 새로운 세대이며 공산주의를 위한 사상적 투사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영웅적인 인민의 기억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애정은 인민을 압박하며 노예화하려는 반동의 흉계, 진보와 문명과 민주를 반대하는 적들에게 대한 신성한 증오감이 쏘베트 애국자들의 가슴속에 발현된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맺어진 동지들과 전세계의 소박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본질에 대하여 경의를 드린다. 그러나, 「적과 적에 투항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증오감을 식히지 말라! 그리고 수백만인의 피로써 모아들인 리윤에 만족할줄 모르는 자들, 전쟁에 시달린 인류에게 또다시 새 전쟁을 가져오려고 광분 망동하는 자들, 사람이 말로써는 무엇이라고 이름지을수 없는 그 자들에 대하여 증오감이 십배나 되는 노염(怒焰)과 함께 우리가슴속에서 끓어 넘치게하라!……그들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들이 원자폭탄제조와 무서운 새 전쟁준비에 수십억 딸라를 아끼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대한 우리들의 끓임없는 증오감도 살아있게 하라! 그것은 필요한 순간에 유용(有用)할 것이다」(느·숄로호브 저 「조국에 대한 말」)

로동과 사회적 소유 그리고 개인적 리익과 전체 인민의 리익에 대한 태도, 착취 쏘베트인민에게 대한 쏘베트인민의 새로운—착취사회에는 없은 —태도는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표현중의 하나인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조건 밑에서의 로동은 고달프고 강제적이며 그의 산품은 제작한 자의 것이 아니며 착취하는자의 것으로 된다. 로동하는 자는 언제나 기아와 실업의 위협을 받으며 그들은 결코 래일을 믿지못한다. 로동자에 대한 지배계급의 전횡(專橫)과 조소는 「…속여서라도 착취를 벗어나야 하겠다. 곤난을 탈출하여야 하겠다. 잠시라도 하기 싫은 로동을 면하여야 하겠다. 굶주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와 가족들이 빼고픔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어떠한 댓가로든지 한조각의 빵일찌라도 떼내야 하겠다」는 열망을 그들에게 불가피적으로 일으키게한다 (레닌전집二二권一六四페지)

우리는 근로자들 자신이 자기의 생활과 물질적 복리의 주인이 되고있는 사회주의 사회의 인간들— 쏘베트 사람들이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하여 전혀 딴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사상으로써 고무된 쏘베트 인민들은 로동 가운데서 생계의 원천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창조적 령감의 원천까지도 발견한다。 프·그라드꼬브의 단편「맹세」에서 로동자「사모노브」가 이렇게 말하였다。「나는 나의 제작기(製作機)를 사랑한다。 나는 물건을 훌륭하게 만들기를 좋아한다。 즉 그 물건들이 내손에서 마치 예술작품 같이 잘 놓게 만들기를—내가 만든 그 물건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선반에 깎은 쇳덩이가 아니라 나의 열정의 일부이며, 나의 사랑이며, 잠못잔 밤의 나의 탐색(探索)이라는 의식이 나에게는 이상없는 즐거움이다」

쏘베트인민의 로동에 대한 이런 태도는 로동이 그들에게 다만 의무적인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욕구(欲求)로까지 되고·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력사에 처음인 쏘베트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로동의 령역은 인간의 도덕적 력량과 공동작업에 대한 그의 신뢰성 조국의 경제 및 문화를 개인의 노력으로 향상시키려는 그의 지향(志向)이 널리 전개되고있는 활무대로 되어있다。 쏘베트국가에서는 자본주의 밑에서 무거운 짐이였던 로동이 영예로운 일로, 영광스러운 일로, 용감하고 영웅다운 일로 전환하였다。 쏘베트국가에 있어서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모든 태만적 태도는 도덕적 책망을 받게된다。 국가재산을 좀먹고 살아가는 건달뱅이 방탕한 무리들은 쏘베트인민 전체의 멸시를 받는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로동영웅과 쏘베트 영웅들은 높이 존경을 받으며 전체 인민은 그들로부터 모범을 받으며 그들을 모방하며 그들을 존중히 여긴다。

쏘베트 나라에서는 누구나 남의 등에 업히어 살수 없고 누구나 비법적으로 로동을 회피할수 없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지시하고 있다。 「간혹 말하기를 만일 사회주의라면 또 무슨까닭에 일하여야 할까?고 한다。 이전에도 일하였고 지금에도 일하는것이니—이제는 일하는것을 그만둘때가 아닐까!라고 한다。 동무들, 이러한 말은 근본적으로 옳지 못하다。 이것은 게으른 자들의 철학이지 정직한 근로자들의 철학은 아니다。 사회주의는 결코 로동을 부정하지 않는다。 도리어 사회주의는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사회주의와 로동은 서로 갈라놓을수 없다。」(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四一八페지)

「겸손」한 그리고「사소」한 로동이 실제에 있어서 위대한 로동이며 력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적 로동인 것이다。 사회주의적 로동에서 인간품성의 새 특징이 생기며 사회에 대한 의식적 태도와 인간상호의 협동적 태도가 육성된다。 쏘베트 인민은 단지 자기의 개인로동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위력을 증대시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할것을 요구한다。 그는 태만 및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와 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깊은 특징을 보지않으면 안된다。

쏘베트 국가에서 광범히 전개되는 사회주의경쟁—사회주의건설의 공산주의적 방법이라고 쓰딸린동지가 규정한 사회주의 경쟁은 로동에 대한 의식적 관계의 명백한 표현인 것이다。 우리의 실지 조건에 있어서 모든 의식적인 공민은 선구자의 수준까지 따라가며 락후한 자를 원조하기에 노력한다。 그것은 공산주의 도덕으로 교양된 쏘베트 사람이 다른 일군들 가운데서 자기의 경쟁자나 적을 보는것이 아니고 동지와 친우를 보며, 전체 인민의 리익에 대한 옹호자를 보기 때문이다。 쏘베트 인민은 사회주의 경쟁의 방법을 리용하여 거대한 사업상 성과를 쟁취하고 있다。 전후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수백 수천의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은 벌써 三—四년간의 표준량을 완수하였다。 전반 기업체들은 자기들의 생산계획을 기한 내에 완수하고 있다。

쏘베트 인민들은 사회주의 사회가 부강하게될수록, 경제 및 문화가 발전될수록 그들의 개인의 물질적, 정신적 복리도 향상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쏘베트 인민은 개인주의를 모른다。 그들은 대중을 위하여 일하며 그 가운데서 자기의 고상한 도덕적 만족을 발견한다。 쏘베트인민은 새 사회는 전체 근로인민의 력량을 단결함으로써만 건설할수 있다는 것과 개인의 행복은 각각 전 사회의 복리에 의존하여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쓰따하노브 운동자들은 생산률을 더욱 높일수록 그에 따라 그의 임금이 현저히 증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 리해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렇다고 하여 그들이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의 주요한 의도는 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려는데 지향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의 리익에 대하여 배려(配慮)하며 이 배려가 그들 선진적 인간을 로동에 있어서의 공적과 창조에로 격려한다。 그들중의 매 개인의 운명이 전체 쏘베트 사회주의 사회와 밀접히 련결되어 있는 만큼 공공사업에 대한 쏘베트 인민의 이런 태도는 완전히 자연적이며 합법적인 것이다。

브·이·레닌은 전체 인민을 위한 의식적이며 진실한 로동만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수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대중적 리익을 무시하는 자는 비참할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불행한 자이다。 이 반면에 자기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 공산주의 사업을 위한 투사들은 자기들이 무익하게 살지않는다는것과 그것

이 자기의 실지적 행복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개인 리익과 인민적 리익과의 결합은 공산주의 도덕의 중요한 표현이다。 공산주의 도덕에 의한 쏘베트 인민의 교양、특히 청년들의 교양이 없이는 공산주의에로의 금후의 전진 운동은 생각조차 할수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적 리상 속에서 쏘베트 인민과 그의 젊은 세대(世代)는 생활과 투쟁과 로동에 대한 강렬한 자극을 받는다。 쏘베트 청년의 도덕의 근본에는 고상한 사상성과 자기들의 전반 사업의 승리에 대한 깊은 신뢰(信頼)가 놓여있다。 쏘베트 청년 남녀의 사상과 감정、품행과 행동은 사회적 의무의 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一九四四년에 용감한 최후를 마친 쏘베트 처녀 쏘베트 영웅 에브게니야·루드네와는 자기의 일지에 다음같이 썼다。

「나는 나의 일생을 과학에 바치고 싶다。 이렇게 할것이다。 쏘베트정권은 아무리 대담한 몽상일찌언정 매 개인이 그 몽상을 실현할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공청원인만큼 일반사업은 개인적 사업보다 더 귀중하다。 (즉 나는 내 직업을 이렇게 검토한다) 그리고 당、로동계급이 요구한다면 나는 천문학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명사로、간호병으로、독와사 방지병으로 되겠다」또 다른 쏘베트 처녀 반 팟쇼전쟁에서 전사한 소녀 빨찌산 인나·꼰쓰딴찌노브나도 「우리의 시대는 아름답다。 영웅성과 대담성에 차있다。 결음마다 공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적인 것은 뒤로 물러갔다。 그것은 조국의 운명같이 중한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쓰딸린그라드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그때에 七층 건물의 五층까지 무너질때 쏘베트병사 끼르기즈인 우라잘리예브는 도저히 잊을수 없는 말을 내던졌다。「거리도…집도…돌도 기진맥진 해가것만、그때도 우리의 투지는 생생하다」。

에브게니야·루드네와、인나·꼰쓰딴찌노브나 및 쏘베트병사 우라잘리예브는 물론 우수한 인간들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쏘베트 국가의 청년대중에 있어서 례외적 존재라는것은 아니다。 전투에 있어서나 로동에 있어서나 언제든지 공훈을 이룰데 대한 일상적 각오는 사회주의 사회의 청년남녀의 압도적 다수의 의식속에 살았으며 또 살고 있다。 스다노브동지는 다음같이 말하였다。「쏘베트의 젊은 세대 앞에는 사회주의 쏘베트제도의 력량과 위력을 강화시킬것과 우리의 행복과 문화의 일찌기 보지못하던 새로운 개화(開花)를 위한 쏘

베트사회의 추진을 완전히 리용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이런 위대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젊은 세대들은 응당히 견인불발하고、백절불굴하고、방해를 겁내지않고、도리어 그런 방해를 과감히 받아들이고、그것을 극복할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교양되지 않으면 안된다。 쏘베트인민은 응당히 교양이 있고 고상한 사상이 있고 높은 학식과 고상한 도덕적 요구 및 취미를 가져야 한다。

과거의 잔재는 새로운 도덕적 품성으로 인간을 교양하는데 반대된다。

인간의 의식에 있는 자본주의 잔재는 쏘베트 인민생활의 각이한 령역 내에서 각이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공업、운수、농업、과학 및 문화는 급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그런 령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봉적 인간들은 자기의 조국을 보다더 위대하게、보다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시에 우리들은 때때로 무사상성、보수주의、태만의 정신으로 관철된 사람들을 본다。 흔히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모든것을 멸시하며 낡은것에 매달리며、사멸하여가는것에 매달리며、동시에 더 앞으로의 전진에 방해를 끼치는것들이다。

외국의 것에 머리를 숙이며 부패하여가는 부르죠아 문화를 숭배하는 것은 일부 락후한 인텔리겐챠들의 의식속에 있는 가장 해로운 낡은 잔재인 것이다。 그런사람들은 부르죠아적인 서구라파에 머리를 숙이면서 전세계에서 새롭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사회와 진정한 인류의 과학 및 문화를 창조한 자유로운 쏘베트 인민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침묵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부르죠아 서구라파와 미국이 쏘베트조국과 진보적인 쏘베트문화보다 한 력사적 시대를 떨어졌다는 것을 잊고 있다。 외국의 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굴종하는 것은 쏘베트 인민의 민족적 자랑에 상당치 않으며 쏘베트 도덕과는 인연이 먼것이다。

× × ×

쏘베트 국가가 공산주의로 부단히 전진함에 따라 공산주의 도덕은 점점 더 널리 대중의 소유로 된다。 그것은 쏘베트 인민을 영웅적 사업과 로동의 공훈에로 고무하는 강한 힘인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고상하게 하며 그의 의식에서 모든 천한 본능과 낡은 도덕의 잔재를 구축하며 쏘베트 인민의 일상생활에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규칙을 부식한다。

공산당원과 레닌공청동맹원들은 전체 쏘베트인민에게 고상한 도덕적 품성의 모범이 된다。 류혈적 전투의 가장 결정적 순간에 전선에 있어서 종

종「공산당원과 공청원들이여!앞으로!」라는 호소가 울리였다。그리하여 당의 충실한 아들들과 조국의 영예로운 애국자들은 궐기하여 전체 전사들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이면서 화염의 선풍을 뚫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지금은 평화적 조건 밑에서 공산당원들과 공청맹원들은 헌신적인 로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위대한 사회주의 창국의 군사경제의 힘을 강화하는데 대한 부단적 배려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쏘베트 인민은 공산주의의 위대한 수령 레닌—쓰딸린에게서 공산주의 도덕을 배운다。그들께서 용감성과 투쟁에서의 대담성을 배우며 곤난을 극복하는데서의 완강성과 자기 인민에게 대한 충실성、및 모든 적들에게 대한 증오심을 배운다。

（「몰로도이 볼쉐위끼」一九四九년 제三호에서）

미제국주의는 인민의 자주권을 위협한다

에·교로빈

제국주의국가는 본질상 타인민과 타국가의 자주권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침해한다。 제국주의분자들은 독점자본가의 리해에 맞추어 끊임없이 여러가지 형식을 적용하면서 타인민을 구속하려고 한다。 즉 불평등적 조약、보호권、세력범위、조계(租界)、조차、차관、위임통치、기타 수단이다。

제一차세계대전 당시에 레닌은 제국주의가 심지어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고 있는 자주적 국가까지를 예속시키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제국주의는—레닌은 썼다—금융자본과 독점의 계단이며 그는 어데서나 자유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지배를 요구한다。」(「레닌전집」 二十二권 二八三페지)

제二차세계대전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에서 살지고 전세계에 대한 자기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확립할 목적으로써 로골적인 침략적 정책방침을 취하였다。북미합중국의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총 지도되고 있는 이 반동의 행진은 인민과、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끊임없이 교살하며하며 그의 민족적 자주권을 압박 구속 혹은 숙청하려는 각종 각양의 기도를 국제무대에서 나타낸다。「투루맨 교서」와「마샬안」은 노예적인 조약의 체결과 미국간섭을 실현함과 관련되면서—회탑、중국、조선에서는 공공연하게、인도네시야와 기타 국가에서는 은폐되어—독일의 분활(「련방화」)、라틴·아메리카와 서구라파에서 정부의 경질과 워싱톤 지령에 의한 그의 성원의 변경、타국령토에 백여개의 미국 군사기지 창설、근동 및 중동에 대한「미국차관」과「고문관(顧問官)」、미국「원자외교」、유·엔에서와 기타 국제적 기관에서의 미국독재—이 모든것이 주지하는바의 사실이며 자명한것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 팽창정책의 각종 형식은「마샬화」한 국가에 미국상품의 강제적 침입과 그 국가의 인민경제를 북미합중국의 산업과 시장의 수요 및 요구에 순응시키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그것으로써 독립적 존재의 외견까지 없는 미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지배에 복종하는 속국으로

되게 하는것이다。

월가에서 위임받은 여러국가에서 전능한 미국·「전권위원(全權委員)」과「고문관」들은 그 국가들의 정부의 부서를 정하며 그의 국가적 재정을 통제하며 그의 군대를 재 편성하며 그의 무장을 미국식으로 규격화하는것이다。

미국의 딸라와 비행기 전차가 돌진함과 병행하여 민족적 및 국가적 자주권 원칙에 대한 사상적 공격이 전개되는바 그는 자본주의 미국을 주인처럼 또는 그 미족들을 미국의 종복으로 되게하는것이다。

영국 가짜 사회주의자 대신(大臣) 베빈과 맥크트날드는 자주권은「진부(陳腐)」하고「유해」하다는 개념을 주창하며。 백이의(白耳義) 대신 우익사회주의자 스빠크는 자주권은「사상적 조류(潮流)에서 매우 낡은것」이라고 언명하며、불란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의 지도자 레온·불룸은「평화의 보적을 위하여」「부분적으로 자기민족적 자주권을」 거절할것을 요구하며 독일 슈마헬배들과 오지리 렌네르배들은 민족적 국가는—「극히、낡은」사상이며 민족적 국가의 기초는「기술의 진보로서 뒤집어진다」는데 대하여 확신하면서—이 제씨(諸氏)들은 호상 경쟁적으로 영 미제국주의자들의 주문(注文)을 실행하고 있다。

정객들을 원조하기위하여 영 미 사회학자、철학가、법률가들은 조급히 서둔다。

영국 레이버당의「리론가」그·라스낀은 민족적 자주권을 거부할것을 호소한다。 또마스 혹은 필리흐와같은 미국철학가들은 타국의 내정문제에 북미합중국이 간섭할것을 정당화하면서 인류의「정신적 통일」을 요구한다。 하바드대학 교수 르·뻬르리는「민족적 국가는 자기의 편자적 우연성을 대표한다」는데 대하여 그를 신임하기에 준비된 모든 사람들을 확신시키려한다。 국제법에 대한 미국교수 이글리톤은「자주권의 점차적 제한」법을「발명」해 냈으며 그리고 다른 미국 법률가 츠·낌볼은 어떤 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한 강제적 간섭을 허용할것을 제의하였다。

북미합중국의 지도적 법학기관지「아메리칸·죠르넬 오프·인터나쇼날·로우」는 매호마다「인류의 영예와 행복을 위하여」즉 미국독점자본가들의 리해의 영예를 위하여 자주권을 구속할것을 설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잡지의 근년(近年)의 기본적 론문들이 극히 특징적인것이다。 즉「전후계획과 자주권의 제한」、「전세계 법률」、「국제적 조직내에서 법의 재 작성의 필요성」、「국제적 경찰세력」、「전세계 정부창설의 필요」가타 등이다。

민족적 자주권의 반대자들에 대하여 인용한 이상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례는 현저히 더많으며 그들은 세계주의—「세계질서」의 안전、「국제적 무질서」와의 투쟁—기타 연막속에 은폐되어가지고서 인류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마치 개별적 인민과 국가측으로부터 자주권을 반드시 거부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지도한다。 그러나 이 세계주의 은폐물은 지금에 있어서 략탈적이고도、배타적인 미제국주의의 자체의 당나귀의 귀(耳)(가면을 쓸수 없다는것—주)를 직관적으로 또는 로골적으로 로출한다。

영미자주권의 묘굴자(墓堀者)들은 팔죽 한그릇 혹은 미국「원조」의 딸라감로(甘露)를 위하여 자기 자주권을 양도하며 그것을 미제국주의의 멍에와 바꾸라고 인민들에게 호소하면서 세계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 자주권이 생명적 필수성으로 되며 인민들이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위하여 투쟁한다는 이 사실을 무시한다。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의 선두에 서는 로동계급과 그의 전위대—공산당이 인도한다。

제二차세계대전에서 세계 침략의 기본적 발원지 팟쇼가 패망됨으로써 히틀러 폭정에서 해방된 국가에서는 팟쇼적 폭군에 의하여 유린된 민족적 독립이 부후되고있다。 세계 인민들은 영 미제국주의의 리해를 위하여 민족적 자주권을 손실당함을 결코 동의할수 없으며 또 동의하지 않는것이다。

식민지 인민들은 이제는 더 제국주의의 기반하에서 살것을 원치 않으며 자기의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며 자기의 국가기관을 창설한다。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의 강유력한 장성은 민족해방의 기치를 자주권의 신념으로 화하면서 자주권을 위한 투사의 대렬에 주민들이 나선다。 팟쇼의 파괴와 노예화에서 세계문화와 인민을 구원한 위대한 쏘베트동맹이 인민의 자주권을 위한 초소에 서있다。

× × ×

인민과 국가의 자주권을 반대하며 또는 세계패권을 강요하는 미제국주의의 침략적 야욕이 표현된 국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문제중 하나로서는 —즉 국제콘페렌챠와 기타 국제적 기구내에서의 거수형식(서차)에 대한 문제이다。 유·엔에서와 파리평화콘페렌차에서 미국 쁠럭대표자들은 국제문제의 산술적 해결원칙—다수표에 의한—을 고수하였다。

최근까지 국제법의 리론과 실천에 있어서 확실히 자주 독립적 국가가 그가 동의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계할수 없다는것으로 간주되었었다。 유명한 로씨야 국제법학자 프·마르쩬스는 자기의「문명인민의 현대 국제법」이라는 과목에서 국제 회의에서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것은 소수국가에게 무조건적인 의무적 힘으로 될수 없는바「그의 힘으로서의 강제적 압박은 국가

독립원칙에 모순된다」(「문명인민의 현대 국제법」 二二九페지 一八八二년)는 견해를 국제문제 해결의 요인으로 보았다。

전후 국제콘페렌챠에서 영 미 블럭은 절대적 다수표 (미주 대륙의 공화국들의 표가 二十一, 이에 영국과 그의 자치령을 가하고 미국과 영국에 예속된 국가들을 합하여)를 점유하고 있느니만큼 「거수기」의 기계적 적용의 방법으로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미국의 견지에서 극히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국제기구에서 가짜 민주주의적 「평균제」라는 구실하에서 쏘베트 三매의 표(票)를 니까라구와 혹은 과데마라와 전반적인 형식상 평등이라고 인정하며, 의무(義務)로부터 출발된 권리의 초보적 적용조차 거부하며, 이로부터 안전보장리사회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소총회」 각종 국제위원회 (조선, 발칸, 기타 위원회)를 조서하는 방법으로서 유·엔내 대강국들의 일치가결원칙 소위 「부인권」을 우회 또는 구속하려는것과 국제적 협조를 미국지령으로서 바꾸어 놓기 위한 「거수기」(허수아비표)를 부단적으로 리용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이것으로써 인민의 의사에서가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하여 소수국가를 다수국가에 예속시키려는 형식적인 원칙을 허위적 국제법의 외형으로서 가장하고 제국주의 렬강들의 횡포와 폭력을 은폐하려는 목적을 가진 반동적인 원칙인것이다。

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부인권」을 폐지의하려는 온갖 기도는 一九四五년 산프란시스꼬 콘페렌챠로부터 시작하여 대소국가들의 권리의 형식적 평등의 원칙을 실시하기 위하여 나난 유·엔총회(一九四九년四월)에 이르기까지 련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원칙이 민주주의적 (사실은 데마적인)가면을 쓰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아 심각한 반민주주의적 원칙으로서 되었는바 이 원칙은 유·엔내부에서 전반적 평화의 보존과 침략으로 부터의 방어에 대한 의무로부터는 해방되나, 그러나 대강국들이 가지는바와 같은 권리와 특전을 가지는 소국가들의 특권적 그루빠를 조성하려는것이다。 다른 방면으로는 소(小) 자본주의국가는 사실에 있어서 대(大) 제국주의 렬강들에게 속하는 피보호자 혹은 앞잡이로 되느니만큼 그 권리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안전보장리사회 내에서의 가장 강대한 제국주의국가 즉 미국으로부터의 불가피적인 지배를 받아들이게 되며 그를 확대한다。 그런데 이것은 첫차례로 유·엔의 완전한 와해(瓦解)를 의미하게 되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이 국제기관의 위력은 그가 한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지배의 원칙위에서가 아니라 제국가들의 평

등한 권리의 원칙에 의거하는데에 있다」(이·쓰딸린)

그러므로 국제관계에 있어서 실제적 의의와 그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불구하고 이 모든 국가의 「일반화」와 「균등」의 세계주의적 간판 하에서 국제적 상투수단으로 리용되는 정치적 산술의 추상적 원칙은 실제에 있어서는 국제무대에서의 민주주의 제전(祭典)이 아니라 제국가의 국제적 협조의 질서—매 대소(大小) 인민과 국가의 법적 민족적 리해의 고려에서 국제문제 해결을 세우는 국제정책의 진정한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완전한 의곡이며 위조인 것이다。

인민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과 타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한 간섭을 위하여 미제국주의 분자들은 역시 「인류의 국제적 권리」에 대한 선동적 성명을 리용한다。 그들은 인류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쏘베트동맹과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하는바 그들은 남녀평등권, 식민지의 수억만 주민을 위한 인권, 또한 권리와 함께 자기 인민과 자기 조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의무등을 시인하기를 거절한다。 누구나 또한 무엇에 대하여서나 의무적이 아닌 「인류의 국제적 권리」를 선포하는 허무—형식적 평화규준을 광포함으로써 (인권에 관 하는 국제재판소 조직에 대한 에빗트 초안으로 부터 시작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타국가의 내정문제에 제국주의 렬강들의 고정적 간섭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써 변화시키려 강청한다。 이런 구실하에서 그들은 인민민주주의국가에서의 선거에 대한 소위 국제적 검열 (즉 첫차례로 영 미의)을 설정하며 이러한 구실로써 왜그리야 불가리야 및 기타 국가의 내정문제에 대한 국제적 간섭을 유·엔 총회에서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인류의 기본적 권리」—이러한 공간(槓杆)의 원조로써 반혁명적 망명객—자기조국에 대한 반역자—를 비호할것을 타산하고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부와 제도에 「국제적 책임」을 씌우려한다。 범죄적 활동이 인류의 권리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되는 팟쇼적 선전선동과 전쟁방화자와의 투쟁을 거부하면서 미국 위선자들은 선포된 자유 (례하면 「사고와 발언의 자유」 「보도의 접수와 광포의 자유」)를 군국주의적 및 반민주주의적 도구로, 인민을 우롱하며 기만하는 도구로, 그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및 온갖 기타 탐정적 작업을 용이케 하기위한 법적 병기고(兵器庫)로 변화시키려 노력한다。

그들은 산프란시스꼬 콘페렌챠로부터 시작하여 마치 「법성」을 강화하기 위한것처럼 유·엔의

국제 재판소의 권한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바 안전보장리사회에 대한 검열의 권리를 그 재판소에 부여하거나 혹은 그 법이 모든 국가에 의무적「협의적 결론」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것을 제기하며 또한 하등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례하면 유·엔에 가입시키는 대상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그 재판소에 양도하려고 강력히 요구한다。

그들의 예산은 단순한것이니 즉 국제재판소에 자기들이 의심없이 다수표를 보유하고 있으니 만큼 그의 견지로서는 국제법의 옹호자로서의 국제재판소의 위신을 등(背)에 지고서 미제국주의자들의 국제적 전횡(專横)과 국제적 무법행위를 은폐하려는것이다。또한(이에 다시한번!) 세계주의적 가면(재판소—「민족적 제한」과 민족적 편견기타로부터 해방된「국제적」인것—)은 현대 제국주의의 가장 반동적 배타주의적 고락지로서의 렬강국가 정책을 은폐함에 리용되는것이다。

군사 목적에 원자 에네루기야를 리용함에 대한 인류를 위하여 가장 중대한 국제통제문제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사정은 역시 중복된다。

범죄적인 원자무기의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며 원자탄 축적의 페지도 거부하면서 북미합중국 정부는 원자 에네루기야에 대한 국제적 통제안을 제출하였다(바루흐안(案)과 그의 최후 보충안)이 안(案)은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숙청함과 동시에 다만 평화적 목적에만 원자 에네루기야를 리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제통제를 설정함을 예견하는 쏘베트제안과는 구별된다。국제 원자트레스트의 창설(영 미가 다수인것이 확실하다)은 어떤 국가에든지 존재하여있는 모든 형태의 원자 원료를 관할하며 어디에서나 원자에네루기야의 리용과 수배(受配)는 자기의 국제 감독관을 통하여 검열되며 최후 계단인 즉 원자탄 제조를 제외하고서는 모든것을 다 북미합중국정부가 자기를 독점가로서 인정하자는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적(바로 말하면 미국) 원자트레스트는 미국에 한하여 부자유하게 활동되는 바의 강대국가들의 일치가결원칙이 존재하는 안전보장리사회를 피하면서 북미합중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심지어 군사적인 제재행동의 적용을 허가할것을 제의한다。

미국 론중에 의한 국제적 통제의 이 계획에서 명백한것은 이 국제적 통제는—각양 각색의 통제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에 관계된다——그의 창안자인 독점가로서의 미국을 강화하는것이며 모든 국가의 경제에서(따라서 정치에서서) 국제적 통제기관의 고정적 간섭을 보장하며 그의 령토에서 이「국제적」통제

를 실시하려는 것이다。미국식「국제」통제와 민족적 독립과 안전은 량립할수 없는 불합리적인 개념이다。

× × ×

미국독점가들이 인면의 자주권 원칙을 위협하는 형식중 하나로서는「바다의 자유」와「강하(江河)의 자유」원칙에 대한 현대(現代) 영 미식 론증이다。미국함대 지휘자중 한사람인 해군대장 브·헬스는 一九四六년 九월一일의 출판물 대표자들에 대한 자기보도에서 성명하기를「바다의 자유는 머국정책의 오랜 원칙중 하나로 된다。이는 최초부터 지지되어왔다。우리는 아무때나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나갈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어떤마귀(魔鬼)도 우리가 향하려 하는데에 상관치 못한다。우리는 우리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향할수가 있는것이다。」라고 하였다。금년에 미국 국방장관 포레스또르는 헬스의 말을 더 정확히 보충하면서「바다에 대한 통제의 실시는 미국함대의 임무인바 이는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설명하였다。현대 미국 해석자들에 의한 바다의 종류는 태평양、대서양、지중해、북극、남극까지 포함하여 말하는바 즉 다시말하자면 전세계 지구의 모든 바다와 강하(江河)를 의미한다。

헬스와 포레스토르와 크(k)에게「바다의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리해하기를 이것은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五〇〇개소의 함대 및 비행기 기지를 확장하는 머국의 권리를 의미한다。이것은 어느때나 어느기회에 그들의 정책을 공 공연하게 압박하는 목적에서 혹은 평화애호국가들을 반대하여 썩어빠진 반동적 제도(희랍 및 중국에서)를 지지하여 그 나라 인민들을 반대하는 함대시위(미국 륙전부대의 상륙에 이르기까지의)를 실시하며 항공전을 일으킬 목적을 의미한다。

그리하여「바다의 자유」—모든것을 위한 자유—의 [illegible]은 미제국주의 수중에서 모든 바다위에 북미합중국의 함대전선의 자유이다。무제한적 주인노릇을 위하여 또는 월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국가에 미국간섭의 자유스러운 실현을 위한 은페물로 된다。

그와 반대로 쏘베트동맹은 개별적 바다(발[illegible]크해 백해(白海)、흑해)에 특수한 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와 그에 외국의 함대세력이 출입함을 방지하기 위하여、바다에서 진정한 자유、그에 접근하고 있는 국가의 자주권과 독립의 보장을 위하여、또는 제三차대전을 준비하는 병기고로서의 해로(海路)를 평화와 인민의 안전의 도구로서의 해로(海路)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말하자면「강하의 자유」혹은 강하의「국제화」에 대한 문제는 한때에는 (一七八九년의 불란서 혁명 시기)이 연ㅣ이 진보적인 의의를 가졌었다。 강하에서 강하에 의한 인갑과 상품 수송을 차단(遮斷)(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하는 봉건구축을 반대하여 유일한 민족적 강(江)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부르쵸아지는 소위 국제강이라고 선언하였다。즉 몇개의 나라를 경유하여 공개적 바다에로 흐르는 강은「그의 물에 씻(洗)기우는 저체인민의 소유물」로서 연안(沿岸) 제국가들에게 이 경을 리용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제국주의분자들에게는 이미 이것으로써 만족할수 없게 되었다。一九二一년 바르셀론 콘페렌차에서 그의 대표자들은 국제운송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강의 개념을 확장하려고 강요하였고 로골적으로 심사어 한 국가를 통과하여 흐르는 그러나 국제적 상업에 의의를 가지는 강을「국제화」하려고 강요하였다。이 문제에 있어서 제二차세계대전후에 영 미 뿔력의 드나브강 류역을 위한 투쟁에서 영 미의 침략적 야욕을 명백하게 나타내였다。一九四五년의 포츠탐 콘페렌차에서와 외상회의에서 그리고 一九四六년의 파리평화콘페렌차에서 북미합중국과 영국은 완강하게 소위「드나브 국제화」의 표어하에서 강박하였는바 드나브강에서의 이러한 제도의 설정은 극히 적은 정도에서라도 그 국가가「드나브 연안」이라는것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드나브 연안 국가와 동일한 조건에서 드나브류역의 경영관계에로의 참가를 제기하였던것이다。이 예견된 완강한 체제를 고수하기 위하여서는 아주 모순된 론거를 내놓았는바 력사에서 쟁취된「획득한 권리」(벨사이유 평화조약와 섬파)의 과거에 대한 추구로부터 시작하여 악명높은 국제적 항로에서의「동등한 가능성」과「자유」원칙을 내놓았다。미국대표(완젠베르그·껜논)는 말하자면 대체로 북미합중국은 미국점령군이 구라파에서와 드나브(오치리에)에 있으니만큼「드나브 강국」이 된다는것과 드나브에서 북미합중국의 리해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가장 믿을수 있는 론증」에 대하여 언급하였다—이것은 마샬안이다。그리하여 i자위에 력점(力點)을 찍었던것이다。(i자는「국제화」를 의미하는것이니 특히「국제화」를 강조하였다는 것—주)즉 국제강하들에 대한「국제화」는 미국의 권위있는자들이 자인하는바에 의하면 구라파대륙에 대한 미국의「마샬화」실천과의 불가분적인 일부분으로 되는것이라 한다。

파리 평화 콘페렌차에서의 완강한 근거에서 브·므·몰로또브동지는 왜 드나브의「국제화」와 그의「기회균등」을 위한 문제를 요구하는 옹

호자들이 주지하는 바와같이 더 [illegible] 국제적 의의를 가지는 파나마 혹은 스웨즈 운하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체제를 적용하기를 제의하지않는가? 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국제강(江)의「국제화」의 세계주의적 간판 즉 연안(沿岸)및 비연안(非沿岸)을 나로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 강에 대한 독같은 권리를 허여하려는 이것은 미제국주의자와 그의 영국 동료들이 인민민주주의국가에 대한 침략적 기도를 은폐하는 연막으로되는 허위적 간판에 지나지않는다。타방면에서 쏘베트 동맹의 립장은—드나브 국가의 자주권을 항구적으로 고수하며 드나브 연안 국가를 위시하여 반드시 자기강에 대한 질서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후견이 불필요하다는것—드나브에서 실제적 항행(航行)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며 드나브 국가의 리해관계를 보전 고수하면서 그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가 이 자유의 실제적 보장의 유효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주장하는것이다。

독립과 자주권을 파괴하는데로 지향되는 경제적 분야에서의 미국팽창주의의 가장 즐겨 선택하는 도구는「문호개방」혹은「기회균등」이다。一九四六년의 파리평화콘페렌차에서와 제二차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례하면 미국—이태리, 미국—중국 조약등)은 북미합중국의「문호개방」과「기회균등」의 체제로 되는바 혹은 반식민지적 형편에 처한 락후된 국가 혹은 전쟁으로써 무력해진 국가, 팟쇼적 형태의 국가에 적용된다。이러한 조건하에서 조약적「상호관계」는 일종의 공공연한 롱닥으로 변하며「문호개방」은 다만 미국 자본가들을 위한 은폐물로 남게되고「기회균등」은 모든 약소 계약 당사자들을 독점 자본가들에게 예속시키는것으로 된다。이 간단한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는 만일 미국자본가가 중국의 경제적 부원을 리용하는 권리를 중국과「동등」하게 가졌다고 한다면 중국 인민에게는 지상공론의 조약이 되고 북미합중국이 경제의 리용에서 동등권을 독점하는바 하등의 실질적 기회균등은 여기에 없으며 또 있을수 없는것이다。

一九四六년 十월 十일에 파리콘페렌차에서 브·므·몰로또브동지는 자기 연설에서 전쟁으로 무력해진 국가들에 대하여 적용되는「기회균등」의 허용은 미국자본에게 그 나라 산업에 대한 침범은 균등화하는것이며 또한 피폐와 궁경의 약소국가가 미국자본가의 의사를 받는다면 역시 그때에는 미국자본가는 그 나라 산업을 독점하고 그리한 약소국가의 주인노릇을 하게 될것이다 라고 하였다。

미국뿔럭이 실시하는 강압과 지배의 방법은 쓰

때트국가의 모든 대소(大小)국가의 실제적 평등과 법적 리해관계의 원칙을 시인하는 기초에 의거한 민주주의적 일치협조의 방법에 대치되는것이다。인민민주주의 국가와의 쏘련의 조약과 극등국가와의 그의 련락은 실제적으로 매개 관계자들에게 동등한 물질적 가능성과 자기 민족적 경리의 일층의 강화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을 보장하는 완전한 민주주의적 평등적 일치협조의 모범으로 되는것이 스스로 명백한것이다。

× × ×

평화애호 국가에 대한 자기의 지향을 은폐하며 정당화활 목적으로써 영미제국주의 분자들은 소위「세계정부」에 대한 세계주의적 리론을 설교한다。「세계정부」의 미국안 실시에서 괴수의 역할은 자기의 젊은 동반자 및 미제국주의 조수들과 련결되었다。

「세계정부」의 창설을 위한 운동의 정당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력사에 대한 약간의 보충적 설명이 필요할까 한다。일찌기 제一차 세계대전후에 불란서 외교가(아·부리안)는「범(汎)구라파」복안을 가지고 출연하였다。즉 첫차례로 불란서 보호하에 있는 구라파 국가의 경제적 통일을 목적하며 그와 동시에 불란서정부의 협력하에서 불란서 재정에 의한 완전한 존재를 보지하는「구라파 련방동맹」을 만들자는 것이다。「범(汎)구라파」의 불란서 계획이 실패된 후에와 해당한 불란서 재정이 탕진(蕩盡)된 후에는 사실상으로「동맹」은 영영 없어져버렸던것이다。

그런데 제二차세계대전후에 전세계「련방주의자」들은 다시 미국대륙의 순풍(順風)에 돛을 달고서 실천의 징조를 나타냈다。아메리카 합중국의 두개의 대법률가 단체 —미국국제법협회와 변호사협회— 는「세계정부」의 창설을 선동한다。미국출판물 지상에는 세계정부의「필요성」과「불가피성」을 증명하는 운동이 계속전개된다。법률가(때르디、부라운、이글리톤)、정치가(그·스타쎈)、군사전문가(아이젠하우어)、문관「철학자들」、사회학자(유인그)、인종학자들과 정치지리학자(매헨)의 재씨(諸氏)들은 민족적 국가 생존의 위험에 대해서와 전세계 초국가적 주권의 급속한 수립의 합목적성에 대한 테제를 전파하는 여러 목소리는「세계정부」가「아메리카민주주의」정신하에서와 미국의 지도하에서 또는 북미합중국의 헌법을 모사(摸寫)한 헌장의 기초에서 되기를 떠든다。

이와같은 종류의 리론적 준비가 있은후에「마샬화」하고 미국화한 국가의 국가적 활동가들이「세계정부」의 라팔쟁이 역할을 한다。

一九四五년 十一월에 영국 때이따당 정부의 외교지도자 에·배빈은 하원에서 세계초국가 창설의 필요성을 연서하면서 그의 형태로서는 베빈의 예견에 의하면 국제법이「전세계법」으로 변하며 개별적 국가의 폐쇄(閉鎖)된 자주권을 변경하여 결국「인류」의 자주권을 가져오는데에 있다는것이다。배빈의 선배 외무대신 이덴은 원자전쟁이냐、세계국가이냐 하는 지렌마적 론법을 보지하였다。一九四六년 九월에 이전 영국 총리대선 우·처칠은 츄리흐에서 다시 악명 높은 플톤연설의 확대된 변종(變種)적 론리로써 이번에는 프란코—게르만 협조의 기초위에서 즉 독일군국주의 재생의 기초위에서「구라파 련방」의 형성을 선언하였다。국경을「폐지」활것을 진술하고서 처칠은 북미합중국이 이전에는 주저하고 심지어 적대시하였던「구라파합중국」의 초안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는「그에 대한 아주 좋은 다행한 호기회……」로 된다는데 대하여 확언하였다。남아프리카련방의 총리대신 스메쯔원수는 정치 군사적 통일에 대한 경제적 관세적 재정적 동맹의 지망에 대한 제의를 보충하면서 처칠을 지지하였다。

몇 주일이 지나 런던에서 처칠의 지도하에서「구라파 통일」의 새단체가 형성되었다。그후 처칠의 의형제(義兄弟)들의 지도하에 一九四七년에 불란서、백이의、화란에서 통일적으로 동종의 위원회가 조성되었다。一九四八—四九년간에 련방주의자들은 자기의 국제대회와 콘페렌챠를 개최하였다。(五월—헤그에서、八월—로마에서、一九四九년 一월에는 불룻셀에서) 카나다 총리대신 마켄즈는 첫차례로 처칠의 행군에 포함됨에 지연되지 않았다。같은 정신에서 이전 불란서 수상 레온·블룸、이전 백이의 수상 반젤란드와 현 수상 스빠크도 출연하였다。

보는바와같이 이 활동무대에서 특별한 열성으로서 우익사회주의자들이 발동하는바 어떤 미국 부르죠아 팜프렛트에서 특징지은 바와같이「구라파에서는 어떤 다른 그루빠보다 더 크게 전통적 미국사상을 위하여」즉「딸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옹호하는 사람들이 활약한다는것이다。

「세계정부」의 선동에서 교회단체의 지도자들이 역시 이 방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법왕 삐七세(빠첼리)는 모든 로마법왕중에서 가장 미국화한 사람으로서 법왕추기원(法王樞機員)에 미국인을 다수「등용」하여 자기관리를 축복(祝福)하고 과거에 널리 알려져있는 친 팟쇼적 반 쏘베트 활동가로서의 영 미제국주의 분자들의 상투적 운동을 순조롭게 지지한다。

런던의 알버트 홀레스에서의「구라파 련합」의 처칠적 위원회 창립대회 석상에서 위원장의 역할은

영국 교회의 지도자인 대교주 깐다베리가 워스터민스타의 로마법왕추기원 카톨릭크 위원회에 사서(使書)를 공시하고서 출연하였다。깐다베리 대교주와함께 주석단에는 영국 구라파협회의「유명한 법학박사」가 앉아있었다。영국수상 애틀리는「미약한 민족의 련맹은 세계련방화 창설의 요인」으로 된다는 것을 영국황제에게 권위있게 해석해 주었다。

이러한 조직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신망을 잃은 극히 적은 그루빠들을 대표하는바 부르죠아의회의원이 이전 또는 현재의 대신(大臣)들, 그리고 기타 공식적 지위의 인간들을 자기 회원으로서 지적하게 된다。영국「구라파통일」위원회도 다음과같은 규정을 지지한다。즉「대중운동에 대하여 지향하지 않는것」이나마「국가의 지도자들의 급속한 협조로서 그의 량보다 자기 회원의 질이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것이다」

국제련방화의 조직적 구성은 다음과같은「계세합중국의 현장」초안을 목적한다。「주권 분활」원칙에서 구청된 세계련방국가 통일은 북미합중국의 국가적 구조에 가장 상자하게 조직된다는 것이다。현장초안에 의하면 세계련방화는 자기의 민족적 령토의 범위밖에서 관리되며 상호 혼화된 민족적 군대로서 조성되는 국제적 군대, 함대, 군사, 항공대를 관활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국제적 군대가 타국가의 내부문제에서의 공공연한 군사적 간섭, 그의 민주주의적 및 민족해방운동의 파괴를 예견한것이 명백하다。인민대중은 결코 일반적「전세계적」명예밑에서 신음하기를 원치않는 것이며 정치적 직능과 외국군대의 그의 령토에의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다는것이 명백하다。

「세계 국가」의 조직화는 전세계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교살하며 근로대중을 완전하게 침략하며 모든 국가인민을 예속하며 열가의 전반적 지배를 가져오는 현대 미국 반동 자본가들의 독재와 독점 및 트레스트 지배를 수립하는것을 균등화하려는것이다。

북미합중국 정부의 창의에 의하여 최근 워싱톤에서 서명된 북대서양동맹—침략동맹은 미국의 공식적 대표(드 재셀르)가 말한바와같이「세계정부」창조에 대한 길에서 단락을 이룬다는것이며 미제국주의의 유명한 대변자 우·리르만은 이 정부의 형성은「원자무기의 거대한 가능성……」을 리용하리라고 하였다。

세계제패에 대한 영·미 제국주의 분자들의 추향은 인민의 근본적 생명적 리해관계에 배반되며 그의 민족적 독립을 교살하는데로 나아가면서 인민대중으로부터의 결정적인 반항을 맞보고 있다。

一九二五년에 레닌은 구라파 합중국 표어와

파산과 반동성을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레닌은 말하기를「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구라파 합중이란 불가능하며 반동적인 것이다。」「자본주의 조건하에서의 구라파 합중국이란 분활과 같은것이다。」(레닌 전집 二一권 三〇九—四〇〇페지) 레닌은 구라파 합중국창설은 자본가의 병합(併合)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가르쳤다。「세계정부」의 조직안이 금일의 조건하에서 구라파 예속화 계획과 동반하는바 북미합중국의 이 운동은 독점자본가들에 의하여 지도되는 형상중 하나로 된다。이 운동의 의의는「전반적 인류의 법률과 전세계적 권리」의 옹호자들에게 북미합중국이 지시하면서 민족적 자주권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좌절하려는데에 있는것이다。때문에「세계정부」의 세계주의적 표어는 영미 수중에서 오직 미제국주의로부터 자기의 독립을 고수하는 인민의 사상적 무장해제만을 목적하는것이 아니라 그는 전인민의 자주권의 실제적 평등과 방어원칙을 부단적 또는 철저하게 고수하는 쏘베트 동맹을 반대하는 표어로 되는것이다。

× × ×

민족적 자주권을 반대하는 첨봉(尖鋒)으로서 지도되는 부르죠아 세계주의는 미제국주의의 무장과 련결되었다。이것은 우리 쏘베트사람,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의 공민이 책임적으로 온갖 현상의 세계주의를 [illegible]강한 경각성을 발휘하여 무자비하게 폭로하여야 할것이다。해독적 세계주의선동을 우리는 반드시 사상전선에서와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계에서 매민족이 가지는 고유의 보고를 시인하며 자유스러운 세계문화에 대한 매 대소민족의 동등한 의의를 시인하며 자기 사회적 생활과 국가형태의 자유스러운 건설과 독립(자주권)에 대한 매 인민과 국가권리의 지인에서 흘러나오는 고상하고 고귀한 국제주의적 레닌—쓰딸린적 쏘베트민족정책의 특성을 발휘함이 필요하다。

쏘베트애국심—인연없는 반애국주의적 세계주의에 대한 무엇보다 훌륭한 대답—을 배양하며 강화할것이다。부르죠아 세계주의와의 투쟁—쏘베트 조국을 위한 투쟁—은 독립과 그의 위력을 위한 투쟁, 로써야 및 다민족적 쏘베트문화를 위한 투쟁,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 전 인민의 미래 광명을 위한 투쟁인것이다。

(「볼쉐위크」一九四九년 八호)

「전동맹공산당 (볼쉐위크)력사」 연구자료 (二十一)

쏘베트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와 쏘베트동맹의 군사적 위력의 공고

김 철 우

쏘베트인민들은 레닌—쓰딸린당의 지도하에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자와 농민의 국가를 창건하였으며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쏘베트국가의 로력자들은 영원히 자본주의 기반과 그의 필연적 법칙인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실업, 산업공황, 빈궁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쏘련로력자들의 력사적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는 볼쉐위크당과 그의 위대한 수령 레닌과 쓰딸린이다。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숭고한 결과의 하나는 그가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권을 전복하고 로씨야의 세기적 경제적 락후성을 극복하였으며 쏘베트국가 및 사회주의적 제도의 기초에서 국가의 위대한 생산력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나라의 경제—기술적 락후성은 우리가 고안하여 낸 것이 아니다。이 락후성은 우리나라의 력사가 우리에게 유전하여준 세기적 락후성이다。……우리나라의 세기적 락후성은 다만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기초에서만이 숙청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세기적 락후성은 다만 자기의 독재를 창건하였으며 국가의 지도권을 자기의 수중에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만이 숙청할수 있다。」

쓰딸린의 이 원칙은 력사발전의 전 행정에서 확증되였다。 볼쉐위크당이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레닌—쓰딸린의 계획을 실천한 결과에 쏘베트

국가는 위력한 공업국가로 변하였다。 볼쉐위크당은 국가공업화의 기초위에서 락후되고 분산된 개인 농민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였다。 쏘련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회주의적 농업을 창설하였다。

공업화에 대한 쓰딸린적 정책은 쏘베트국가의 군사—경제적 위력을 최대로 강화시키었다。 위대한 쓰딸린적 五개년 계획은 쏘베트군대를 일등급의 군사기술로써 무장시켰으며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독일 파시즘에 대한 경제—군사적 승리를 준비하였으며 보장하였다。

× × ×

짜리 로씨야는 사업이 몹씨 락후된 농업국가였다。 전주민의 五분지四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로씨야의 농촌경제는 기술적으로 가장 락후된것으로써 특별하였다。

력사에서 알려진 바와같이 一九세기 六十년경부터 제一차 세계전쟁때까지 로씨야의 산업은, 얼마쯤 발전되었다。 그러나 一九一三년에 짜리로씨야는 산업생산의 범위로 보아서 세계에서 다만 다섯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중공업, 특별히 기계공업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제一차세계전쟁 전야에 전산업생산업생산고에서 기계공업의 비중이 미국에서는 二一%였으며 영국에서는 一一%였으나 로씨야는 七%였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 할것은 로씨야의 전체 산업생산고라는것은 상술한 나라들에 비하여 여러배로 적었다는것이다。

짜리로씨야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얼마나 몹씨 락후되었다는것은 공업발전의 수준을 표시하여주는 강철용해의 수량으로서도 녁히 증명할수 있다。 一九一三년 미국에서 강철 용해는 三천一백八十만톤이었으며 독일은 一천三백八十만톤이었고 영국은 七백八十만톤이였으나 로씨야는 겨우 四백二十만톤의 강철을 용해하였다。

로씨야는 석탄채굴에서도 떨어지었다。 이 시기에 짜리로씨야에는 다른 나라의 산업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산업의 중요한 부문이 없었다。 예하면 자동차공장、 화학공장들이 전혀 없었으며 괴철(塊鐵)、 변압기(變壓器) 및 기타 산업의 중요한 부문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로씨야 산업의 기술적 수준도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에 비하여 몹씨 떨어지었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현대적 생산도구의 장비에 있어서 짜리로씨야는「영국보다 四배가 못하며 독일보다 五배가 못하며 미국보다 十배가 못하였다。」 이와같은 인민경제의 형편은 짜리로씨야로 하여금 더욱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하였던 것이다。 산업의 중요한 부문 즉 석탄、 원유、 전기、 야금공업의 절대 다부문이 외국자본의 수중

에 장악되었다。기계와 설비품의 다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하였다。一九一七년 전에 설비한 전철기의 四분지三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다。직조산업을 위한 직기도 역시 외국에서 수입하였다。이와같이 로씨야의 경공업도 외국자본에 예속되였다。(비록 경공업에서 외국 자본이 우세를 가지지못하였다 할찌라도)

짜리로씨야의 경제적 락후성과 예속은 그의 군사적 락후성을 초래하였다。 기계공업이 발전되지 못한것만큼 위력한 군사산업을 창조할수 없었다。 군사산업에 중요한 원료인 연、아연도 九〇%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였다。락후된 농촌경제도 전쟁조건에서는 군대에 식량을 만족하게 공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로 되지못하였다。목화의 요구량도 국내에서는 겨우 五三%밖에 생산하지 못하였다。

짜리로씨야의 군사—경제적 락후성은 제一차세계대전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났다。一九一五년—一九一七년 로씨야군대가 소유하고있던 중포(重砲)의 八一%를 외국에서 수입하였다。그리고 기관총도 역시 다수로 외국에서 수입하였다。잘 무장하지못한 로씨야군대는 탄약과 군수품의 부족을 느끼었다。

제一차세계대전은 지주와 자본가들이 국가를 운전할 기능이 없으며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것을 보이였다。국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정권을 정복하지 않으면 안되었다。이 력사적 과업이 一九一七년에 실천되었다。볼쉐위크당의 지도하에서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가 빈농과의 동맹으로써 전취한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은 로씨야 앞에 정치—경제적 발전의 전망을 열어놓았다。

× × ×

쏘베트로씨야를 농업국으로부터 강력한 공업국가로 전환시키는것은 볼쉐위크당의 기본과업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十월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기 한달전 즉 一九一七년 九월에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혁명은 로씨야를 수개월간 자기의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선진국가들을 따라가게 하였다。그러나 이것은 적다。전쟁은 용서없나니 그는 파멸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진국가를 경제적으로도 따라가는냐 하는 문제를 강경하게 세운다。」

레닌은 쏘베트국가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방법들을 예견하면서 사회주의의 유일한 물질적 기초로는 경제의 모든 부문과 그중에 농촌경제도 재전하기 위한 생산수단을 주로 국가의 대규모적 공업만이 될수있다는것을 지적하였다。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우리가 아직 소규모적 농업국가에 사는것만큼 로씨야에는 공산주의를 위한것보다 자

본주의를 위한 더욱 튼튼한 경제적 기초가 있다。농촌외 생활을 도시의 생활과 비교하여 심중히 살펴보는 각자는 자본주의의 기본이 근절되지않았으며 국내의 적(敵)의 기반이 파괴되지않았다는것을 알게될것이다。자본주의는 소경영에 보존되어있다。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그것은 국내의 경제는 그중 농촌경제까지 새기술적 토대에 즉 현대의 대규모적 공업의 기술적 토대에 전환시키는 것이다。」

一九二〇년 레닌동지의 창의에 의하여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정부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창설할것을 예산한 로씨야의 전기화에 대한 국가계획을 작정하였다。레닌은 이 계획을 대규모적 기계공업을 창설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경제는 선진기술의 토대에서 재건할수 있는 강령이며 볼쉐위크당의 두번째 강령이라고 칭하였다。쓰딸린동지는 국가전기화에 대한 레닌의 계획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쓰딸린동지는 로동계급의 창발력을 믿지아니하며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계획의 가능성을 반대하는 뜨로쯔끼、뢰꼬브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그는 레닌에게 국가전기화 계획은 영재적으로 고안된 참으로 유일한 국가경제의 과학적 계획이라고 썼다。

사회주의전선과 쏘베트국가의 군사—경제적 위력강화를 위한 대규모적 산업 특별히 중공업의 의의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쓰딸린동지는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였다。쓰딸린동지는 十四차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기동으로서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필연성을 리론적으로 창시하였다。

쓰딸린이 공업화의 대회라고 칭한 十四차당대회는 「쏘베트국가를 농업국가로부터 자체로써 필요한 설비를 생산할수 있는 공업국가로 전환하는」그의 강령을 채택하였으며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당의 기본적 총로선으로 선포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쓰딸린적 계획을 반대하여 투항자들인 지노비예브와 까메네브는 쏘련이 농업국가로 남아있을 자기의 계획을 대치하여고 시도하였다。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일체의 공업생산품과 설비들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되는것이다。이것은 쏘련을 자본국가에 예속시키며 그리고 쏘련의 손과 발을 얽어매어 야수적 제국주의자들에게 넘겨주려는 변절적 계획이다。쓰딸린동지는 이 비렬한 투항자들의 탈을 벗기었으며 그들의 뜨로쯔끼적 멘쉐위크적 본질을 폭로하였다。쓰딸린동지는 또한 제一차 五개년계획을 토의할때에 무하린 및 뢰꼬브 투항주의자들이 제의한 「시뜨레(로씨야친 이름)」공업화 계획도 역시 폭로하였다。

또로쯔끼과와 부하린파들이 제의한 이 모든 계획들은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파탄시키며 자본주의 회복에로 향한것이다。제十四차 당대회는 투항주의자들의 제의를 거부하고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경제건설의 령역에 있어서 대회는 우리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국가는 「완전한 사회주의사회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것」(레닌)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출발점으로 한다。 대회는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투쟁은 우리당의 기본적 의무이라고 인정한다」

공업화에 대한 쓰딸린적 강령은 쏘련의 경제적 자주성과 독립과 국방력의 보장을 예산하였다。공업화는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물질적 기초로 되며 다만 기계공업、첫차례로 중공업을 창설하는 기초에서만이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를 강화확대시키며 농촌경제를 꼴호즈제도의 궤도로 전환시키며 그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종결적으로 청산할수있다。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쏘베트국가의 로력자들의 물질 문화적 수준의 급격한 향상의 보장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였다。 여기에 로력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데 기초하였으며 자본가 무리들을 부요하게 하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광범한 대중을 빈궁에 이르게하는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사회주의적 공업화와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것이다。

국가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대한 쓰딸린적 강령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원칙으로써 조성되었다。

(一)공업화의 본질은 산업의 단순한 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업 발전에 있는것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 중공업의 심장인 기계제조업의 발전에 있는것이다。왜 그러냐하면 다만 중공업화와 자국의 기계제조업의 창설만이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를 보장하여 주며 사회주의 국가를 자본주의 세계에 예속되지않는 처지에 있게하여 주는 까닭이다。

(二)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의 결과에 우리나라에서 지주 및 자본가들을 청산하였고 토지、공장、제조소、은행 및 기타에 대한 개인소유를 폐기하고 이 모든것을 전인민적 소유로 넘겨준 이것은 공업발전을 위한 사회주의적 저축의 위력한 원천을 창조하였다。

(三)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자본주의적 공업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자본주의적 공업화는 식민지적 강점、탈취、군사적 로벌、중리(重利)적 공채로써와 또는 로동대중、식민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요、사회주의적、공업화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공동소유에、로동자 및 농민들의 로동으로써 조성된 부원의 저장 및 저축에 의거하여 실현되는것이다。사회주

의적 공업화는 로력대중의 물질적 형편의 부단적 향상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다。

(四)그런까닭에 공업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근본적 임무는 로동생산률의 향상、원가의 저하、로력규률을 위한 투쟁、경제절약 등등이다。

(五)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조건과 로동계급의 로력적 열성은 공업화의 최고 속도를 실현할 가능성과 필요를 주는것이다。

(六)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천하려면 그 개조를 위한 기술상 로대를 반드시 창조하여야 할 국가적 공업화를 거쳐야 되는것이다。(「쓰딸린략전」모쓰크바판一一三—一一四페지)

자본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목적과 방법、운동력과 사회적 결과가 서로 다르다。자본주의에 있어서 리윤을 위한 생산이며 산업공황、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적대적 모순、불균형적 발전이 특징이라면 사회주의에 있어서 사회적 수용의 만족을 위한 생산이며 계획적이며 비공황적인 것이다。쏘베트 및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로력자들의 형편에와 국내시장 발전에 각각 다른 영향을 준다。

생산재료에 대한 개인적 소유、리윤을 위한 생산、산업공황、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적대적 모순은 자본주의의 기본적 모순 즉 생산의 사회성과 소유의 개인성간의 모순의 표현이며 자본주의 공업발전을 지체시킨다。 공업생산의 가능성보다 관료의 제한성은 자본주의의 특징적 형상이다。주기적 공황은 자본주의 국가들을 뒤로 멀리 밀어던진다。즉 그들은 공황이 일어나기 十년전 수준에 까지 공업생산량의 범위를 축소시킨다。이 축소는 일년동안 계속되며 더 첨예하여지면서 공황이 계속적으로 되다가 안정이 생기며 그리하여 미약하고 단기적인 이 향상이 생긴다。一九二九년—一九三三년 세계경제공황은 례하면 一九三一년 영국의 공업생산량이 지난세기 九十년경의 수준에까지 저하시키었으며 一九三二년 미국에서 공업생산품의 지수(指數)가 一九〇九년의 수준에까지 저하시키었으며 독일에서는 一八九八년 수준에까지 저하시키었다。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시기에서와 특별히 공황시기에 무직업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된다。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은 대중의 구매력의 제한성에 머물어 서게된다。자본주의 국가들간에 무장적 충돌을 환기시키는 시장을 위한 투쟁문제가 더욱 첨예하여진다。

자본주의와 반대로 생산재료에 대한 사회적 소유로 되는 사회주의적 사회의 조건에서 생산은 사회적 수용의 만족을 위한것이며 로력자들의 물질—문화의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며 계획적 경

제의 진행을 비공황적 발전과 모든 생산의 가능성을 완전히 또는 합리화적 리용을 보장하여 준다。무직업과 무직업을 산출하는 그 원인을 쏘련에서 벌써 제一차 五개년계획 실천의 두번째 해에 완전히 숙청하였으며 모든 생산기구들을 완전히 리용하였다。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든지 볼수없다。그렇기 때문에 쏘베트동맹에서 공업향상의 속도는 심지어 경제발전의 좋은 조건을 가진 시기에 있던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업향상보다 더 빠르다。사회주의 공업화의 급속한 속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에서는 자본가를 위하여서 일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계급과 자지의 쏘베트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로동자들의 로력적 열성이 거대한 역할을 리행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로력자들의 물질형편 향상과의 유기적 관련을 가지었다。생신로력이 향상되면 로력자들의 임금이 향상된다。이와반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로력의 향상의 결과를 자본가들만이 소유한다。

쏘딸린동지는 자본주의 공업화와 사회주의의 공업화를 위한 자금원천이 호상간 원칙적으로 차별된다는것을 지적하였다。주지하는바와같이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식민지를 강점하고 략탈하며 군사적 배상금과 중리(重利)적 차관의 방법으로써 또는 자국내의 로력자와 식민지의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방법으로써 얻는것이다。례하면 영국은 자기의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란으로부터 차관을 가져왔으며 미국은 영국에서、짜리로씨야는 영국 불란서 독일에서 예속적 차관을 가져왔다。영국의 공업화에서 식민지적 강점과 략탈이 특별한 역활을 하였다。독일공업은 一八七○년—一八七一년 보불전쟁후에 급속히 발전되었다。그것은 보불전쟁의 결과에 독일이 광산이 풍부한 엘리사쓰—로따린그를 탈취하였으며 五十억프란크의 배상금을 받았기때문이다。일본의 공업발전에 있어서 一八九四년—一八九五년 일청전쟁후에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三억五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것이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상에 지적한 자본주의 공업화의 방법에 어느것이든지 쏘련은 적용할수 없었다。왜그러냐하면 그것은 쏘베트 국가의 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이다。자본주의 공업화의 정책은 어떠한 형태를 가졌든지 식민지적 략탈과 략탈적 전쟁을 내포하였다。공업화에 대한 쏘베트 정책은 국가의 경제적 독립과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쏘베트인민들에게는 공업화를 절대적으로 내부의 원천과 저축으로써 十월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가와 지주로부터 몰수한 일체의 공장과 일체의 토지 그리고 교통기관、

은행、대외무역과 국내상업을 자기의 관활하에 두었다。국영공장、교통기관、상업、은행으로부터의 리윤은 자본계급의 소비를 위한것이 아니고 금후의 공업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쏘베트공업화 방법의 특징은 공업화를 자본국가들과같이 경공업으로부터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중공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경공업 기업소들은 범위가 적으며 설비도 그리 복잡하지 아니하다。그렇기때문에 중공업에 비하여 자금이 적게 요구된다。경공업의 생산품이 광범한 시장에서 대중적 구매자를 만나게되며 그에 투자액은 신속히 융통되며 리윤을 준다。자본주의의 근본적 목적은 리윤을 짜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업화의 첫 대상은 보통 경공업이다。이에 대하여서는 자본주의 공업국가들인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의 력사가 확증하여준다。

쏘베트 공업화의 방법은 이와 전혀 반대된다。쏘베트공업화는 자본주의적 리윤을 목적하는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 과업으로부터 출발한다。볼쉐위크당은 공업화를 중공업의 창설로부터 시작하였다。현대적 흑색금속공업、석탄、원유산업과 기계공업、화학 및 기타의 중공업 부문들의 건설사업을 거대하게 진행하였다。

중공업의 창설은 전인민경제를 즉 경공업、식료공업、교통을 기술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기초로 되며 농촌경제를 사회주의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기초로될뿐만 아니라 그의 로력을 점점 공업로력의 형태로 변화시킨다。

쏘베트동맹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든지 할수없는 그러한 급속한 속도로써 수행하였다。쏘베트동맹에서 공업화를 급속도로 하지않으면 아니될 외부적 및 내부적 조건이 있었던것이다。그 외부적 조건이라는것은 단시일내에 쏘베트동맹에서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며 국방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아니될 자본주의적 포위이며 내부적 조건이라는것은 사회주의의 건설이다。즉 농촌경제의 단합화이며 자본주의의 요소의 숙청이며 전인민경제 각분야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경제형태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높은 속도의 가능성은 쏘베트 사회제도의 우월성으로부터 출발되나니 즉 생산재료에 대한 사회적 소유와 계획적 인민경제의 진행과 생산로력의 부단적 향상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자체 로력자들의 혈연적 리해관계로부터 출발된다。이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과업이 제기되나니 즉 첫째로 국가의 공업화를 중공업 창건으로부터 시작하며 둘째로 공업화를 급한 속도로 단시일내에 완수하며 셋째로는 공업화를 자기의

내부적 축적으로 실천하는것이다。

이 위대한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거대한 난관에 봉착되었으며 쏘베트동맹 로력자들의 많은 희생과 거대한 긴장성이 요구되었다。레닌—쓰딸린당이 고무시킨 쏘베트 사람들의 로력적 영웅심과 쏘베트 제도의 위대한 우월성은 이 위대한 과업 실천을 달성하였으며 단기간에 쏘베트동맹의 위력한 공업을 창설하였다。

쏘베트제도의 우월성은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없으며 있을수도 없는 그러한 내부적 축적의 원천을 리용할수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쏘베트국가는 十월사회주의 혁명으로 자본가와 지주로부터 몰수한 일체의 공장과 일체의 토지 그리고 교통기관、은행、대외무역과 국내상업을 자기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거기에서 들어오는 리윤은 기생적 자본계급의 소비를 위한것이 아니고 금후의 산업확장을 위해서 쓰게 되었다。토지를 국유화 하였으며 지주계급을 청산한 결과에 농민들은 매년 五억만루블리 금화로부터 해방되었다。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그 자체가 혈연적 리해관계를 가진 공업창설을 방조할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불쉐위크당과 쏘베트국가는 쏘베트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국가공업화를 위한 가장 곤난한 문제인 자금저축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一九二六년—一九二七년에 공업에 근 十억만루블리를 투자하였으며 三년을 지나서 투자액이 一백五十억루블리에 도달하였다。벌써 一九二九년에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쏘베트동맹이 잔인하고 비밀적 재정봉쇄에 처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본가에게 예속되지 않았으며 자기의 힘으로써 축적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중공업의 기초를 쌓아놓았다。」이 내부적 축적의 원천이 생산로력의 향상과 엄격한 경제적 절약과 생산품의 원가 저하와 사업을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비생산적 소비를 없이한 결과에 형성되였다。一九二八년부터 一九四〇년간 인민경제에 투자한 총액이 근 三十억루블리에 도달하였다。

국가의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촌경제의 단합화를 실천한 결과에 로씨야의 세기적인 경제적 락후성을 극복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새것이며 선진적인 쏘베트동맹의 경제적 토대를 창설하였다。

이 위대한 개혁적 사업을 실천하는 행정에서 공산당은 국내 국외의 많은 적들의 반항을 극복하게 되었다。

인민의 악독한 적 즉 수년간 불쉐위크당과 쏘베트국가의 정책을 반대하여 격렬한 투쟁을 진행하던 뜨로쯔끼 및 부하린파들은 국가의 공업화와 농촌경제의 단합화를 파탄시킴으로써 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려고 하였으며 경제적 독립과 자주성을 상실시키려 하였으며 자본주의 포위에서 무장해제를 시키려고 시도하였다。쓰딸린동지는 팟쇼의 밀정들에게 매수된 이 도배들의 반혁명적 본질을 폭로 격파하였다。쏘베트정부는 인민들의 의지에 의하여 변절자들을 처단하였다。

국가 공업화와 농촌경제 단합화에 대한 불쉐위크당의 정책은 광범한 로력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으며 불쉐위크당과 쓰딸린동지의 지도하에서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촌경제 단합화를 성과있게 실천하였다。

제一차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을 四년에 완수(一九二八년—一九三二년)하였는데 그 결과에 쏘베트동맹에서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초를 창설하였다。

전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재무장 시킬수 있는 중공업을 창설하였다。五개년계획말에 농촌경제는 十五만대의 뜨락또르를 받았다。농민의 기본대중 즉 전농민의 六一·五%가 꼴호즈에 가입하였다。농촌경제에서 착취적 자본주의 계급인 토호들이 격파되었다。

제二차 쓰딸린적 五개년계획(一九三三년—一九三七년)의 기본적 정치적 과업은 국내의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종결적으로、숙청하는 것이다。이 시기에 농촌경제의 단합화를 근본적으로 완성하였나니 즉 전체농민중에서 九三%가 꼴호즈에 가입하였다。제二차 五개년계획의 기본적 경제과업은 전체인민경제의 기술적 재건의 완성이다。이것은 제一차 五개년계획에서 창설된 중공업과 그의 금후의 발전에 기초하여 인민경제의 각부문을 재무장 시키는것을 의미한다。공업생산품의 범위에 있어서 쏘베트국가가 구라파에서 제一위를、차지하였다。

제三차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과업은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 따라가며 앞서가는 것이다。그러나 제三차 五개년계획의 실행은 전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적쟁으로 인하여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三차 五개년계획의 첫三년간에 쏘베트국가는 기본적 경제과업을 거대한 성과로 달성하였다。

락후된 국가를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공업국가로의 전환에 있어서 위대한 성과를 쏘련인민들이 불쉐위크당과 쓰딸린동지의 지도하에서 달성하였다。이에 대하여 쓰딸린 락적에는 다음과 같이 썼다。「공업화의 한지방이나 한문제일찌라도 쓰딸린의 고찰범위를 벗어져 된것은 하나도 없다。쓰딸린은 산업의 새부문의 창조와 이전에 락후된 부문의 발전과 개전의 발기자이다。쓰딸린은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가는 석탄—금속산지 즉 꾸스마쓰 건축

을 추동시킨 사람이다。쓰딸넌은 사회주의적 건설 사업의 조직자이요, 지도자이다。쓰딸린그라드 뜨락또르공장 건축, 드네쁘르 수력발전소 건축, 마그니뜨르쓰크 제철공장건축, 우랄기계공장 건축, 로쓰뜨브 농업기계공장 건축, 꾸즈미쯔크 제철공장건축, 뚜르끼쓰딴—시비리 철도부설, 싸라또브 꼼바인 제조소건축, 모쓰크바 및 고리끼 자동차공장 건축 및 기타 많은 건축들 전부가 쓰딸린의 이름과 관련되였다」

× × ×

쓰딸린적 五개년계획의 성과적 실천은 사회주의적 제도의 물질적 골격으로 되며 독립과 강력한 국방력을 보장하여 주는 쏘베트동맹의 위력한 공업의 토대를 창설하였다。五개년계획기간에 공업적 위력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를 다음의 사실로도 넉넉히 증명할수 있다。제一차 五개년계획 기간에 一천五백개의 공장과 제조소가 작업에 들어섰으며 제二차 五개년기간에는 四천五백개의 공장과 제조소가 작업에 들어섰으며 一九三八년—一九四一년간 근 三천개의 기업소가 작업에 들어섰다。

공업, 교통, 인민경제의 모든 다른 부문들은 기술적으로 재 장비한 결과에 쏘베트 로동자들의 로력을 경감시키는 최신식의 복잡한 기계와 공작기들을 받았다。

五개년계획기간에 다음과같은 거대한 공장들을 창설하였다。쓰딸린그라드, 하리꼬브 첼랴빈쓰크에 뜨락또르공장, 싸라똡브 로쓰또브나 돈 우자뽀로지에 꼼바인나 공장, 모쓰크바 야로슬라브 고리끼의 자동차 공장들이다。이 공장들은 국가에 몇 백만의 새기계들을 주었다。쓰딸린동지는 十八차당대회에서 농촌경제의 기술적 재무장에 대한 훌륭한 숫자를 다음과 같이 렬거하였다。一九三八년 농촌경제에는 四十八만三천三백대의 뜨락또로와 十五만三천五백대의 꼼바인나와 二十만五천대의 자동차를 계산하였다。

쓰딸린적 공업화는 수요품과 문화적 일용품을 광범하게 생산할 조건을 조성하였다。쏘베트국가의 심산벽곡의 지방에서까지 라디오, 축음기, 자전거, 오트바이, 의복, 신발, 기타의 많은 일용품을 원만히 받았다。식량도 풍부하였다。쏘베트동맹 로력자들의 물질적 수준도 혁명전 로씨야에 비하여 더 말할수없이 향상되었다。

쏘베트국가는 전례없는 단기간에 락후로부터 진보에로, 농업국가로부터 최고도의 공업국가로의 비약적 전환을 달성하였다。산업발전의 속도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앞섰다。一九四〇년 미국의 공업생산의 수준은 一九二九년에 비하여 一一%였으나 쏘베트동맹은 五三四%이였다。 一九一三년부터 一九四〇년간 미국

에서 공업생산이 두배이하로 증가하였지만 쏘베트동맹은 十二배로 증가하였다。속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차이는 전쟁전에 쏘베트동맹으로 하여금 공업생산의 범위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二위를 차지하게하였다。

쏘련공업의 구성부문도 근본적으로 변하였다。만일 짜리로씨야때에 생산도구 생산이 전체 공업생산에서 근 三분지一이였다면 쏘베트동맹에서는 위대한 조국전쟁전에 생산도구생산이 전체산업에서 三분지二이상이였다。이와함께 대량적으로 즉 근 五배이상으로 수용품생산도 증가되었다。국가의 공업화의 기초에서 쏘베트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수준도 거대한 향상을 달성하였다。

쏘베트 공업발전에 있어서 훌륭한 특점은 기계공업의 비중이 부단히, 향상되는 것이다。쏘베트정권이 수립된 이래 기계 공업이 근 五十배로 장성되였다。

쏘베트동맹 공업의 위력은 그의 풍부한 금속토대로서도 넉넉히 증명할수있다。만일에 一九二九년에 선철 강철용해에 있어서 쏘베트동맹이 영국보다 못하였다면 벌써 一九四〇년에는 그를 앞서갔으니 四백만톤의 선철을 생산한것이 아니라 一천五백만톤을 생산하였으며 강철은 四백九十만톤만을 생산한것이 아니라 一천八백三十만톤을 생산하였는데 이 시기에 영국은 강철생산에 있어서 겨우 九백八十만톤으로부터 一천三백二十만톤으로 선철에 있어서 七백七十만톤으로부터 八백三十만톤에까지 증가하였다。쏘베트동맹은 一九四〇년에 七백四十만톤의 선철과 七백九十만톤의 강철을 생산한 불란서를 훨씬 앞서 나아갔다。

三차에 걸친 五개년 기간에 창설된 대규모적 금속공업은 쏘베트동맹의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재무장시키며 강력한 국방력 준비에 물질적 기초로 되었다。

五개년계획 기간에 쏘베트동맹은 또한 위력한 연료토대도 창설하였다。一九二八년에 三천五백五十만톤의 석탄을 채굴하였는데 一九四〇년에 一억六천六백만톤을 채굴하였으며 그리고 원유는 一천一백五十만톤에서 三천一백만톤으로 장성하였고 전력은 六백만낄로와트로부터 四천八백만낄로와트까지 장성하였다。

자주적 기계공업과 금속 및 전기공업에 기초한 쏘베트동맹의 공업적 위력은 경제적 독립과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쏘베트동맹은 자력으로써 어떠한 기계든지 생산도구든지 생산할수 있게되었다。

공업화에 대한 쓰딸린적 五개년계획들을 실천하면서 볼쉐위크당과 쏘베트정부는 쏘련의 국방력을 최대로 강화시키었다。쏘련은 자력으로써 필요한 범위로 군사산업을 확장시키었다。

쓰딸린동지는 현대적 경제기초를 창설함에 있어서 생산력을 새로 즉 사회주의적으로 배치함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쓰베트국가는 짜리로써야의 유전인 기형적(畸形的)이며 불균형적인 산업배치를 숙청하고 산업을 원료산지와 소비구역 근방에 배치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불합리적이며 고연한 운반비를 퇴치하였다。

볼쉐위크당과 쓰베트정부는 이 정책을 짜리로써야때에 경제―문화적으로 극히 락후한 민족변강의 공업화를 또한 타산한것이다。레닌―쓰딸린적 민족정책은 민족 공화국들에서 공업생산의 급격한 속도에서도 표현되었다。이 공화국들에 공업생산을 위한 새 위력한 토대가 창건되었다。례하면 까자흐쓰딴에는 유색금속공업과 석탄산업이 광범하게 발전되었다。뚜르크멘쓰딴은 석탄산업의 중요한 토대중의 하나로 되었다。우즈베끼쓰딴에는 현대적 직조산업이 창조되었다。

쓰딸린동지는 우랄과 시비리야의 경제적 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돌리었다。쓰베트동맹에 무진장으로 매장된 자연부원에 대하여 말하면서 쓰딸린동지는「우랄에서와 같이 자연부원이 그렇게 집적된것을 어떠한 한개의 나라에서도 찾아보지못할 것이다。광석、석탄、원유、곡물、우랄에는 무엇이든지 다있다」

전쟁전 五개년기간에 우랄에는 마그니또르쓰크、첼랴민쓰크와 같은 그러한 일등급의 제철 및 기계 공장들과 우랄 중기(重機)공장과 기타 공장들을 창설하였다。유색금속과 전기공업이 광범하게 발전되었다。시비리야에는 매장량으로 보아서 돈바스 탄전(炭田)보다 더많은 꾸즈네츠크 탄전이 개발되었다。볼가와 우랄간에는「제二 바꾸」라 칭하는 원유채굴 산업의 위력한 토대가 창설되었다。레닌과 쓰딸린이 예정하였으며 쓰베트정부가 실시한 산업의 사회주의적 배치에 대한 영명하고 멀리내다보는 이 정책은 쓰베트동맹의 군사―경제적 위력을 강화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가 있다。국경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동부구역에 새로 위력한 공업토대를 창설한것이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중요한 전략상 역할을 하였다。쓰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은 산업배치에 대한 쓰딸린적 원칙의 영명성이 확증되었다。

쓰베트동맹의 공업적 토대는 기술적 장비의 고상한 수준으로써 구별되는것이다。제二차 五개년계획말에 벌써 전공업생산률의 八○%이상을 제一차 제二차 五개년계획 기간에 새로 건축하였으며 혹은 전체 개건한 공장과 제조소에서 생산하였다。이전에 사람들의 로력으로 작업하던 것을 다부분 기계화 하였다。례하면 전쟁전에 석탄채굴의

九○%를 기계화하였으며 광석 용해행정도 七○%를 기계화하였다。기계에서 일하던 전체 로동자의 三분지 二가 벌써 一九四○년에 와서는 전력으로 일하였다。생산행정을 광범하게 자동화(自動化)하기 시작하였다。쓰베트공업은 위력한 기술적 진보의 도정에 들어섰다。그는 기술의 발전과 적용을 위하여 사회주의제도에 부여된 일체 우월성을 리용하였다。

쓰베트공업의 위력은 그가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적 공업임에 있다。사회주의적 공업은 생산재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착취에서 해방된 로력자들의 우의적 협력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창조적 열성에 기초하였다。쓰베트동맹의 공업은 유일한 국가계획의 기초에서 발전하며 자기의 발전에서 공황도 침체도 모른다。사회주의적 공업은 자본주의 공업보다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었다。왜그러냐하면 생산재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계획적 지도는 공업의 생산로력과 생산의 범위를 부단히 향상시키며 재료와 로력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생산향상에 있어서 로동자들의 직접적인 리해성을 보장하여줄 가능성을 주기때문이다。

× × ×

사회주의 경쟁과 그의 최고형태인 쓰따하노브운동은 생산로력향상의 동인으로 되었으며 쓰베트동맹의 군사 경제적 위력의 원천으로 되었다。특별히 전쟁시기의 사회주의 경쟁은 전인민적 운동으로 되었다。국내에서 거대한 사회주의 운동과 쓰따하노브운동이 전개된 결과에 생산로력이 전체 공업에서 一九四二년―一九四四년에 四○%로 향상되었으며 그리고 군사공업에서는 각개 로동자마다 一九四○년 수준에 비하여 책임량 평균 二○○%로부터 二五○%까지 실행하였다。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쓰베트동맹의 군사공업발전의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었다。

一九三二년―一九三八년간 쓰베트동맹의 군수품 생산이 근 四배로 향상되었으며 붉은군대의 기술적 장비가 몹씨 향상되었다。만일에 一九三○년 붉은군대의 매 투사에게 평균 三・○七기계적 마력이 배당되었다면 一九三九년에는 十三기계적 마력이 배당되었다。

전쟁의 가장 곤난한 시기에 쓰베트동맹은 군사공업을 발전시키며 붉은군대에 필요한 모든 무기를 공급할수 있는 거대한 새 공장들을 창설하기 위한 힘과 자금을 구하였다。

一九四五년초에 동방구역에 열개의 용광로와 四十三개의 마르뗀노브 및 전기용광로와 二백개 이상의 탄광과 크라쓰노야르쓰크 중기(重機)공장과

알따이 뜨락또르공장、우랄자동차공장、기타 수많은 공장들을 건축하였다。一九四四년 인민경제 투자액이 一九四三년에 비하여 한배반이 더하며 一九四五년초에는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우리당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전선에 만족한 수량으로 대포 기관총 장총 비행기 땅크 탄약만 공급할수 있게된것이 아니라 예비를 저축할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였다。이와 동시에 우리 무기는 질적으로서 독일에게 양보만 하지않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월하다。」

전쟁기간에 쏘베트동맹에서 평화시기에 비하여 대포수는 五배로 증가하였으며 현대식 땅크의 수가 十五배로 비행기는 五배로 증가하였다。제一차 세계전쟁 시기에 로씨야군대에는 一만二천문의 대포가 있었다면 쏘베트동맹의 조국전쟁시기에 다만 세개의 대포공장에서만 十八만문의 대포를 생산하였다。 전쟁의 마지막 三년간 사회주의적 공업은 매년평균 三만대의 땅크와 자동차 및 철갑자동차와 四만대의 비행기와 十二만문의 각종대포와 四十五만대의 경기관총과 중기관총、三백만 이상의 장총과 二백만대의 자동총과 十만대의 박격포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다만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에서만이 달성할수 있는것이다。불쉐위크당은 국가의 열성적 방어와 그다음에는 적을 완전히 격파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공업이 창조한 물질적 가능성을 성과있게 리용하였다。

사회주의적 경제의 우월성은 전쟁행정에서 군사산업만 부단히 향상된것만이 아니다。군사산업에 강철 연료와 기타의 필요한 원료와 설비품을 공급하여주는 그러한 산업부문을 확장시켰음에 있다。전쟁시기에 중공업의 이러한 발전의 원천은 이미 작업하는 기업소들을 확장시킨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새 공장 제조소들을 건축함에 있다。

전쟁시기에 동부구역에는 十개의 용광로와 二十九개의 마르뗀노브 용광로와 十五개의 압연기(壓延機)를 건설하였다。一九四三년—一九四五년의 흑색금속、석탄산업 및 전기공업이 전쟁전 수준을 초과하였다。동부구역에 흑색금속업을 발전시킨 결과에 전쟁시기에 한배반으로 증가하였으며 우랄에서 석탄채굴은 전쟁전에 비하여 두배로 증가하였으며 꾸즈마즈에서는 三十五%로 증가되었다。

히틀러 독일을 승리적으로 격파한후 二년간 쏘베트산업의 복구 발전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벌써 一九四六년에 쏘베트동맹에서 전후산업개건을 실천하였으며 그리하여 一九四七년에는 공업생산향상의 속도를 촉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 × ×

전후의 새五개년계획은 쏘베트동맹의 공업적 위력의 금후발전을 의미한다。새五개년계획을 실행한 결과에 쏘베트동맹의 공업적 위력은 더욱 높은 단계에 도달할것이다。공업생산은 전쟁전수준보다 四八%로 더 초과될것이며 그중에서 강철생산은 五十三五%로、전력생산은 七〇%로、석탄채굴은 五十一%로 각각 증가될것이다。 기계생산은 전쟁전 수준에 비하여 두배로 증가될 것이다。거대한 범위로 새공업 및 직료산업이 확장될것이다。五개년 계획말에 가서는 국내에는 근본적 일용품이 풍부하여질것이다。

벌써 一九四六년—一九四七년 쏘베트동맹공업의 생산적 위력이 몹씨 증가되었다。一九四六년 한해에만 근 八백개의 국가기업소들을 복구하였다。

새 五개년계획실천은 十八차당대회에서 쓰딸린동지가 제기한 쏘베트동맹의 경제적 과업인 주되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 방면에서 즉 매인당 쏘베트동맹 공업생산량에 있어서 따라가며 앞서가는 과업의 실천을 의미하는것이다。

새五개년계획에서의 재생산의 범위에 대하여서는 인민경제의 투자액으로도 넉넉히 알수있다。첫五개년계획에 五백억루블리를 투자하였다면 제二차 五개년계획에는 一천一백五十억루블리、제三차 五개년계획에 예정한 투자액은 一천九백二十억루블리였다면 전후 새五개년계획에는 二천五백억루블리이다。만일에 제一차 五개년계획에서 一천五백개의 공장과 제조소를 건축하였다면 제二차 五개년계획에서는 四천五백개의 공장과 제조소、그리고 一九三八년—一九四一년에 근 三천개의 공장과 제조소를 건축하였다면 새五개년계획에 있어서는 근 五천九백개의 생산기업소들을 복구·건축할것이다。

새五개년계획에 있어서 재 생산의 이러한 범위는 사회주의적 저축의 비상한 속도의 필연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우선 인민경제의 각분야에 있어서 생산로력의 비상한 향상과 계속적 생산비용의 저하와 내부원천의 합리적 리용과 엄격한 경제절약과 광범한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요구한다。

전후 五개년계획은 쓰딸린동지가 제기한 三차에 걸친 五개년계획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단계로된다。이 계획실천은 쏘베트동맹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할것이다。이 위대한 계획의 범위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은 다음의 일람표로써 넉넉히 증명할수 있다。

	1913	1928	1932	1937	1940	1950	[illegible]산업의장래 향상에대한계획
선철(단위는 백만톤)	4.2	3.3	6.2	14.5	15	19.5	50
강철 〃	4.2	4.3	5.9	17.7	18.3	25.4	60

석탄 〃	29.1	35.5	64.3	127.9	166.0	250.0	500
석유 〃	9.0	11.5	21.4	28.5	31.0	35.4	60

이상에 표시한 숫자는 사회주의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모든 힘으로써 시위한다。그는 쓰딸린적 五개년계획기간에 쏘베트동맹이 위대한 공업국가로 전환되었다는것을 보이어주며 다만 사회주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생산력 발흥의 그러한 전망을 열어주는것을 보이어준다。쏘베트동맹의 공업력을 장차 미증유로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제기하면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다만 이런 조건하에서만이 우리 조국이 어떠한 불의의 사변으로 부터 보장되었다고 인정할수 있다。그러하자면 적어도 三차에 걸친 五개년 계획을 실현하여야 되겠다。물론 이것은 할수있으며 또 반드시 하여야 될것이다。」

위대한 볼쉐위크당과 그의 수령 쓰딸린동지의 지도하에서 락후한 농업국가이었던 로씨야를 선진적 공업국가로 즉 사회주의국가로 전환시키었다。쏘베트동맹은 금속、기계、자동차、뜨락또르 국가로 되었다。

볼쉐위크당과 위대한 쓰딸린의 지도하에서 쏘베트동맹 인민들은 쏘베트동맹의 위력한 경제적 향상에 대한 새 거대한 강령을 실천할것이며 쏘베트동맹에서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것이다。

국제보도

유고스라비야의 뜨로쯔끼스트들은 제국주의의 돌격대이다

항가리 근로자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꼬시·마띠아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정보국이 『유고스라비야의 지도자들은 유고스라비야 국내의 민족적 력량과 능력을 아주 과중히 평가하면서 다른나라 공산당들의 지원(支援)이 없이도、인민민주주의제국의 지원이 없이도、쏘련의 지원이 없이도 유고스라비야의 독립을 보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할수있다고 생각하고있다。그들은 신(新)유고스라비야는 이러한 혁명적 력량의 방조가 없이도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확인한 때로부터 아직 일년도 지나지 않았다。

이미 오늘날에 있어 유고스라비야의 반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력량을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미혹(迷惑)에 관한 따위가 하등의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그후 사태(事態)의 진행은 표시하고있다。十一개월 동안이나 찌또 도당들은 사회주의 건설과 국제적 평화전선의 적들의 가장 적극적인 돌격대로 되고있는것이다。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증오(憎惡)는 유고스라비야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반역자들의 불순(不純)한 량심(良心)과 뜨로쯔끼스트들의 특정인 한없는 비렬(卑劣)과 무원칙적으로서 더한층 조장되고 있는것이다。

보도국 결의가 있은후 작년 여름에 있어서는 유고스라비야의 뜨로쯔끼스트들은 아직『오해(誤解)』『부정한 보도』운운하였고 인민민주주의제국및 쏘베트동맹과 절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 본래(本來)의 력량만 가지고 사회주이를 건설할것인것처럼 유고스라비야의 로동계급에게 확언하였던것이다。

그후 찌또도배들은 이러한『리론』들은 사용하기 불편한 것이라하고 내던져버렸다。현재에 있어서는 그들은 더욱더 공공연하게 서방 제국주의자들에게 의거(依據)하고 있는것이다。그러나 그들은 자기나라의 로동계급에게는 인민민주주의 제국이 그들을『될대로 되라고 내버렸기』때문에 그들은『할수없이』자본가들에게 의거하게되는 것이라고 론증하고 있다。그러나 유고스라비야의 로동자들은 다음과같은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것이다。즉 인민민주주의제국과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전력을 다하여 방해하려고 애를쓰고 있는 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갑짜기 찌또도배들의『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서는 선선하게 모든것을 허여하게 되는가?라고。찌또와 그의 도당들은 인민민주주의제국도 역시『제국주의자들과 통상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으로서 변명한다。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통상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이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할수있는 물건을 팔지않겠금하는 방침을 주밀하게 취하는데 대하여서마는 시침을 뚝떼고있다。그러나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은 방위력을 강화시킬데 대하여 생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유고스라비야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첫차례로 전략적 중요물자를 유색금속등을 팔고 그 대가에 정말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인민민주주의 제국에 대하여는 그러한 물건의 수출이 엄격히 금지되고있는 그러한 물자와 기계를 받고있는것이다. 『데리·테레그라프 앤드 모닝그 포스트』신문 五월十一일 보도에 찌또가 구매할수 있는 모든 군수물자들을 렬거하고있다. 그중에는 一、五〇〇톤의 납은 합금(合金) 난로(暖爐)와 七〇〇개의 비행기 모터등이 들어있는것이다. 찌또가 배반한 결과로 유고스라비야에서 진행된 변화와 관련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의 태도도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작년 여름 보도국 결정이 발표된후 여러주일 동안을 걸쳐서 제국주의 출판물에서 『찌또가 색갈을 바꾸었다 이에 대하여서는 날카로운 경계를 가지고 대하여야한다. 이것은 그러한 술책의 힘을 빌어서(검은 양색기)—산 유고스라비야를 자본주의 목장에 들여보내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어떠한 새로운 술책이기 때문이다』라는것을 경고하는 론문들을 읽을수 있었던 것이다. 이 비슷한 『경고』의 게재는 벌써 오래전부터 중지되고 있는것이다. 이 대신에 『자유방법에 대한 지시』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목적은 찌또와 그의 도당들의 반역을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될수있는대로 많은 리득을 얻어낼것과 동시에 찌또로하여금 자기국내에서 그다지 빨리 신용을 잃지(失)않을수있게 하는 것들이다. 영국자본의 기관지인 『에코노미스트』는 三월二十六일에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찌또가 경제적 곤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것을 방조하려는 모든 영국과 미국의 기도는 찌또에게 적대하는 정치적 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의 대항력을 유지시킨다는 관점으로부터 주의깊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이러한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것이다』라고 부언하고 있다.

유·엔에 있어서의 유고스라비야의 반역자들의 태도는 이와의 관련에 있어서 의미 심장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공모자의 모습으로 눈질하여놓고 찌또도배들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인민민주주의제국과 함께 루표하는것을 리용하고 있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이 그들에게 백곱절 더 리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리해하고있다. 그것은 찌또가 『우리들은 이렇게 사회주의국가에 속하고 있는것이 아닌가』라고 말함으로써 자기나라 인민들의 일부분을 미혹(迷惑)시킬수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찌또와 희랍파시스트정부간의 비밀교섭의 실례와같이 그 졸렬하고 우둔한 방법의 탓으로 이러한 호상간의 음모가 표면에 탄로되는 일도 있다. 유고스라비야는 네개의 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접경(接境)하고있다. 그리고 찌또도배들은 물론 자유를 위한 희랍전사들이 승리함으로써 다섯개의 인민민주주의국가가 유고스라비야와 나란히 서겠금 하려고 바라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희랍파시스트들과 비밀교섭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희랍외상 짤다리스는 시기 상조하게 자기는 이어 희랍왕의 동맹자로서 찌또원수를 환영할수 있을것을 기대한다는것을 출판물에 알렸던 것이다. 이러한 폭로는 찌또에게있어서 대단히 불유쾌한 일로 되었다. 그리하여 『데리—메일』 신문은 四월十四일에 분개하면서 찌또와의 관계를 취함에 있어서는 『더큰전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런 조그마한 실수(失手)들은 찌또의 외교정책과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랭정전쟁』은 내부에 있어서 서로 련계되고 서로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다. 실례로 미제국주의 자들이 전쟁 히스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때에 찌또는 그의 저렬한 방법으로서 이 오—케스트라에 참가한다. 즉 유고스라비야에서 등화관제(燈火管制) 군대이동등이 실시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찌또,의 협력을 환영한다. 그리하여 벨그라드에서 인민민주주의를 반대하여 만들어낸 모든 중상들은 침소봉대(針小棒大)하게 미국 및 영국의 라디오와 출판물에 의하여 전달되는것이다. 그들은 물론 이러면서도 저이들 끼리는 찌또에 대한 멸시(蔑視)를 감추지 않고있는 것이다. 미국잡지 『뉴—스 위—크』는 四월二十五일에 비웃는듯이 『정조를 지키던 찌또가 자기의 구제자인 자본가들 앞에서 몸을 벗는다』라고 썼다. 『에코노미스트』잡지는 자기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하면서 찌또도당들은 마치 쓰련이 유고스라비야에 공업제품을 너무나도 비싸게 판듯이 류포시킨 조작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는것이다. 유고스라비야의 로동자들에게는 감자나 옥수수로서 표현된 타자기(打字器) 또는 선반기의 가격을 세계시장 가격과 대비하기는 어려운것이다. 그러나 『에코노미스트』지는 이것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금년 四월十六일호에 다음과같이 쓴것이다. 『이 가격들은 유고스라비야의 선전이 떠드는것처럼 그렇게도 비싼것은 아니다. 실례로 『타자기 한대에 대하여 옥수수 三、〇〇〇키로를 지불함이 필요하였다』라고 성명한것은 즉 그 가격이 四〇폰드씨링그 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영국에 있어서는 타자기의 가격은 六五폰드씨링그에 가까운 것이다. 이 론문의 저자는 비웃는듯이 찌또도배들의 『철없는 분개』에 대하여 쓰고 또 솔직하게 『영국이나 미국이 유고스라비야의 빈약한 공업을 방조하기 위하여 손해를 볼 의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것은 의심스러운 바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것이다. 『에코노미스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은 찌또로부터 협박 탈취하기 위하여 찌또의 정형을 리용하고 있으며 또 실례로 유고스라비야는 구채(舊債) 상환에 있어서 영국이 받기를 기대하는것 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는것을 리해하게 하였던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찌또를 더 공공연하게 또 광범하게 원조하지 않은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것이다. 그 첫째의 리유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유고스라비야 지도자들의 배반이 가지는 가치가 유고스라비야의 로동자들이 이 배반을 리해하기 시작함에 따라서 저락(低落)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번 리유는 한정없는 모험에 들어가는것을 바라지 않는것이다. 중국의 실례가 그들이 국민당 군대에게 공급한 무기의 상당한 부분이 중국인민해방군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한것이다.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은 현실주의자인 것이다. 그들은 유고스라비야인민이 조만간에 찌또 도당들로부터 해방될것을 고려에 넣고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지원(支援)』은 찌또에게 있어서는 막대한 지출과 련결되고있는 것이다.

유고스라비야의 반역자들이 받는 차관에 대하여서는 미국과 영국에있는 유고스라비야의 금저장(金貯藏)을 저당하지 않으면 안되며 미국과 영국의 자본가들에게 커다란 특면(特免)을 허여하여야 하는것이며 군사기재에 대하

여서는 전략적 원로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빈궁과 민족주의적 박해의 증장

진전되는 이러한 과정이 국가의 내부 정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시의 루기업자로부터 농촌의 부농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본주의적 분자들은 지금에 있어서는 더욱 자유스럽게 숨을 쉬고 있다. 유고스라비야의 뜨로쯔끼스트들은 공산주의와 쏘베트동맹에 충실한 공업 프로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정책을 시행함에있어서 더욱더 자본주의적 분자들에게 의탁(依託)하고있다. 찌또의 이러한 반로동자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의 결과는 즉 투기의 증대, 사회적 공급체계로 부터의 공업상품과 식료품의 암시장(闇市場)에의 도출(逃出)인 것이다. 작년봄에 수명의 항가리 근로자당 정치국원들이 정세 조사차로 유고스라비야를 방문하였을때에 그들은 그곳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전대미문하게 낮으며 또 이것을 많은 식료품들이 쏘련과 인민민주주의제국에 반출되는 까닭이라고 설명하는 반동파들의 비밀 선전을 보고 놀랐던 것이다. 그후 이러한 비렬한 비난은 찌또도배들의 공식적인 선전에 상용하는『규준(規準)』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인민민주주의제국과 절연한후 유고스라비야의 근로자들에 대한 공급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부농과 루기업자들은 더욱더 커다란 세력을 획득하고 식료품과 공업상품은 더욱 감소되어갈 따름이다. 상품의 부족은 그의 거대한 부분이 경찰 장교 및 고관들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도 더욱 증대하여 가고 있는것이다.

유고스라비야로부터 보내온 편지에서 근로자들은 아이들은 우유구경도 못하는때에 매개 장관(將官)들은 결혼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일 五릿틀의 우유 독신인 경우에는 매일 三릿틀을 받고있으며 로동자들은 몇달동안 고기(肉)구경도 못하는데 특권인물들은 특별 상점에서 무제한하게 고기 기름 바타를 받는다는 것을 호소(呼訴)하고있다. 이에 대한 격분은 대단한바 있어 상점앞에서 장교들의 처와 로동녀성들간에 맞붙들고 싸우는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근일에는 이러한 상점들은 뒷문으로 물건을 내보내고 있는것이다.

근로자들은 이렇게 빈궁하여가고 있는때에 상층인간들은 우유와 바타에서 모욕(沐浴)하고 있으며 루기업자들의 가장 좋은 앞잡이 장사군으로 되고 있는것이다. 찌또도배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하게 되어있는가를 서서(瑞西) 신문『엘·운드·질』에 게재된 론문이 보여준다. 그 론문에는 찌또가 차린 한 야회(夜會)가 기술되고있다. 이전의 폴섭정(攝政)의 궁전에서 개최된 이 야회에 초대된 신문기자는 다음과같이 쓰고있다. 『커다란 실내에 전신에 금과 은의 수를 놓고 훈장을 단 三〇〇명의 장군이 서있다. 그들 곁에는 화려한 야회복을 입은 어여쁜 녀자들이 있다. 사환(使喚)들은 금줄로 장식한 백설같은 연미복(燕尾服)을 입고있다. 모든 이러한 것은 어떤 하리웃트의 몽환적(夢幻的)인 화면과 비슷한 광경을 이루고있다. 식탁은 문자 그대로 고기를 담은 금과 은의 굉장한 접시들로 덮이었다. 八〇종의 료리가 제공되었다. 로카이포도주 불도포도주 프라스카르주 그리고 물론 샨판주도 풍부하게있다.』

유고스라비야로부터 구출된 동지들은

공산당에 입당시킴에 있어서 부농들을 우대하게된 때로부터 공산당원인 농군(農軍)이 공산당원의 부농한테가서 일하는 것이나 또는 이전의 빨찌잔대원이 쩨디쯔 혹은 파베릿치의 군대에 복무하던 부농한테서 일하고있는 것을 더욱 자주 본다고 이야기 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찌또와 그의 도당들은 서슴치 않고『우리들은 기초를 닦는것은 종료하였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곧 바로 사회주의 건설에로 나갈수있다』고 큰 목소리로 표시하는것이다.

유고스라비야의 뜨로쯔끼스트들은 로동자들의 항의에 대하여서는 테로와 집거로써 응하고있다. 굶주리고 불평을 가지고있는 로동자들은 기계나 선반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은 실수를 한다. 여기에 있어서도 뜨로쯔끼스트들은 인민민주주의 제국이 나쁜 기계와 자재를 보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것은 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못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불만은 증대하여가는 것이다.

찌또와 그의 도당들은 근로대중들의 불만을 쏘련과 인민민주주의국가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돌리고 그럼으로써 근로자들의 관심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재난(災難)의 진정한 원인으로부터 다른데로 돌리려고하고있다. 이뿐만아니라 유고스라비야의 반역자들은 쏘련과 절연한 때로부터 방사한 민족주의적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낡은 대(大)세르비야적 배외주의가 가지고있던 모든 속성(屬性)들을 창고에서 또 다시 이끌어내어 항가리인 불가리야인 루마니야인 아르바니야인 및 기타의 린접 인민들을 반대하는 험한 민족주의적 전전을 전개하고있다. 수상이며 세르비야 공산당의 비서인 페틀·스탐보릿치는 세르비야의 스쿠ㅂ시나(國會)에서 진술한 보고에서 항가리공화국은 바치카를 또다시 갓점 하려고 하고있으며 루마니야는 바나트를, 불가리야는 마케도니야를, 알바니야는 메토히야를 강점하려고 하고있다고 로골적으로 말한것이다. 찌또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선전에 대하여 장단을 쳐주고있는 것이다. 찌또는 五월十五일에 군위자단의 당회의에서 다음과같은 표현으로 가득찬 비렬한 교자(敎唆)적인 연설을 하였다『유고스라비야는 항가리의 모든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손을 펼쳤던 것이다. 항가리는 오늘에 와서는 가장 비렬한 방법으로서 유고스라비에야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등등. 민족주의자 찌또의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즉 홀티의 죄악을 인민민주주의에게 넘겨씌우는 것이다.

찌또도배들은 다만 린국(隣國)에 대하여서만 배외주의를 선동하고있는것이아니다. 찌또도당들에게는 그전에 있어서도 유고스라비야에 있어서는 세르비야인과 홀바트인 및 스로베니야인이 첫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내부적인 타협이 있었던것이다. 찌또가 배반한 때로부터 소수 민족에 대한 압박은 절대적으로 강화되었다. 몬데네그로, 보스니아, 보어보디나에 있어서는 지방일군들은『믿을수 없는자』들이라하여 점점더 제거되어가고 그들의 자리에는 첫차례로 대세르비야 배외주의자들을 앉히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세르비야—크로아지야—스로베니야련합도 파탄되고있다. 그것은 크로아지야와 스로베니야에서도 역시 배외주의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유고스라비야로부터의 탈주자들은 대세루비야 배외주의는 왕조(王朝) 시대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국내의 기타 민족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에는 후면(後面)에 있던 낡은 정권당시의 인사들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다。국왕정부의 전 수상이었던 미샤 트리푸노빗치、흉악하검사 라지짜・마르꼬빗치、전 경찰대위 미아도브또쇼 해산당한『소꼬르』및 기타의 민족주의조직의 지도자들이 또다시 역할을 맡은것이다。

도발과 간첩

유고스라비야와 그 린접국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긴박하여갈 따름이다。유고스라비야측으로부터 일으키는 돌발사건들과 도발들은 더욱 빈발하며 더욱더 방약무인(傍若無人)하여질 따름이다。현재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알려진 바와같은 찌또의 인민민주주의제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간첩 파괴사업은 작년 여름이나 또는 一九四七년 가을에 시작된것이 아니며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된것이다。

작년 八월에 항가리공화국 국가 보안기관은 그의 장관(長官)의 명령에 의하여 보도국 결정을 지지하여 나선 모이차・미로슈를 살해한 부다페스트주재 유고스라비야 대사관의 출판물 아탓세인 보아로브를 체포하였다。보아로브는 자기가 정치간첩이었다는것을 승인하였다。一九四十년 四월에 그는 유고스라비야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부에 호출되고 그곳에서 당위원회비서 비디치는 그에게 그의 과거 경력은 탄로되었다는것을 말하고 만약 그가 찌또의 비밀경찰 우드브에서 책임있는 사업에 복무할것에 동의할것 같으면 용서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였다。보아로브는 서슴없이 여기에 동의한것이다。이렇게 된후 그해 四월중에 그는 항가리국내에 유고스라비야 간첩망(網)을 조직하기 위하여 부다페스트대사관에 부임한것이다。다시말하건대 이러한것이 一九四七년 四월에 있었던 것이다。보아로브는 또한『항가리에 있어서의 쏘련정책에 대한 일반의 환심(歡心)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유고스라비야국내에서 세력을 얻고있는 내밀적인 반쏘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것을 증언하였다。보아로브의 증언에는 그가 간첩들을 징모(徵募)하였고 항가리―쏘련문화련락협회의 사업을 재조직하려고 기도하였고 또 모이치를 살해한데 대한 경위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는것이다。

항가리인민공화국정부는 찌또정부를 대함에 있어서 완전한 충실을 지켜왔다。오직 一九四八년 봄에 와서 겨우 우리들은 무엇인지 직상치 않은것이 있다는것을 의심하기 시작한것이다。찌또가 배반한후 우리들은 항가리내의 그의 졸도들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조사한 것이다。례를 들면 우리들은 로브・안돈사건을 조사한 것이다。이 도발자(프로보까똘)는 한때에는 자그레브에서 당조직의 비서로 있었다。그후 훌티의 부다페스트경찰에게 체포되었다。그리고 그가 몇개의 동지들을 배반하였다는 혐의(嫌疑)가 일어났던 것이다。항가리가 해방된후 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고스라비야 대표들에게 이관(移管)되었었다。얼마지난후에 그들은 로브는 혐의를 벗었다는것을 통지하여오고 그를 항가리국내의 유고스라비야인 반파시스트동맹의 지도자로서 내세울것을 제의하여왔다。로브는 국회에 선출되었다。

보도국의 결정이 발표된후 로브는 유고스라비야로 도주하였다。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그는 보아로브와같은 임무를 가지고 유고스라비 정부에 의하여 항가리에 파견된것이라는것이 판명되었던것이다。로브가 항가리국내 유고스라비야인 반파시스트동맹을 조직함에 있어서 기기에다가 유고스라비야인 부농들 및 추방(追放)하기로 예정된 슈바브(독일출신의 이주민)들 까지도 모집하였다는것은 당연한 일인것이다。

반파시스트동맹이란 간판을걸고 로브가 항가리국내에 조직한 그러한 갑첩단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그자들은 더말할것없이 누구보다도 제일 적당하였던것이다。

또 한개의 실례―그후 서서에 도주한 사회민주당출신 전 산업상 반・안따라사건을 들어보자。一九四六년에 반이 一九四二년 점령이후 거주하고있던 노비사드시(市)로부터 받은 정치간첩이었다는 통지가 왔다。유고스라비야대표들에게 이것을 조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후 이러한 협의는 무근거한 것이라는 회답이 왔다。이렇게된 다음에는 세르비야말을 자유로이 하는 반이 유고스라비야인 반파시스트동맹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된것을 반대할 아무런 리유도 없었던 것이다。반은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항가리가 유고스라비야의 五개년 계획을 지원(支援)하는데 있어서 무거운 의무들을 지게된 일련(一連)의 항가리―유고스라비야협정들을 작성하였던것이다。현재에 와서는 반은 실지로 훌티의 경찰에 복무하였으나 찌또도당들은 그를 바로 보아로브와(자기 증언중에서 상세하게 반은 행동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징모하였다는것은 정확하게 판명되고 있는것이다。

항가리인민공화국의 일련의 일군들은 조약실행이 항가리측에는 더욱더 불리하게되어가며 또 이러한때에 있어서 유고스라비야경제대표들은 유리한 주문은 조약에서 제외하고、영국이나 미국의 자본가들의 회자에다 하고、불리한것은 항가리에다 한다는것을 주목하게 되었다。사태는 항가리대표단의 하나가 찌또자신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의 협력을 요청하기까지에 이르렀다。찌또는 위선적으로 항가리대표들에게 이러한것은 열성、이 너무 지나친 때문이다。또는 하부기관의 과오에 말미암은것일 뿐이라고 확언하였던것이다。현재에 와서는 이것은 위로부터의 지시였다는것이 판명되고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찌또의 반역적 행동은 오래전부터 시작된것이라는것도 판명되고있는것이다。그리고 마치 찌또는 반역자가 아니며 찌또를 유인한 어떤 다른사람이 반역자라는듯이 말하는 주장은 역시 유고스라비야가 현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것과 같은 옛말이라는것도 판명되고있다。 찌또의 반역의 뿌리는 깊으나 비로소 현재에 와서 그 뿌리로부터 나온 목(蘖)있는 나무가 꽃을 만발하게 하였을 따름인것이다。항가리남부국경에 찌또는 항구적인 간첩과견소망(網)을 조직하였다。보도국의 六월 결정이 발표된 때로부터 그때까지에는 서쪽으로 흐르고있던 제국주의의간첩、루기업자、이전 헌병장교들의 탁류(濁流)는 갑짜기 그 방향을 돌리고 유고스라비야에로 돌아들어갔다。

유고스라비야당국은 도주자들은 이미 유고당국의 지령에 의하여 일하고있던 자들이라 할찌라도 영국 간첩조직에 넘겨주고있다。그것은 그들에게 해당한 재훈련을 순후에 항가리국내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그러는것이다。

항가리에 넘어 들어온 간첩들은 변함없이 모두 유고스라비야의 간첩은 그들에게 항가리에있는 쏘련대표단과 항가리군대와 항가리경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것을 위임하였다는것을 증언하고있는것이다。간첩들을 넘겨보내는것과 함께 또 국경사건들이 발생하는것이다。이러한 도발(挑發)은 국제적 사변 또는 항가리의 국내적 사변과 관계를 가지고있다。우리들은 벌써 사건이 언제 도발되며 라는것을 대채로 예측할수있는 것이

다。선거직전 얼마전에는 항가리의 남부국경은 문자그대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수주일동안 이러하였고 그동안에 一〇〇명 이상의 간첩을 넘겨 들여보냈던 것이다。간첩들을 밧비하고있는 항가리 국경수비군에 대하여 유고스라비야의 보안대가 발포하는 것이다。이러한 도발의 하나는 선거전날밤인 五월十四일에 일어났었으며 최근 三주일 간에도 항가리국경수비대원五명이 살해당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흉악한 살인범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을것이다。그들은 이러한 살해에 있어서도 또 항가리에 대한 비난을 조작하여 내려고 한다。흉악하기에 한정이 없는 벨그라드 방송은『항가리의 보도국 추종자들은 조직적인 박해를 시작하였다。그것은 말로부터 적대행동으로 넘어갔고 그것은 국경에서의 힝가리 군사들의 살해를 야기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고스라비야의 근로인민들 특히 변함없이 사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로동계급의 유력한 층들은 모쓰크바 부다페스트 및 기타의 민주주의의 방송국의 방송을 들으려고 갈망하고있다。찌또 도당들은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제국의 방송을 들은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박해함으로써 이에 대처하고있다。

× × ×

현재의 유고스라비야는 게슈타포를 본받은 방법으로서 그리고 게슈타포의 앞잡이들의 방조하에 드로쯔끼스트도당들이 자기의 지배를 유지하고있는 전형적인 경찰국가이다。항가리 근로자당은 모든 형제적인 당들과 함께 유고스라비야의 근로자들이 진상을 알게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것이다。우리들은 반역자로서의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의 찌또도당을 폭로할것이며 특히 찌또도배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명목하에 제국주의자들을 지지하고 있는 비렬한 수단을 폭로할것이다。찌또 도당들은 공업로동자들과 청년들의 애국심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들의 감정을 롱락하여 미혹시키면서 그들을 착취하고있다는것과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불구대천의 원쑤(怨讐)—제국주의자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동(銅)과 연(鉛)을 또 더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공업로동자들과 청년들이 강제당하고 있다는것을 해명하여줄 필요가 있는것이다。우리들은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헌신적으로 전개하고있는 영웅들에게 형제적인 인사를 보낸다。우리들은 이러한 투사들의 가슴속에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그러한 영웅적인 사업을 완수하겠금 고무시키고 그리하여 전체 진보적 인류의 인정을 정취한 화염(火焰)과 견결성이 불붙고있는 것을 알고있는것이다。그것은 현재 유고스라비야에서 찌또를 수반으로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비렬한 반역자들이 실시하고있는 흉악한 정권은 오래가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한 틀림없는 담보인것이다。찌또는 멸망할것이며 유고스라비야의 근로인민들은 환희에 날뛰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위대한 인민들의 가족으로 다시돌아올것이다。

(『견고한 평화와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 一一호)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서의 정치교양사업에 대하여

프레드。엘리쓰네르

一九四六년 四월에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을 창립할때까지는 그의 당원들의 대다수가 매우 낮은 사상—리론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경험있고 맑쓰주의적으로 교양받은 독일로동운동의 이전의 간부들의 많은 부분은 파시즘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로동계급도 포함하는 독일인민 대다수의 의식은 十二년동안에 걸친 파시스트선전의 영향으로 마미암아 중독되어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그가 창립되던 그날부터 당적 교양사업문제에 대하여 큰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서의 리론학습은 야간정치학습이라고 칭하는것으로서 조직되고있는바 이것은 하급당단체들에서 매달 한번씩 실시되고있다。

이러한 야간정치학습에는 모든 당원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하여야한다。이러한 야간정치학습을 위하여 당중앙본부는 매달 특별한 소책자를 발간하고있나。이러한 소책자들은 현재 二十만부에 달하는 발행부수로 발간되고 있는바 이는 첫째로 강사들에게 내부된다。지방당단체들은 강사들의 예비적 회합은 가지고 거기에서 다음에 강연할 제목 그 지방의 사정에 비추어 설명하여준다。그러나 아직도 야간정치학습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않는 하급당단체들이 있으며 강사들의 예비회합이 필요한 요구에 아직 응하지 못하고있다。

쏘베트점령지대의 백개의 큰 기업소들에서는 공장당학교들이 작년에 창설되었다。여기에서의 수업은 생산의 여가를 리용하여 이주일동안에 걸치어 진행되고있다。이러한 학교의 교육계획은 기업소의 생산과업과 긴밀하게 련결되어있으며 또한 당원들의 일반적 사상교양을 개선하는데뿐만 아니라 당단체들의 모든 사업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데도 목적을 두고있다。

一二〇개의 지구당학교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초급당학교이다。이 학교들은 모두 합숙제이며 매개학교에서는 三〇명내지 六〇명의 수강생들이 교육받고있다。교육은 당중앙본부에서 작정한 유일학습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학습계획은 리론적 문제들과 실천적 당사업에 관한 문제들을 포함하고있다。학습기간은 四주일동안이다。이러한 학교들은 十만명이상을 졸업시키였다。

그다음에 있는것은 주(州)의 당학교들이다。쏘베트점령지대의 五개의 매개주에와 베를린에는 이러한 학교가 하나씩있다。이 학교들에서는 九五명내지 一六〇명의 수강생들이 공부하고있으며 교육기간은 四개월이다。이 학교들에서는 변증법적、유물론、정치경제학、전동맹 공산당(볼쉐위크)력사、독일로동운동사와 당건설의 기본문제들을 가르

치고있다。 지구당학교들이 촌락의 일군들을 양성해내는 초급당학교들이라면 주당학교들은 지구와 주의 당기관 및 대중단체들의 지도일군들을 양성해낸다。 이러한 학교들은 五、○○○명에 달하는 일군들을 졸업시켰다。

이외에 또한 개개의 주에 있는 五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이 학교들은 합숙제이며 교육기한은 단기 (二―三주간)이나。 이 학교들에서는 특별한 당사업문제들, 례를 들면 조직사업문제, 간부사업문제, 자치행정문제 및 기타에 관한 문제들을 가르치고있다。

칼·맑쓰의 이름을 가지는 고급당학교는 당교양체계의 중앙이다。 현재 이 학교에는 六六명의 학생이 있으며 그들의 교육기간은 二개년이다。 그들은 一九四九년十월에 졸업한다。 一九五○년二월에 이 학교에서는 八○명으로 되는 다음기 학생들에 대하여 수업을 개시할것이다。 二년제학교의 임무는 당을 위하여 리론간부, 선전선동간부 및 문예간부들을 양성해내는데 있다。 동시에 고급당학교내에는 주의 지도일군들인 一六四명의 학생으로 되는 六개월반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급당학교내에는 단기의 즉 二―三주간의 교육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약六○명의 수강생들이 교육받고있다。

이상의 모든 학교들에서의 교육방법은 기본적으로 전혀 동일하다。 매개 학습제목은 강의로부터 시작된다。 강의다음에는 학생들이 적당한 문헌을 연구한다。 그리고는 그루빠 별로 쎄미나르를 진행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의 고전에 접근시키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책에 의한 자습에 습숙하게할 목적에서 자습을 주요하게 시키고있다。

당학교들의 전체 교원 수는 현재 五二五명이다。 여기에 관련하여 교원들에 대한 재교양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모든 당학교들은 매년 일시에 한달동안에 걸친 방학을 하는데 이 기간은 교원들의 자격을 향상시키는데 리용되고있다。 당중앙본부가 채택한 결정에 의하여 지구당학교의 매개교원은 적어드 주당학교를 졸업하여야 하며 주당학교의 매개교원은 고급당학교의 六개월반을 졸업하여야한다。

광범한 당 교양망이 현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있는 간부들이 매우 부족하여 오직 당학교 출신으로써 보충함이 필요함을 여전히 느끼고있다。 일면으로서는 지도간부들을 공작으로부터 몇달동안 소환하여 당학교에 과견하는것도 빈번하게 큰 곤난과 결부된다。 여기에 관련하여 독일사회주의통일당대표회의는 당원들과 당열성자들의 자습을 광범하게 전개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제一차대표회의의 이러한 결정을 수행하면서 우리는 당학습망을 조직함을 중지하지 않으면서 당원들로 하여금 맑쓰—레닌주의의 리론을 자립적으로 깊이 학습하게하는데 전노력을 경주하고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학설로써 당원들을 교양하는 방법으로써만이 사실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당으로 전변될수 있을것이다。

(「영구한 평화를 위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위하여」一九四九년六월十五일부)

一九四九년七월二十五일 인쇄
一九四九년七월三十一일 발행

「근로자」제十四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집인 김 성 용
인쇄인 오 기 익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행소 로 동 신 문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근로자」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 (三〇번)

제ㄱ—13613